

(至上)으로 삼고 자기 가문의 이해를 돌보지 않던 시대어나 행해질 수 있는 것으로서 태평성대가 계속되어 인심이 이완되폐되고 더욱이 이 고유한 풍속과 어울리지 않는 중국 사상이 수용된 시대에서는 주권이 박약해져 귀족간의 분쟁을 낳아, 마침내는 국가가 쇠멸(衰滅) 하는 것이 남을 뿐이었다.

선덕왕 재위 6년 기간 중 시정상(施政上)에 있어서 3년 한산주에 순행하고 패강진(溟江眞) 및 대곡진(大谷鎭)을 경영하기도 하였다.

왕은 일단 왕위에 올랐으나 진골의 유력자의 전횡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 같다. 5년에는 왕위를 양위하려고도 하였다. 이듬해 정월 당의 덕종(德宗)은 호부랑중(戶部郎中)을 파견하여 왕을 신라왕에 책봉했다. 이 책봉이 늦은 것은 무엇인가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달 13일 왕이 홍거하였는데 왕자가 없었다. 여기서 진골 사람들은 화백(和百)을 개최하여 후대 왕을 정하는 회의를 열었다. 태종무열왕의 6세 손자로 선덕왕의 가계인 주원(周元)을 세우려고 했지만 여의치가 없었다. 그리하여 내물왕의 11세 손으로 당시 상대등(上大等)인 경신(敬信)을 세워 왕으로 추대했다. 이것이 바로 원성왕(元聖王)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왕을 정하는 토의를 할 때 주원의 집은 수도에서 북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한다. 큰 비로 알천(關川)이 범람하여 주원이 건너 올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임금은 대위(大位)로서 진실로 사람이 도모할 수 없다. 오늘의 폭우는 주원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의미다’라고 했다. 여기서 의견을 모아 경신으로 추대하자라고 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경주 땅에서 정월 중순 혹은 하순에 폭우가 내려 하천이 범람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경신이 양상의 동생이라는 설이 있으나 이는 틀린 것이다. 양상의 아버지는 해찬(海澮) 효방(孝芳)으로서 어머니는 김씨이다. 경신의 부친은 일길찬(一吉澮) 효양(孝讓)으로서 어머니는 박씨이다. 왕재위 10년에 홍거하고 손자 준옹(俊甞)이 즉위했으니, 소성왕(昭聖王)이다. 다음해에 소성왕은 홍거하고 아들 청명(淸明)이 즉위했으니 애장왕(哀莊王)이다.

애장왕은 즉위 당시 겨우 13세로서 숙부인 아찬병부령 언승(彦昇)이 섭정하여 각간이 되고 어용성사신(御龍省私臣)이 되어 상대등에 올랐다. 애장왕 10년 마침내 동생 이찬(伊澮) 제옹(悌甞)과 난을 일으켜 왕을 시해하고 왕의 동생 해명(解明)을 해하고 왕위에 올랐으니 헌덕왕(憲德王)이다. 헌덕왕 7년에는 서쪽 변방의 주군에 크게 기아와 도적이 융기하자 병사를 파견하여 이를 토벌하였는데 8년에도 토지가 황폐되어 민중들이 기아에 빠졌다. 당나라의 석동(浙東)에 가서 금을 구하는 자들이 170명에 달했다. 9년에는 많은 사람이 굶어서 죽고 11년에는 도적들이 일어나고 12년에는 봄과 여름의 가뭄으로 겨

울에 기근이 생겨 13년에 봄에 이르러서는 백성들이 기아에 허덕이다 못해 자식들을 팔아서 생활할 정도였다.

왕 3년, 4년 때부터 일본에 귀화하는 자들이 매우 많아졌던 것은 이것이 원인이었다. 이처럼 인민들은 매년 기아와 악정의 곤경에 빠졌다. 14년에는 웅천주군도독(熊川州郡都督) 헌창(憲昌)이 병사를 일으켜 왕위를 빼앗으려고 내란을 일으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헌창은 주원의 아들로 무열왕 7대손에 해당한다.

헌덕왕 5년 무진주도독이 되고 다음해 시중이 되었다. 8년에는 청주도독을 지냈고 13년에 다시 웅천주도독이 되었는데 아버지 주원이 왕위에 오르지 못했으므로 병사를 일으켜 왕위를 쟁탈하려 하였다. 나라 이름을 장안(長安)이라 칭하고 경운(慶雲) 원년이라 연호를 썼다. 무진, 완산, 청, 사대, 네 주의 도독, 국원, 서경, 금관의 사신(仕臣) 및 여러 군현의 수령을 협박하여 협력하게 만들었다.

청주도독 향영(向榮)이 탈출하여 추화군(밀양)으로 달려갔고 한산, 우두(춘천), 삼랑(歙良), 북원(北原) 등은 먼저 헌창의 음모를 알고 병사로 하여금 지키며 형세를 관망하였다. 왕은 보고를 받고 8명의 장수를 내세워 왕도의 8곳을 수비하게 하였다. 그런 후 군사를 출병시켜 삼년산성을 공격하여 이에 승리하였고 속리산에서 적병을 무찌르고 성산(星山)에서 싸워 또한 이겼다. 여러 군대가 힘을 모아 웅진에 도착하여 헌창을 둘러싸고 한 달 여간 공략하였다. 헌창은 자결하고 성은 함락되었다.

즉 헌창의 종족 당과 등 전부 239명이 죽었고 그 난은 평정되었다. 이 내란은 태종무열왕 계통의 진골과 내물왕 계통의 진골과의 왕위를 둘러싼 투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태종왕계가 내물왕 계통으로 옮겨져도 태종 문무 두 왕의 종묘는 이를 훼손하여 철회하지 않았다. 주원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덕왕이 흥거하자 왕의 후보자로 올라 거의 추대되는 듯했었는데 경신(후에 원성왕) 때문에 왕위에 오르지 못하자 명주(冥州, 강릉)에 은거하며 새로운 왕정에 나가지 않았다. 원성왕은 바로 주원에게 명주(강릉) 익령(지금의 양양), 삼척, 울진, 근을어(斤乙於, 지금의 평해(平海)) 등의 군현을 나누어주어 식읍(食邑)으로 하였고 명주군왕(溟州郡王)으로 삼아 자손에게 세습시키도록 했다. 헌덕왕은 주원의 아들 헌창을 장상(將相)으로 중용하여 의심치 않았고, 마침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어도 같은 주원의 아들인 종기(宗基)는 원성왕 6년 시중(侍中)에 임명되어 종기의 아들 정여(貞茹), 정여의 아들 양(陽)은 모두 세습 집안으로서 장상(將相)이 되었다.

김양(金陽, 헌창의 난 때에 15세임)은 이후의 난이 일어났을 때 균정(均貞)과 함께 신무왕(神武王)을 맞이하고 옹립하여 큰 공을 세웠다. 김양의 사촌형 혼(昕)은 헌덕왕대의 시중에 올랐다. 왕 17년 태종의 후예로서 뛰어남을 인정받아 선발되어 당나라에 들어가

숙위(宿衛)하고 돌아와서 강주대도독(康州大都督)이 되었다.

균정의 반대당인 김명(金明, 민애왕(閔哀王))의 당에 속하였다. 이를 보아도 태종왕 계열과 내물왕 후손계열 사이에 계열을 나누어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헌창의 난은 이미 평정되었지만 그 다음 다음해(17년)에는 헌창의 아들 범문(梵文)이 고달산(高達山, 황해도 곡산에서 55리 떨어진 곳)의 도적 수신(壽神) 등 백여 명을 거느리고 모반을 일으켜 수도를 평양(지금의 양주(楊州))에 세우려고 북한산주(北漢山州)를 공격하였으나 도독 총명(聰明)이 잡아 죽였다.

제2절 왕위의 분쟁

헌덕왕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다. 중이 되어 심지(心地)라고 이름하였다. 왕 14년에 같은 어머니의 동생 수종(秀宗)을 부군(副君)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전해지지 않는다. 왕 18년에 흥거하고 수종이 왕위를 계승하였으니 흥덕왕이다. 왕 10년 김유신을 몰아내고 흥무대왕(興武大王)에 추봉(追封)하였다. 11년에 왕은 흥거하였으나 아들이 없어 마침내 왕위 계승 분쟁이 일어난다. 상대등 균정(원성왕 경신의 손자로 이찬(伊澮) 예영(禮英)의 아들), 제용(悌隆, 원성왕의 증손(曾孫)으로 이찬 영례(英禮)의 손자)의 숙부와 조카사이의 왕위 다툼이다.

원성왕 경신 (敬信)	헌평태자 의영(義英)	
	혜충태자 인겸(仁謙)	소성왕 준옹(俊邕) - 애장왕 청명(淸明)
		헌덕왕 언승(彦昇) - 중 심지(心持)
		흥덕왕 수종(秀宗)
	이찬 영례(英禮)	이찬 헌정 - 희강왕(僖康王) 제용(悌隆) - 계명(啓明) - 경문왕
		박씨 정교 부인
		균정 상대등
	충공 대아찬 추시(追諡) 선강왕(宣康王)	소명부인(昭明夫人)
		문목부인(文穆夫人)
		민애왕(閔哀王) 명(明)

시종 김명, 아찬 이홍(利弘) 등은 제용을 지지했고, 아찬(阿澮) 우징(祐徵)은 조카 예징 및 김양과 그의 아버지 균정을 지지하여 한때는 왕궁에 들어가 서로 싸웠다. 그렇지만

김양은 화살을 맞았고 우징 등은 도망했다. 균정은 해를 입었지만 제용은 싸움에서 이겨 즉위했으니 희강왕(僖康王)이다.

우징은 왕도에 있다가 다음해 5월 화를 피해 처자와 낙동강에서 배를 타고 청해진대사(淸海鎮大使) 궁복(弓福)에게 의탁했다. 궁복은 궁파(弓巴)라고도 적는다. 『속일본기(續日本紀)』에 장보고(張寶高)라 칭하는 사람이다. 궁복은 장년기에 당나라에 건너가 장보고(張保臯)라 칭하며 무녕군소장(武寧軍小將)이 되었다.

말을 타고 창을 다루는 기술에는 적수가 없었다. 후에 신라에 돌아가 왕을 알현하였다. 흥덕왕 3년 청해진 대사가 되어 신라를 약탈하고 당나라를 속이는 자를 경비하였다.

청해진은 지금의 완도(莞島)로서 궁복은 병사 만 명을 거느리고 여기에 주둔하면서 당과 일본에 무역하여 군사는 강하고 백성들은 부유하여 흡사 당나라의 번진(蕃鎭)과 같은 형세여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세력이 되었다(보고(保臯), 보고(寶高)는 복(福)자의 음을 따서 두 글자로 만든 글자이고, 파(巴)는 복(福)의 약자라고 한다).

희강왕 3년 정월에 상대등 김명, 시중 이홍 등이 병사를 모아 난을 일으켜 왕의 주변 인물들을 죽였다. 왕은 자신이 왕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알고 궁중에서 목을 매어 자살했다.

김명은 원성왕의 증손으로 대아찬 충공(忠恭)의 아들이다. 이로써 왕위에 오르니 민애왕(閔哀王)이라 한다. 다음달 김양은 병사를 모집하여 청해진으로 가서 우징을 알현하고 우징과 함께 진대사(鎭大使) 궁복에게 군부(君父)의 원수를 갚을 것을 종용하니 궁복은 이를 허락하고 3월에 무주(武州)를 습격하여 이를 정복한다. 이어 남원(南原)을 공격하여 승리하고 해진으로 돌아와 병사를 양성했다. 12월에 막객(幕客) 정년(鄭年, 신라인으로서 궁복과 함께 당에 가서 무녕군소장이 되었다. 후에 본국에 돌아와 궁복의 막객이 된 자이다) 등에게 병사를 주어 김양과 함께 행진하게 하여 무주(武州), 철야현(鐵冶縣) 북주(北州)에 이르렀다.

대감(大監) 김민고(金敏固)가 역습하였지만 이를 격파하고 대부분을 살해하였다. 4년 정월 19일에 군사가 대구(大邱)에 도착하여 민애왕의 군사를 격파하고 왕도로 들어갔는데 민애왕은 궁궐을 탈출하여 도망했으나 병사에 의해 살해되었다. 4월 우징은 청해진에서 돌아와 왕위에 올랐으니 이는 신무왕이다. 이해 7월 왕은 등에 병이 생겨 흥거한다. 아들 경응(慶膺)이 왕위를 계승하는데 이는 문성왕이다. 여기에 이르러 왕위의 분쟁은 멈추게 되지만 국력은 점점 더 쇠퇴하게 된다.

제2장 신라의 쇠퇴

제1절 신라의 쇠퇴(衰微)

문성왕 재위 19년, 이 기간 중 왕 3년에 일길찬 홍필(弘弼)의 모반이 있었다. 난을 일으킨 홍필은海道(海島)에 도망했고 이를 체포하지 못한 것으로도 국력의 쇠퇴를 볼 수 있다.

이해 11월 청해진 대사 궁복의 모반이 일어났다. 궁복은 신무왕을 도운 큰 공이 있어 진해 장군의 호를 상으로 받았지만 문성왕은 그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여 두 번째 비(妃)로 삼으려 하였다. 한 신하가 간언하기를 궁복은海道(海島) 사람인데 어찌 그 딸을 왕실의 배필로 삼을 수 있습니까 하였다. 왕은 이를 받아들였고 궁복은 이를 원망하여 모반을 일으켰다.

왕정에서는 이를 토벌하자니 예측할 수 없는 후환이 두렵고 또한 이를 방치하자니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우려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런데 한 장수가 거짓으로 모반하고 궁복에 투신한 후 궁복이 취한 틈을 이용하여 자살(刺殺)하여 이 일은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13년에 이르러 청해진을 파(罷)하고 그 사람들을 벽골군(碧骨郡)으로 옮겼다. 삼국사기에는 이 사건을 왕 8년이라고 적고 있는데 속일본기에서는 신라인의 말을 기록하여 이를 승화(承和) 8년(왕 3년) 11월 장보고가 사망하여, 그 부장 이창진(李昌珍) 등이 무진주에서 반란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이를 열하(列賀) 등이 병사를 일으켜 토벌했다고 적었다. 삼국사기는 기년(紀年)이 잘못된 것 같다. 9년에는 이찬 양순(良順) 파진찬(波珍滄) 흥종(興宗)의 모반이 있었다. 왕이 흥거했으나 아들이 없어 숙부 의정(誼靖)이 왕위에 올랐으니 헌안왕이다. 헌안왕(憲安王)은 신무왕의 배다른 어머니의 동생으로 어머니는 민애왕(閔哀王)의 동생이다. 왕 재위 5년 만에 흥거하였고 아들이 없어 사위인 응렴(膺廉)이 왕위에 올랐으니 경문왕(景文王)이다. 왕은 앞 왕의 형제인 계명아찬(啓明阿飡)의 아들이다. 재위기간은 15년이었다. 그 사이 6년에는 이찬 율흥(允興), 숙흥(叔興), 계흥(季興) 형제가, 8년에는 이찬 김예(金銳), 김현(金鉉) 등이, 14년에는 이찬 근종(近宗)이 모반을 일으켰으나 큰 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왕이 흥거하자 아들 헌강왕이 즉위하고 이찬 위홍(魏弘, 선덕왕이 혜성왕이라는 호를 내렸다)이 상대등이 되었다. 6년 9월 왕이 측근들과 산에 올라 왕도의 민가가 서로 이어 있고 노래 소리가 연이는 것을 보고 시중 민공(敏恭)에게 말하기를 듣자니 지금의 백성들 사이에 지붕을 기와로 바꾸고 띠로 엮지 않는다. 밥을 짓는 것도 탄(炭)을 쓰며 장작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사실인가. 민공 대답하기를 신이 이전에 그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왕이 즉위한 이래 음양이 조화하고 바람과 비가 순조롭고 곡식이 풍성하여 백

성들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변경은 싸움이 없이 평안하여 백성들이 즐거워합니다
라고 했다.

당시를 가리켜 신라왕도의 전성기라고 전한다. 신무왕 이후 왕위의 분쟁도 그치지 40
년이 흘렀고 왕도는 평안했다고 하지만 실은 지방에서는 도적이 횡행하고 호적이 할거
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었다. 왕도 6부에 살고 있는 신라인들은 활력이 다해 모두 교만
하고 사치하며 목전의 안락만을 추구했다. 그 후 60년 신라가 병사를 일으키지 않고 영
토도 하루하루 줄어들어 마침내 개국 이래 도성이 한발자국도 확대되지 않은 평안한 사
이에 멸망의 길이 찾아온 다른 예에서 볼 수 없는 기이한 사실은 신무왕 이후의 자연스
러운 형세였다고 말할 수 있다.

제2절 신라의 멸망

헌강왕은 아들이 없이 흥거했다. 동생 정강왕(定康王)이 즉위했으나 다음해 흥거하는
데 역시 아들이 없었다(헌강왕 13년 광계(光啓) 3년 7월 5일 흥거하고 정강왕이 즉위했
는데 일 년도 안돼 흥거했다는 설이 있다). 여동생 만(曼)이 즉위하는데 이는 진성여왕
(眞聖女王)이다. 진덕여왕의 뒤에 다시 여왕이 출현하였다. 그렇지만 이전 시기와는 사
정이 전혀 달랐다. 전에는 국가의 위급한 시기에 영웅무사들이 많은 진골 등이 여왕을
추대하여 마음을 모아 활약한 시기이다. 지금은 국운이 날로 쇠퇴해가는 시기로 태만과
방탕으로 정사가 해결되지 않고 후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여왕을 세운 것이다.

이때에 여왕의 유모인 부호부인(婁好夫人)과 위홍 등이 마음을 방자하게 하여 뇌물을
공공연히 받았고 상벌이 공평하지 않아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 이것은 모두 유래가 오
래된 폐정(弊政)의 결과로 여왕시기에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왕시기에 이르
러 궁궐의 부패는 극도에 달했다. 당시 어떤 이가 길가에 글을 붙여 은어로서 시정일 비
방하였는데 이르기를,

남무망국(南無亡國) 찰니판니소리니(刹尼判尼蘇判尼)
간간삼아간부이자가(干干三阿干婁伊姿訶)

찰니나제(刹尼那帝)는 여왕을 가리키고 판니소판니(判尼蘇判尼)는 판소의 지위에 있
는 자 2명, 간간삼아간(干干三阿干)은 아간의 지위에 있는 자 3명, 부이(婁伊)는 여왕의
유모를 가리키는 말로 이들이 정치를 혼란시켜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표현한 것이다.

그렇지만 음탕한 한 여왕 정도는 여러 진골들이 충성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제지시킬
수 있어서 국가가 멸망하는 것은 한사람 여왕의 죄가 아니고 국가의 모든 사람에게 죄

가 있다.

여왕이 즉위하고 처음에는 국내의 주군(州郡)이 조공을 바치지 않아서 왕궁의 창고는 비었고 국가재정이 고갈되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이를 독촉한 곳에서 도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왕 5년에는 북원(北原, 원주(原州))의 도적 수령 양길(梁吉)이 그 부하 궁예(弓裔) 등과 100여 명의 기병을 데리고 북원의 동쪽 부락 및 명주(溟洲) 영내의 주천(酒泉), 내성(奈城, 영월군) 등 10여 군현을 습격하여 점령하였다. 이 다음해 6년에는 완산(完山, 전주)의 도적 견훤(甄萱)이 주현을 약탈하고 보름 만에 군사가 5천 명에 이르러 무주의 동남부를 함락하여 이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견훤의 수령중 유력자들은 성주(城主)라고 칭하며 그 지역에 할거했다. 무력한 자들은 도망하여 토호로서 할거하며 또한 성주라고 칭했다.

이 기간에는 도적들이 횡행하여 여러 곳에 할거하여 완전히 난세가 되었다. 왕은 11년 6월에 왕의 자리를 헝강왕의 서자 효(曉)에게 내주고 그해 12월에 홍거했다. 효는 효공왕(孝恭王)이다.

효공왕 2년 궁예(弓裔)는 패서도(溟西道) 및 한산주(漢山州) 영내의 30여 성을 차지하여 사악군(私岳郡, 개성)에 수도를 정하고 양길(梁吉)과 싸워 승리하였다. 왕 4년에는 궁예의 부장 왕건(王建)이 한주(廣州), 중원(中原, 충주) 등의 여러 군을 함락했다. 견훤은 처음에 신라 서면군통(西面郡統)이라고 칭했는데 이해 서쪽까지 진행하여 완산주까지 이르게 되었다. 사람의 민심을 얻어 백제 의자왕의 울분을 설욕한다고 하여 백제 왕이라고 자칭하며 완산에 수도를 정하고 관직을 설치하였다. 사신을 파견하여 오월(吳越)에 조공하여 오월의 보빙(報聘)을 받았다.

궁예는 처음에 현안왕의 서자였으나, 5월 5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왕이 그를 죽이려 하였지만 유모가 데리고 피신하여 보육했던 자였으므로 신라에 원한을 가졌다고 한다. 신라를 멸하고 고려를 위해 복수한다고 외치며 왕 5년에 이르러 왕이라 칭하였다.

효공왕 7년 전라도의 여러 지방은 모두 견훤의 손에 들어갔고 금성군(金城郡, 나주)만을 궁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궁예의 장수 왕건은 수군을 이끌고 서해를 남하하여 무주(光州)로 들어가는데 무주는 견훤의 사위인 지훤(池萱)이라는 자가 견고하게 지키고 있어 항복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를 버리고 금성군을 공격하여 이를 빼앗고 10개의 군현을 취하였다. 금성을 공격하여 나주로 하고 군사를 나누어 이를 지키도록 하고 돌아왔다.

8년 궁예는 신라제도를 쫓아 백관(百官)을 설치하고 나라를 마진(摩震)이라 칭하고 무태(武泰)라고 건국 연호를 정했다.

이해 궁예는 상주에 침입하여 30여 개의 읍을 점령하였다. 신라의 응주, 선장군 홍기

(弘奇)는 모반을 일으켜 궁예에게로 투항하였다. 패강도(溟江道)의 10여 읍을 또한 얻었다. 9년 궁예는 철원(지금의 철원읍의 동북)에 수도를 세우고 성책이라고 연호를 고치고 신라를 멸도(滅都)로 칭하며 신라(왕도(王都))로부터 이주해오는 자를 모두 살해했다.

이때 신라왕국은 신라, 백제, 고려(마진(摩震) 태봉(泰封))의 삼국으로 분열하는 형세에 있었다. 국토가 날로 깎여나갔으나 막을 수가 없었다. 여러 성에 명하여 출전하지 말고 성벽을 견고히 하여 굳게 지키는데 그칠 뿐이었다. 10년 궁예는 왕건을 파견하여 견훤과 사대진(沙大鎭, 상주(尙州) 부근)에서 전투하여 승리하였다. 11년에 견훤은 일선(一善)에 침입하여 10개의 성을 취하였다. 이때 신라의 종주국인 당은 주전충(朱全忠)에 의해 멸망하였다. 14년에 견훤은 나주를 포위하는데 왕건이 전함을 이끌고 나아가 나주 포구(목포에서 영암 덕진포 사이)에서 견훤의 전함과 전투하여 크게 승리함으로써 포위를 풀고 그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16년 왕이 흥거하자 아들이 없었다. 신라인(진골) 즉 박경휘(朴景暉)를 추대하여 왕으로 삼았으니 신덕왕이다. 왕은 박씨로서 아달라이사금(阿達羅尼師今)의 자손에 해당하는 대아찬 인겸(人謙)의 아들로서 효공왕비의 동생이며 헌강왕의 사위이다. 아달라이사금은 신라의 제8대왕이라고 전해지며 이후 45왕은 처음의 몇 왕이 석씨였을 뿐 전부 김씨였는데, 여기에 이르러 박씨왕이 출현했다. 이것은 진골이 바로 왕의 종족(種族)이라는 관습의 신라에게는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신덕왕대에 궁예는 장수 왕건이 나주를 진무하면서 궁예는 크게 강해졌는데 삼국이 정립하는 형세가 지속되었다. 왕 재위 6년이 되어 흥거하자 아들 승영(昇英)이 즉위했는데 경명왕(景明王)이다.

경명왕 2년에 궁예는 사신을 오(吳)에 보냈다. 이보다 앞서 수 년 이래 궁예는 의심이 많고 격노하는 사람으로 변하여 무고한 사람을 계속 살육하여 사람들이 불안해하였다. 이에 반해 왕건은 위덕을 쌓고 날로 성장하여 민심이 모였다. 그해 6월 왕건의 무리가 돌연히 일어나 궁예를 추방하였는데 궁예는 도망하다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궁예는 거병 이래 18년 만에 멸망하고 왕건이 왕이 되었다. 나라를 고려라 칭하고 천수(天授)라고 연호를 바꾸어 사신들을 제(諸) 지방에 할거하는 자들에게 보내어 예물과 겸손과 화합의 뜻을 보여 이에 따르는 자들이 많았고 고려의 태조왕으로 즉위하였다.

경명왕 3년 왕건은 수도를 송악군(松岳郡) 즉 이후 4백여 년간 이 나라의 수도가 된 지금의 개성부로 옮겼다. 전해 8월 후백제의 견훤은 사신을 고려에 보내어 즉위를 축하하고 왕건은 이 사신을 맞아 예우를 갖추어 돌려보냈다. 그러나 4년 고려왕은 신라와 통호(通好)하려 하였으나 길이 막혀 걱정하였는데 신라 재암성(載巖城, 경상도) 성주 선필(善弼)이라는 자가 계책을 꾸며 이를 선도하자 양국 사이에 수호를 맺게 되었다. 이것은

실로 신라왕국내에서 일어난 모반국인 고려를 우방국으로 인정하는 격이 되는 매우 기이한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신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도인의 신라가 아니라 구신라 귀족의 신라였기 때문에 상부에서 오랫동안 고식과 게으름의 습관으로 인해 이에 이르러 후고려 후백제를 마치 3백 년 전의 백제, 고구려처럼 이웃나라로 여겨 국가의 체면상 참을 수 없는 굴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해 겨울 10월 백제의 견훤은 보병과 기병 1만을 거느리고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진예군(김해군 서쪽의 진예)에 도착했다. 신라왕이 왕건에게 구원을 요청하였으므로 고려왕은 군사를 파견하여 이를 구원하였고 백제왕은 퇴각하였다. 이때 신라의 제지방의 수장들은 각각의 병사를 가지고 성에 할거했는데, 명주장군 순식(順式), 진본성주 홍술(洪術), 명지(命旨, 포천)장군 성달, 벽진(성주)장군 양문 등이 계속해서 고려에 항복했다. 이처럼 백제와 고려는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화합하기도 했다.

8년 경명왕이 흥거하자 왕의 동생 위웅(魏膺)이 즉위하니 경애왕이다.

경명, 경애 두 왕 시기 신라의 국토는 날로 줄어 겨우 벽지 인 옛 땅에 왕의 이름을 이어갈 뿐이었다. 경애왕 2년 고을부(高鬱府, 영천) 장군 능문(能文)이 고려에 항복하자 고려왕은 이를 돌려보내고 부하들만 남겨두었다.

이해 고려와 백제는 연산(燕山), 임존(任存, 대흥) 방면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화해하고 인질을 교환하지만 그 다음해 다시 전투를 벌였다.

4년 정월 고려왕이 친히 백제를 정벌하려 하자 신라도 병사를 내어 원조하여 입산(笠山, 경상도 용궁(龍宮))을 얻었지만 계속해서 백제와 고려는 운주, 강주 등에서 전투를 벌였다. 이와 같이 신라는 쇠퇴하여 자멸하지 않을까 하는 시기에 이르렀다. 이때에 왕은 매일같이 궁정의 미인들과 포석정에서 「번화지곡(繁華之曲)」을 연주하며 향연을 즐겼는데 그 가사에,

신원사(祇園寺) 실제사(實際寺)여. 동서쪽의 두 사찰, 소나무 잣나무 의지하여 나동(蘿洞)에서 머리를 돌리니 바라보는구나, 독에 가득찬 꽃들을. 아스라한 안개와 가버이 흐르는 구름이 몽룡(濛龍)을 덮었구나⁵²⁾

라고 하여 나라가 망하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다.

신라의 재상 김웅렴(金雄廉) 등은 고려왕을 신라에 유인하자는 계략을 세웠다. 이때 견훤은 고려의 선제공격을 우려하여 9월에 병사를 일으켜 고려를 공격하여 근품성(近品城, 상주(尙州) 속현(屬縣) 산양(山陽))을 불태우고 신라 영토로 들어가 고을부에 도착하여 장차 왕도로 진격하려 하였다. 이에 신라왕은 황급히 고려에 알렸고 고려는 병사 1만

52) 祇園實際寺 二寺東西 松柏倚兮 蘿洞中 回首一 望兮 花滿塢 細霧輕雲兮 并濛瀧.

을 보내어 이를 구원하려 하였으나 미처 구원병이 도착하기 전인 11월에 견훤이 왕도로 진입하였다. 그때 왕은 왕비, 종친들과 포석정에서 연회를 즐기느라 적의 병사가 도착하는 것도 모르다가 창졸간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은 왕비와 성 남쪽의 이궁(離宮)으로 피신하였고 도성 사람들도 귀천을 막론하고 사방으로 도주하였다. 적의 포로가 된 자들은 모두 엎드려 노비가 될 것을 애걸하였지만 주륙(誅戮)을 당하였다. 견훤은 군사들의 노략질을 방임하였고 왕을 체포하여 강압적으로 자결토록 하였다. 이후 왕의 족제(族弟)인 김부(金傅)를 신라 왕으로 삼고 왕의 동생인 효렴(孝廉)과 재상 영경(英景)을 포로로 하였다. 이어 금은보화와 병장기, 자녀, 장인 등의 우수한 것을 거두어 귀국하였다. 단지 견훤의 잔악한 행위의 기사는 고려 사관의 기록이므로 진상이 분명하지 않다.

고려왕은 이때 공산동수(公山桐數, 공산은 지금의 영천군 서쪽에 있다. 속칭 태조성이라고도 한다. 혹은 대구에 있다고도 한다)에서 싸워서 패하여 겨우 몸을 보존하여 돌아갔다고 한다.

김부(金傅)는 문성왕의 후예인 이찬 효종의 아들이며 현강왕의 외손이다. 견훤의 발탁으로 즉위하는데 이는 경순왕(敬順王)이다. 경순왕은 정순왕(靜順王)이라고도 한다.

신라인이 이 왕을 추대함에 있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 것은 약함이 극에 달했음을 의미하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정이 있다.

경순왕 원년 2년, 3년에 걸쳐 고려와 백제는 주로 충청, 경북방면에서 전투를 벌이는 형국이었다. 경순왕 4년 정월에 고려는 백제와 고창(古昌), 병산(瓶山)에서 전투를 했는데 이를 크게 격파하여 백제군의 죽은 병사가 8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따라서 영안(永安, 지금의 풍산), 아곡(阿曲, 지금 안동에 속했다), 직명(直明, 앞과 같다), 송생(松生, 청송) 등 30여 신라 군현이 고려에 귀속되었다. 9월에 신라의 동쪽 연안의 주군(州郡)은 명주(강릉)에서 흥례부(興禮府, 울산)에 이르기까지 전부 110개 성(城)이 고려에게 항복했다.

이해 2월 고려왕은 사신을 보내어 고창의 대첩을 보고하는데 신라왕은 이에 화답하여 서로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 신라 경순왕 5년 2월에 고려왕은 50여(십은 천의 오기일 것이다) 기마병을 이끌고 신라 왕도에 와서 왕과 만났다. 수개월을 체류하다가 5월에 왕도로 돌아가는데 왕은 멀리까지 환송하고 유림(裕廉)을 인질로 보냈다.

고려와 백제와는 공격과 전투가 끊이지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고려의 형세가 점점 강해졌다. 왕 8년 3월에 이르러 백제의 견훤은 그의 아들 신검(神劍)과 불화를 일으켜 신검은 아버지를 유배시키고 동생을 죽여 자립하였으므로 6월 견훤은 고려로 탈주하여 고려 왕에게 몸을 맡겼다.

이때 신라는 사방의 토지가 모두 고려와 백제의 소유가 되었고 고립되고 약해져 지탱

할 수가 없었다. 불안해진 왕은 모든 토지를 고려에 바쳐 항복할 것을 신하들과 의논하였는데 어떤 자는 그에 따르자고 하고 어떤 자는 반대했다. 왕자는 이를 반대했다. “나라의 존망은 반드시 천명이 있다. 충신과 의사(義士)와 민력을 모아 죽음으로써 국가를 지켜 그래도 힘이 모자라면 할 수 없다. 어찌 1천년의 사직을 하루아침에 가벼이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는가”라고 했다. 왕은 “고립이 이 지경에 이르러 세력을 보존할 수 없으니 강해질 수도, 약해질 수도 없다. 무고한 백성이 길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내가 참을 수 없다”고 말하고 마침내 항복하기를 결정하고 10월 시랑(侍郎) 김봉휴(金封休)를 파견하여 항복을 고려에게 간청했다. 왕자는 통곡하며 관직을 사직하고 개골산(皆骨山, 금강산)에 들어가 바위에 집을 짓고 마로 옷을 해 입고 풀 등을 먹으며 여생을 마쳤다. 그 동생은 승려가 되어 범공(梵空)이라는 이름으로 범수 법인사(法印寺)에서 살았다고 한다. 고려왕은 왕의 글을 받고 대상 왕철(王鐵) 등으로 하여금 이를 영접하게 했다. 11월 왕은 백료들을 데리고 왕도를 출발하여 고려의 수도인 개성으로 향했다. 화려하나 마차와 말이 30여 리나 연이었고 12일이 걸려 도착하였다. 고려왕은 의를 갖추고 밖으로 나가 이를 맞이하여 유화궁(柳花宮)에 머물도록 했다. 장녀인 낙랑공주(樂浪公主)를 부인으로 삼게 했다. 12월에 신라왕은 고려왕에게 신하의 예를 갖추고 열석하였다. 고려왕은 여기에서 왕을 정승공(正承公)에 봉하였는데 지위는 태자의 위였다. 그리고 신라의 이름을 고쳐 경주라 하고 식읍으로 주었다. 신라는 마침내 멸망하게 되었다. 주작천황(朱雀天皇) 승평(承平) 5년이였다. 다음해 고려는 백제를 멸하고 반도를 통일했다.

제3장 신라와 외국과의 관계

제1절 당과의 관계

당과의 관계는 앞 시대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렇지만 쌍방의 정치적 상황과 성쇠에 의해 다소 관계가 소원하거나 밀접해지는 변화가 없지는 않았다. 혜공왕 말년부터 선덕왕에 걸쳐서는 당과 신라가 모두 국내의 사고가 많아 신라의 조빙(朝聘)이 자연스럽게 소홀하였고 당의 신라에 대한 예우 또한 쇠퇴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일시적인 변화였다.

김인문 이래 신라의 왕자 혹은 왕족 자제들은 끊임없이 당나라에 건너가 숙위하거나 유학생으로 파견되었다. 헌덕왕 17년에는 왕족 김흔(金昕)을 파견하여 당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앞서 숙위하던 대학생 최이정(崔利貞), 김숙정(金叔貞), 박계업(朴季業) 등을 번(蕃, 신라)으로 돌려보내고 새로이 김무부(金无夫)⁵³⁾, 김립지(金立之), 박양지(朴亮之) 등 12명을 숙위케 하여 국자감(國子監)에 입학시켜 교육하고 홍려사(鴻臚寺)에서 양식을

53) 김윤부(金允夫)의 오기이다.

공급할 것을 청하자 당은 이를 받아들였다. 또 왕 11년에 운주절도사 이사도(李師道)가 모반을 일으키자 현종은 양주절도사 조공징(趙恭徵)을 신라에 파견하여 그 병마(兵馬)를 징발하도록 조칙을 내렸는데 왕은 칙서를 받고 순천장군 김웅원(金雄元)으로 하여금 병사 3만을 내어 돕도록 하였다.

이때 당과 신라 쌍방의 국제사절의 왕래는 전대에 비해 소원하기는 했지만, 공적, 사적인 교통은 매우 성황이어서 신라인이 당나라에 들어가 문무관직에 오르는 자도 있었다. 헌덕왕 8년의 기근에는 절동(浙東)에 양식을 구하러 간 자가 170명에 이르렀다. 신라인의 도적 중에는 신라인을 약탈하여 노비로 삼아 당에 보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궁복(弓福 또는 장보고(張寶高))은 당나라에서 이를 보고 후에 신라로 돌아와 흥덕왕에게 신라의 해로(海路)의 요지인 청해(淸海, 지금의 완도)에 진을 두어 도적들이 사람들을 약탈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간청하였다. 왕은 청해에 진을 설치하고 궁복을 대사로 임명하여 병사 만 명을 이끌고 이를 진압하게 하였다. 이때부터 해상 도적들이 없어졌다고 한다.

다음해 당나라의 은성(恩城)에 당성진(唐城鎭)을 설치하고 사찬극정(沙漚極正)으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 문성왕 6년에 강에 혈구진(穴口鎭)을 두고 아찬 계홍(啓弘)을 진두(鎭頭)로 삼아 당나라와 신라 간의 해적을 제압할 수 있었다. 궁복은 남방교통로의 요지에 있었으므로 무역의 이익을 차지하여 그의 배는 우리 규수(九州)에도 왕래하였다. 문성왕 2년 당나라의 문종 황제는 홍려사(鴻臚寺)에 칙서를 내려 신라의 인질들과 또한 기간이다 차서 귀국해야만 하는 유학생 모두 105인을 신라에 돌려보냈다. 이때에 신라인들 중에는 당나라에 유학하여 진사(進士)에 급제하여 당나라의 관직에 오른 자도 꽤 있었는데 문성왕 3년(회창 원년)에는 그 중의 한사람인 김운경(金雲卿)의 귀국 당시 그를 당나라의 관리로서 왕의 책사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당나라가 쇠퇴함과 함께 자주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오늘날 사적(史籍)에 전해지는 신라와 당과의 교통에 관한 기록은 당의 사적이 대부분인데 당은 이시기부터 국가가 어지러워져 사적과 이러한 종류의 기록 중 없어 사라진 것이 많아서 그 사실의 전해지지 않는 것이 많다. 단지 사적의 기록만으로 양국의 교통이 소원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안왕이 흥거하고 경문왕이 즉위했을 때 당은 조책사(弔冊使)를 오랫동안 보내지 않았다. 당나라에서 사신이 오랜만에 파견되지 않았다. 왕 5년에 이르러 의종(懿宗)황제는 사신을 파견하여 현안왕을 조문하고, 경문왕을 책립하여 부포(賻布) 천척(千尺)을 비롯하여 왕과 왕비, 태자, 대재상(大宰相), 차재상(次宰相)에게 많은 면, 주옥, 금, 은, 기물 등을 하사했다. 신라왕은 왕 9년에 이르러 그 사례로서 말, 금, 은, 차(茶), 직물, 두발(頭

髮) 등을 바쳤다. 이처럼 이 기간에는 년차를 두고 교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헌강왕 4년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어 책봉의 은혜에 감사하려 했는데 황소의 난이 일어났음을 듣고 즉시 중지하였다. 왕 7년과 8년경 당에 파견된 조공 사신 김직량(金直諒)은 당에 도착하였으나 황소의 난 때문에 길이 막혀 초주에서 헤매다가 양주(楊州)에 이르러 황제가 촉(蜀)에 있음을 듣고 절도사 고병(高駢)에게 청하여 사천(四川)에서 황제를 알현했다.

그렇지만 당의 대란(大亂)으로 경문왕 말년까지 양국의 교통도 완전히 단절된 해가 적지 않았다.

함통(咸通) 15년 7월 의종(懿宗)황제가 흉거하자 희종(僖宗)이 즉위했고 다음해 11월 5일, 건부(乾符)라 연호를 고친 사실은 다음해 2월 22일에야 신라에 알려졌다. 광명(廣明) 2년 7월 10일 중화(中和)로 개원(改元)한 사실은 다음해 5월 25일에 신라에 알려졌고 중화 5년 3월 13일에 광계(光啓)로 개원한 사실은 다음해 6월에야 신라에 알려지는 상태가 되었다. 진성(眞聖), 효공왕(孝恭王)의 난세 때에도 사신을 보내었는데, 효공왕 10년 신라인으로서 당나라에 건너가 급제한 김문위(金文蔚)는 책명사(冊命使)에 임명되어 귀국했다. 당은 이듬해에 주전충(朱全忠)에게 나라를 찬탈당해 멸망했다. 경명왕 2년 궁예와 견훤이 각각 사신을 오(吳)에 보내기도 하였다. 8년 정월에 왕의 사신을 후당(後唐)에 보내고 6월 사신을 다시 보냈다. 경애왕 4년 사신을 후당에 보냈는데 같은 4월에 왕봉규(王逢規)는 지강주사(知康州事)라고 칭하며 임언(林彦)을 후당에 파견하였다. 왕봉규(가 어떤 사람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아마 고려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경순왕 6년에 사신을 후당에 보내어 조공하였다. 경명왕 이후의 신라는 사신(使船)을 보낼 자산(資産)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절을 보낸 것은 상선(商船)에 통상의 편의를 주어 그 이익을 나누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2절 일본과의 관계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신라와 당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일본에 조공 사신을 빈번하게 보냈지만, 당과의 관계가 양호할 때는 소원해졌다.

또한 사신을 보낼 때에도 전례(典例)를 준수하지 않은 때가 많았지만 혜공왕 말년에 보낸 사신부터 원성왕 7년(연력(延曆) 10년) 까지 10여 년간에는 사신을 보내지 않았던 것 같다.

이것은 첫째 국내에 많은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간무(桓武)천황 연력(延曆) 10년 이후에는 일본국사의 일부분이 사라진 시기이므로 교통의 사실도 불분명하지만, 전후의 형세로 보아 살펴보면 사절을 보내지 않은 해가 수년에 이르러 애장왕(哀

莊王)의 초년, 즉 간무(桓武)천황 연력(延曆) 19년경에는 일본으로부터 엄중한 문책을 받아 당황하였던 것 같다. 연력 18년(성소왕(聖昭王) 9년) 천황은 정6위 상대반(上大伴) 봉마(蜂麿)를 견신라사(遣新羅使)로 보내려 하였으나 이를 정지시켰다. 그 사정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구두로 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정지시켰던 것 같다. 삼국사기에는 애장왕 3년(연력 21년)에 신라는 원성왕의 손자로서 집정 언승(彦昇)의 종제(從弟)인 균정(均貞)에게 대아찬(大阿飡)을 수여하고 임시 왕자로 삼아 일본에 인질로 보내려 하였으나 균정은 이를 사절하였고 그 다음해 일본과 교빙(交聘)이 이루어져 다음해 5월에 일본의 사신이 와서 황금 3백량(兩)을 바쳤다고 적고 있다. 애장왕 4년 신라는 왕족을 임시왕자로 정해 이를 정사(正使)로 하여 보답 사신으로 보냈다. 이 애장왕 5년, 즉 연력 23년의 일본 국사가 완전하게 남아있지 않으며, 여기에는 9일에 견당사(遣唐使)의 표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대반(大伴) 잠만리(岑萬里)를 신라에 파견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어서 알 수 없다.

또한 삼국사기에는 애장왕 9년(헤이제이천황(平城天皇) 대동 3년) 2월 일본국의 사신이 도착하여 왕이 예를 후하게 하여 이를 맞았다고 적고 있으나 이 역시 일본 국사에는 적혀 있지 않다.

홍인(弘仁) 4년(현덕왕 5년) 신라인 110명이 히젠(肥前)의 소근도(小近島)에 도착하여 도민(島民)과 싸워 신라인 9명이 사살 당했고 101명이 포로가 되었다. 다음해 5년 천황은 “신라의 왕자가 일본에 오면 발해번(渤海蕃)의 예에 준해야 한다. 근린의 우호를 말하면서도 예우를 갖추지 않으면 돌려보낼 것이며 배에 양식이 없는 자는 관할 관청에서 이를 헤아려 지급하라”고 칙서를 내렸다. 이 시기에 신라의 상인들 중에는 일본에 건너 오는 자가 많았고 또한 일본에 귀화하는 자가 적지 않았다.

가화(嘉和) 원년(흥덕왕 9년) 신라인이 다자이후(太宰府)에 표류하였는데 연해의 주민이 활을 쏘아 부상을 입히자 태정관이 부사(府司)를 꾸짖고 그 부상자에게 의약품을 하사하고 곡식을 주어 돌려보냈다.

동 3년(흥덕왕 11년) 일본 태정관은 견당사의 선박의 구원을 청하기 위해 구례에 따라 신라에 통첩을 보냈는데 통첩을 가져간 사신이 겁을 먹고 사지(使旨)를 잃어버려 체면을 더럽히게 되었다.

동 7년(문성왕 2년) 신라의 청해진 대사 장보고(張寶高, 신라기(新羅紀)에는 궁복(弓福)이라고 했고 신당서에서는 보고(保臯)라고 썼다)는 이충(李忠) 등을 일본에 사신으로 보내어 방물을 보냈지만 다음해 천황은 다자이후에 칙서를 내려 “장보고가 외번(外蕃)으로서 사사roi 현상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 예의를 갖추어 빨리 돌려보내라. 그 가지고 온 물건을 교역할 것을 원하면 이를 들어주어 합당한 양식을 지급하여 돌려보내라”고 했

다. 전(前) 치쿠젠노카미(筑前守) 등이 당의 화물을 사기 위해 이를 장보고에게 부탁해서 이층은 교역을 마치고 귀국하지만, 이해 11월에 장보고가 죽자 국가에 난이 일어나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고 대진(大津)으로 오기도 하였다. 다음해 9년 신라의 이소정(李少貞) 등 40인이 치쿠젠 대진에 와서, “장보고가 죽자 그 부장(副將)인 이창진(李昌珍) 등이 반란을 일으키려 하므로 무진장(武珍將) 염문(閔文)이 이를 토벌하였는데 나머지 무리들이 귀국에 이르러 변경을 소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니 선박이 도착해도 문부(文符)를 지니지 않은 자는 조사하여 잡아주십시오. 또 회역사(廻易使) 계충(季忠)·양원(揚圓)은 장보고의 아들이 파견한 자들로서 속히 돌려보낼 것을 바랍니다”라고 청하는 염문이 치쿠젠부(筑前守)에 올리는 서한을 가져왔다. 조정에서 의논하기를 “소정이 가져온 첩문(牒文)에 다자이후(太宰府)에 올리는 글이 없으니 이는 간사하게 왕래하는 자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이층 등을 소정과 함께 보내는 것은 길 잃은 짐승을 배고픈 호랑이에게 던져주는 것과 같으니 먼저 소정을 책망하여 보내고 그 후 이층 등을 놓아 보내야 한다”고 하였다.

이해 천황에게 신라의 조공은 유래 없이 소무천황 이래 옛 예를 갖추지 않고 항상 간책을 품고 상인을 통해 국가의 소식을 살피고 있다.

신라인을 일체 금지시키고 국경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고 주청하였다. 천황은 은덕이 널리 미쳐서 외번(外蕃)에서 귀화하는 자들을 국경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인정이 아니다. 이들을 표류하여 오는 자들에 견주어서 양식을 주어 돌려보내고 상업을 위해 오는 자들은 가져온 물건을 민간에 교역하는 것을 들어주되 일이 끝나면 속히 돌려보내라고 칙서를 내렸다.

가화 12년(문성왕 7년) 신라는 일본의 표류민 50여 명을 다자이후(太宰府)에 송환했다. 이때 신라에서 일본에 표류하는 자들도 자주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매번 양식을 주어 돌려보내주었다(삼국사기에 경문왕 4년 일본국 사신으로 왔다고 하는 자는 표류민을 송환하였는데 다자이후의 관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혹시 양국의 간민들이 서로 짜고 국가 사신이라고 칭한 것은 아닐까?).

정관(貞觀) 8년(경문왕 6년)에 히젠국 기사군(基肆郡)의 의대영산(擬大領山) 춘영이라는 자와 신라인 진빈장(珍賓長)이 신라로 들어가 병장기 등을 만들어 쓰시마(對馬)를 공략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관 11년에 신라의 첩보에 의해 국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관 11년(경문왕 9년)에 신라의 해적선 2척이 하카타(博多)에 들어와 부젠국(豊前國)의 조세인 면, 견직물 등을 약탈해갔다. 다음해 쓰시마의 도민을 포로로 데려가 신라의 감옥에 가두었지만 탈출하여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때 신라인들이 쓰시마를 공격하려고 대함(大艦)을 만들고 있다고 보고하자 연해의 여러 군(郡) 및 이나

바(因幡) 호우키(伯耆) 등에 수비를 엄중히 할 것을 명했다.

당시 일본은 문약(文弱)에 빠져 신라가 일본을 무서워하듯이 일본도 또한 신라를 무서워했다. 정관 9년(경문왕 7년)에는 일본해 연안의 호우키(伯耆), 이즈모(出雲), 오키(隱岐), 나가토(長門)의 각 국에 사천왕사(四天王寺)를 건립하여 사천왕의 법문을 빌려 이를 막으려 하였다. 신라의 도적이 올 때마다 이세신궁(伊勢神宮)에 기도하고 혹은 산의 능(陵)에 고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사천왕사와 신라의 낭산(狼山) 사천왕사, 동해의 감은사는 일본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는 기이한 경관을 갖게 되었다.

삼국사기에는 현강왕 4년(요제이(陽成)천황 원경 2년) 8월 일본국 사신이 도착하여 왕이 조원전(朝元殿)에서 맞이하였고, 동왕 8년 일본 국왕이 사신을 파견하여 황금 3백량, 명주(明珠) 10개를 바쳤다고 하지만 일본 국사에는 그 같은 행적을 볼 수가 없다. 아마도 다자이후의 관인 혹은 다른 주(州)의 토호의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근접한 두 나라 사이에 한쪽이 난리를 만나면 다른 쪽이 그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이상할 것이 없다. 일본이 남북조시대에서 아시카가(足利) 시대에 걸쳐 난리의 시대를 맞이했다. 이 때문에 고려, 조선은 말하자면 왜구의 해를 입었다고 말하는데, 왜구는 외국에 대해서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혼란스러울 때 국내의 군웅(群雄)이 서로 침략하고 약탈하는 것을 국외에서도 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신라가 진성여왕(眞聖女王) 이래 나라가 소란하여 군웅이 서로 정벌하게 되자 그 피해는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소규모 도적들이 일본에 와서 약탈해갔다. 관평(寬平) 6년(진성여왕 8년) 신라의 도적선(船) 45척이 쓰시마에 침략해왔는데 도수(島守) 문실선우(文室善友)가 이를 격파하고 도적 300여 명을 사살했고 배 11척과 그 외에 무기를 획득했다. 도적의 포로의 말에 의하면, “국가에 곡물이 없어 인민들이 기아에 고통스러워하고 창고는 모두 비어있어 왕의 성안도 평안하지가 않아 왕의 허락으로 곡물과 견물들을 취하려고 배를 보냈다”라고 말했다. 도적 중에는 당나라 사람도 한 명 있었다고 한다.

신라에서는 견훤이 전라도 땅에서 할거(割據)하자 31년(연희 22년, 신라 경명왕 6년) 일본에 교통하여 조공을 하려고 휘암(輝嶺)이란 자를 사신으로 쓰시마에 보내 첩문(牒文)을 다자이후에 올렸는데 편지에서 말하기를,

귀국은 우리나라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예를 갖추어 아버지를 대하고 정으로 손자를 대해야 한다. 이웃 나라의 말로 교정함을 증명할 수 있다. 1천년의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는데, 300년간이라는 시간은 이에 비할 것이 못된다. 이웃나라의 선린 관계는 보석과 같은 것이다. 논어에서 말하기를 옛 감정은 마음에 두지 않으면 깊은 은혜를 느낄 것이다.⁵⁴⁾

조정은 즉시 다자이후에 조칙을 내려 조공은 번주(藩主)의 행할 바로서 배신(陪臣)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표함(表函)과 조공물들을 물리치고 사신에게는 양식을 주어 돌려보냈다.

그리고 연장 7년(건희 38년, 경순왕 3년)에 신라의 선박이 쓰시마에 표류하였는데 도수(島守) 판상경국(坂上經國)이 즉시 이들을 안존(安存)시키고 양식을 주어 검비위진사(檢非違秦使) 자경(滋景)으로 하여금 이들을 금주(金州, 김해)로 송환했다. 건희(자경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금주왕 견훤은 수 십주(州)를 차지하고 대왕이라 칭한다고 하였다)은 자경을 맞이하여 자리를 권하며 조용하고 간곡하게 말하기를 “훤은 진심으로 일본국을 받들고 싶어 전년에 충심을 이기지 못해 조공을 진상하였으나 배신(陪臣)의 조공이라고 하여 돌려보냈다. 이제 이미 왕이 되었으니 배에 실어 조공을 올리려고 한다”고 하고 자경을 먼저 귀국시켜 이를 쓰시마에 보고토록 했다. 5월에 이르러 견훤(甄萱)의 사신 장언징(張彦澄) 등이 쓰시마와 다자이후에 전하는 문서를 가지고 쓰시마에 도착하여 옛날 처럼 조공을 바치겠다고 청했다. 쓰시마 도수(島守)는 그를 쓰시마에 머물게 하고 다자이후에 보고했는데 그 글에는 조정을 받들려는 이유가 쓰여 있었다. 다자이후에서는 이를 태정관에게 알렸고 태정관은 즉시 ‘인신무사 하유유경지호(人臣無私 何有逾境之好)’라고 회신하고 장언징 등에게 양곡을 지급하여 쓰시마에서 돌려보내 이를 거절하였다.

제3절 발해와의 관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라와 발해가 서로 교통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이 시대 기록은 삼국사기에 그 사실이 증거로 남아있다. 즉 원성왕 6년(발해 문왕(文王) 대흥(大興) 54년) 3월 일길찬(一吉澣) 백어(伯魚)를 북국(北國)에 사신으로 보냈고 헌덕왕 4년(발해 정왕(定王) 영덕(永德) 4년) 급찬(級澣) 송정(崇正)을 북국에 사신으로 보냈다고 기록한 것이 그것이다.

이 북국이란 발해임에 틀림이 없다. 신라가 발해라는 이름을 꺼려 북국이라고 한 것은 어째서일까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꺼려한 사실은 많은 교통사실도 감추는 결과로 나타났다. 헌강왕 12년(발해 경왕(景王) 17년) 적국(狄國)사람이 신라의 북진(北鎭)에 들어가 판자에 ‘보로국과 흑수국 사람들은 함께 신라국과 화친하고자 한다(寶露國與黑水國人共向新羅國和通)’라는 15글자를 써놓고 돌아갔다고 한다.’ 발해 변방백성의 행위 일 것이다. 고려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을 남겼는데 이에 의하면 신라말기에 발해와

54) 伏思當國之仰貴國也 禮敦父事 情此孩提 唯甘扶轂執鞭 豈憚航深棧險 而自質自逃遁 隣言矯証 一千年之盟約斯渝 三百歲之生靈到此 春秋不云乎 仁親善隣國之寶也 魯論語曰 不念舊惡 是宣恩深 含垢化致慕 今差專价 冀藏卑儀.

반도인의 관계는 두 세 번이라고 적고 있다. 왕건 원년(경명왕 2년)에는 이보다 앞서 궁예의 화(禍)를 면하기 위해 북쪽 변경에서 도망해 온 민중 2000명이 골암성(鵝巖城)에 거주하며 흑수번(黑水蕃)을 불러 변방의 군(郡)을 침공하였다고 한다. 염주(鹽州) 사람 윤선(尹瑄)이라는 자가 고려에 항복했는데 다음해 고려왕은 유금필(庾金弼)을 골암에 보내 큰 성을 쌓고 이곳에 주둔케 하니 번의 여러 군(郡)에서 투항한 자가 1천 5백여 명이고 포로가 3천여 명에 달했다. 경명왕 5년 말갈의 달고군(達姑郡) 170명이 삭정군(朔廷郡, 안변(安邊)) 방면에서 신라로 침입하자 고려 장수 견권(堅權)이 이때 삭주(朔州, 춘천)에 주둔하여 이를 요격, 전멸시켰는데 왕은 사신을 보내어 이를 사례하였다.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이때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었다. 신라왕 대에는 신라 국경의 외부 변경 지역은 발해의 통치도 충분히 미치지 않아 무소속지(無所屬地)의 상태였으므로 일찍부터 고려왕이 경영에 착수하게 되었다.

제4장 제도와 문물

제1절 제도

관직(官職) 제도는 중대에 이루어져 하대에 이르러 그 명칭을 고친 것과 개혁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크게 변함이 없었던 것 같다.

지방 변경의 요충지에 진(鎭)을 설치한 것과 같은 일이 변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진은 가장 처음에 둔 것은 패강진(溟江鎭)으로 선덕 초년에 설치된 것 같은데 이 진은 아마도 당나라의 진을 모방한 것으로 여러 개의 군현(郡縣)을 모아 하나의 진으로 하여 변경(邊境)을 경비케 하였다.

관계를 보면 두상대감(頭上大監) 한 명이 있었고, 군주(軍主)라고도 칭했다. 그 지위는 도독사신(都督使臣)보다 낮았지만 태수(太守)보다는 높았다. 그 아래에 대감(大監)이 있었다. 지위는 태수와 동일하며 그 외에 두상제감(頭上弟監), 제감(弟監), 보감(步監) 등이 한명씩, 소감 6명이 있었다. 두상대감은 즉 대곡성(大谷城)의 두상이다. 대곡성은 지금 황해도의 평산(平山)을 가리키므로, 패강진은 평산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개의 군현을 모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애장왕 9년에는 사(使)를 13도(道)로 보내어 여러 군읍(郡邑)의 구역을 나누었다고 한다. 12도란 9주(州) 외에 3도가 있어서 이를 합쳐 12도라 칭한 것인가. 과연 그렇다면 3도는 패강진 이외에 2진이 있어서 이를 칭하여 9주 3진을 12도라 칭한 것인가. 그렇더라도 그 진의 유무는 전혀 알 수 없다. 효공왕대에 패서도(溟西道)라고 부르는 지방이 있었는데 9주 이외에 이러한 류의 3도가 설치되었는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흥덕왕 3년에

는 해적이 신라인을 약탈하여 당에 끌고 가 파는 일을 경비하기 위해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궁복을 대사로 삼았다(두상이라고 칭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 청해진은 대병사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당나라의 번진(藩鎭)과 마찬가지로 궁복의 생존 중에는 중앙정부조차도 움직이기 어려웠다는 것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다.

왕 4년에는 당은군(唐恩郡)을 당성진(唐城鎭)이라 하였다. 이 또한 당과의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문성왕 6년 강화도에 혈구진(穴口鎭)을 두고 아찬(阿飡) 계홍(啓弘)을 진두(鎭頭)로 삼았다. 13년에 청해진을 파하여 그 곳 사람들을 벽골군(碧骨郡)으로 이주시켰다. 그 외에도 단순히 북진(北鎭)이라고 칭한 곳이 있다.

또한 선거에 대해서는 전대(前代)의 신문왕이 국학을 세웠지만 아직 과거시험법이 없어 사람을 뽑을 때에는 활쏘기로 할 뿐이었다.

원성왕 4년에 처음으로 독서(讀書) 출신과를 설치하여 독서를 3품종으로 하는 출신법(出身法)을 정하였다. 그 첫 번째로는 춘추좌씨전 혹은 예기, 혹은 문선을 읽어 능히 그 뜻을 통하고 아울러 논어, 효경에 밝은 자를 상(上)으로 하였다. 두 번째는 전례, 논어, 효경을 읽은 자로 하여 이를 중(中)으로 하고, 세 번째는 전절(典節), 효경을 읽은 자를 하(下)로 하였다.

민약 5경, 3사(史), 제자백가서에 모두 통한 자가 있으면 특별히 선별하여 등용했다. 다음해에 자옥(子玉)이라는 자를 등용하여 양근현(楊根縣)의 소수(小守)로 임명하였는데 일을 맡은 사모상(史毛尙)이란 자가 교만히 말하기를 자옥은 문적(文籍)으로 등용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직책을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시중이 의논하여 자옥은 문적으로 등용한 것은 아니지만 일찍이 당나라에 들어가 학생으로 있었으니 임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독서출신과가 계속 실행되었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소성왕(昭聖王) 5년 6월 공식 20조를 반포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

제2절 문예

하대(下代)는 정치상으로는 쇠퇴의 시대였지만 문예면에서는 융성의 시대였다. 그리고 하대에도 시대가 흐름에 따라 문예는 더욱 진보했다. 신라의 당나라풍 문화는 말기에 완숙미를 얻었다.

문성왕 4년 처음으로 독서출신과를 만들었다는 것은 앞에서 논했다. 소성왕 원년에는 청주(靑州) 거로현(居老縣)을 학생의 녹읍(祿邑)으로 하였고, 경문왕 3년에는 왕이 국학에 행차하여 박사들로 하여금 경전의 뜻을 강론토록 하였다. 헌강왕 5년에도 국학에 행차하여 박사 이하에게 명해 강의토록 한 일이 있다. 국학의 박사와 조교의 논강(論講)은 끊이지 않고 이루어졌던 것 같다. 신라의 문사(文士)는 당에 유학한 자들 중에서 나왔다.

하대에도 당나라에 항상 왕자를 파견하여 숙위하게 하고 학생을 파견하여 당의 태학에 들어가 학업하게 하였다. 그 법은 일정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는 10년을 한도로 하여 귀국하게 하고 다른 유학생을 파견하여 입학하게 하였는데 많을 때는 백여 명에 이르렀다. 책을 사는 은(銀)은 본국에서 지급했고 의복과 식량은 당 홍려사(鴻臚寺)에서 공급했다. 이처럼 학생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들 학생은 승려와 함께 당의 문물을 신라에 이식하는 역할을 했다.

장경(長慶)의 초기 즉 신라 헌덕왕 13년, 14년경에 신라 유학생 김운경(金雲卿)이라는 자는 빈공과에 급제하였고, 당말기까지 등과한 자가 58명이었다. 5대 양당(梁唐) 때에 또한 32명이 있었다. 등과자(登科者)는 당나라에서 벼슬하며 귀국하지 않은 자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귀국하였다. 당나라에서 빈공과의 등제자(登第者)는 발해인 등 십수 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신라인이었다고 한다.

유학생 중에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김헌정(金獻貞, 헌덕왕 시기), 최리정(崔利貞), 김숙정(金叔貞), 박계업(朴季業, 이상 헌덕왕 17년에 귀국), 김운부(金允夫), 김입지(金立之), 박량지(朴亮之, 이하 동년 입당(入唐)), 최하(崔賀, 경문왕대), 이동(李同, 경문왕 9년 입당), 최광유(崔匡裕), 최치원(崔致遠), 최신지(崔慎之), 김곡(金鵠), 김영(金穎), 박인범(朴仁範), 최승우(崔承○), 김문위(金文蔚), 원걸(元傑), 왕거인(王居仁), 김수훈(金垂訓, 이상은 말기) 등이 있다. 김운경은 당나라에 벼슬하여 유주(溜州) 장사(長史)가 되었다.

회창(會昌) 원년 신라에 돌아왔는데 이 사람의 시구(詩句)가 일본에도 전해져 천재가구(千載佳句)에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문인들 중 가장 유명한 자는 최치원이다. 최치원은 단지 신라시대뿐만 아니라 반도 고금의 문예사를 장식하는 문인으로서 불교를 이해했고 이를 즐겼으며 신선(神仙)적 요소가 더해진 당대 문사(文士)의 전형적 인물이었다. 자(字)를 고운(孤雲) 혹은 해운(海雲)이라 불렀다. 12세 때에 입당하여 건부(乾符) 원년(경문왕 13년)에 예부시(禮部侍) 배찬(裴瓚)의 휘하에서 일거에 급제하여 선주, 표수현위(漂水縣尉)가 되었다. 후에 제(諸)도병마도통(都兵馬都統) 고병(高駢)에 종사하였다. 나이 28세에 당나라 황제의 칙을 받아 신라에 돌아와 시독(侍讀) 겸 한림학사 병부시랑(兵部侍郎) 지서서감사(知瑞書監事)가 되었으나 후에 외직인 태산군(太山郡, 태인) 군수가 되었다. 난세를 만나자 결국은 해인사로 몸을 피해 효공왕 8년 47~48세에 이 절에서 법장화상전(法藏和尚傳)을 집필했는데 이후 소식을 알 수가 없게 되었다.

최치원이 신라로 돌아가 가르친 자제들 중 많은 사람이 고려왕조에 참가하여 그 왕정에 임용되어 문사(文事)를 담당하였다. 고려의 현종왕은 내사령(內史令)을 내리고 문창후(文昌候)에 봉했다. 이씨조선에 이르러서는 설총과 함께 문묘(文廟)에 배향되었다.

최치원의 시문은 많이 전해지는데 당나라 사람의 것과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의 저서는 계원필경(桂苑筆耕) 20권, 금체부(金體賦) 1권, 금체시(今體詩) 1권, 잡시부(雜詩賦) 1권, 중산복궐집(中山覆篋集) 5권, 문집(文集) 30권, 연대력(年代曆) 약간 권, 법장화상전(法藏和尚傳) 1권이 있다. 계원필경과 법장화상집은 현존한다. 신라 문사의 저서 중 남아 있는 것은 이것 뿐이다. 왕거인(王居仁)은 성덕왕대의 은사(隱士)이다. 박인범은 최치원이 고병(高駢)의 막하에 있을 때 사절로서 입당하였고, 효공왕대에 서서학사(瑞書學士)가 되었다. 김영, 최인류, 최광유, 최승우는 모두 최치원과 동시대 사람으로 각간(角干) 유덕(有德)의 먼 자손이라고 한다(각간은 진골의 지위로서 최씨 성의 사람으로 각간이 될 수 없었다. 김씨 성으로 나중에 성을 고친 것인가).

헌강왕 11년(선계(先啓) 원년인데 이때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돌아왔다) 18세에 하정사(賀正使) 김영(金穎)을 따라 10명이 함께 입당유학하여 후에 예부시랑(禮部侍郎) 설정규(薛廷珪)의 휘하에서 급제하여 효공왕 13년 나이 42세에 신라로 돌아와 서서원학사가 되었다. 고려 태조의 개국에 이르러서는 태조에게 봉사하여 문필의 일을 맡았다. 혜종왕(惠宗王) 원년에 사망했다.⁵⁵⁾

이외에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자와 당나라에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적지 않다. 김충의(金忠義)는 당 덕종(德宗)조에 벼슬하여 장군(將軍)이 되었는데 그림에도 능하였으며 정묘(精妙)하기로 이름이 났다. 김가기(金可記)는 당나라에 들어가 환국했다가 다시 입당하여 도사로 이름을 떨쳤다. 대중(大中) 10년 글을 올려 하늘로 올라갈 시기를 아뢰었는데 그 날짜에 승천했다고 한다.

글씨에 능숙한 자도 많았다. 유명한 무장사비(鑿藏寺碑)는 지금은 파손되어 김육진(金陸珍)의 찬문(撰文)이 쓴 것인지 혹은 집자(集字)인지가 불분명하지만 왕희지(王羲之)의 글씨를 집자한 것 같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고려 숙종(肅宗) 때 학사인 홍관(弘灌)이 송나라에 건너가 김생(金生)의 행초(行草) 1권을 송나라의 한림대조 양구(翰林待詔 楊球)와 이화(李華) 두 사람에게 보여주니 두 사람은 이를 왕희지(王羲之)의 글씨라고 하며 신라인의 글씨인 것을 믿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전대(前代)의 김생의 서라는 백월비(白月碑)의 문자로 이를 추론하면 홍관(弘灌)이 후대에 간 김생의 글씨는 김육진(金陸珍)의 글씨가 아닐까. 김육진은 애장왕대에 사은사(謝恩使)로 당나라에 건너간 적이 있었다.

요극일(姚克一) 또한 유명한 서가(書家)로 함통(咸通) 11년에 대안사(大安寺) 적인선사(寂忍禪師)의 비문을 적은 자이다.

55) 원문에 누구의 행적인지 기재되지 않았으나 최치원, 최승우와 함께 삼최로 일컬어지던 최신지(崔愼之, 본명 최언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병법에는 원성왕 2년 대사(大舍) 무마(武馬)라는 자가 병법 15권을, 화령도(花鈴圖) 2권을 헌상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신라 하대의 중국 문예는 중대의 교양을 거치고 이에 더하여 다년간 유학을 통해 학습한 자들이 많았으므로 크게 융성했었다.

또 그 문사(文士)들은 고려, 이조와 같이 본국에서만 배운 자들이 아니었으므로 그 시문(詩文)도 매우 뛰어난 것이 있었다. 일본의 견당사(遣唐使)가 그치고 중국 문예나 쇠퇴하게 될 무렵 신라는 중국에서 교양을 받은 문사들이 많이 귀국하여 도리어 성황을 이루게 되었다. 이들 또는 그 자제들은 고려조에 들어와 문예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고려조는 토호가 세운 나라여서 전통상의 구속이 없었으므로 문예와 함께 제도마저도 채용하여 정교(政敎) 모두 중국을 모방하여 자국 특유의 것은 없게 되었다.

중국의 문예는 매우 성행했지만 문장에 능숙한 선비의 대부분은 중앙에 있었고 그 숫자도 매우 부족하여 지방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단지 사회의 상류층에 그쳤다. 당시의 승려와 문인의 문필을 잘한다는 정도의 자들도 정확하게 중국의 글을 쓰지는 못했다. 한어(漢語)의 자구(字句)에 한자를 써서 국어(國語)를 표시한 글 혹은 국어풍으로 한문을 만들 뿐이었다. 당시의 금석문(金石文)의 잔존하는 것에도 이러한 식의 문자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체는 전대(前代)에도 이미 있었지만 이 시대에는 크게 발달했다. 그리하여 일반 이민(吏民)의 문서는 모두 이러한 식의 문장이 되었다.

전대에 행해졌던 향가(鄕歌)는 이를 적고 짓는데 용이해졌으므로 이 시대에 들어와서 더욱 유행했다. 진성왕 2년에 이르러 왕이 폐신(嬖臣), 각간(角干) 위홍(魏弘)과 대구화상(大矩和尚)에게 명하여 찬집(撰集)케 하고 삼대목(三代目)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만엽집(萬葉集)에 비길만한 것인데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 공예

하대에는 여러 절들의 조영과 수리가 있었지만 공예, 미술은 우수한 방향으로 진보하지 못했고 약한 쪽으로 흘렀다. 직물이나 금, 은, 세공의 수공업은 이 시대에 크게 발달했다. 작은 세공품은 당에도 수출하는 물건을 만들 정도였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타락했다고 볼 수 있다.

제3절 불교

이 시대에 들어와 불교는 전성기를 맞이했고 사회상으로 주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또한 승려 중 중국에 왕래하는 자들이 많아서 불교가 중국 문화를 수반하게 되었고 따라

서 중국 문화를 수입하는 일도 매우 많아졌다.

불교는 정교(政敎) 상에 깊은 근거(根底)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세력은 유교가 겨우 문예면에 활용되었던 것에 비길 바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전대(前代)처럼 고승(高僧)은 배출되지 않았다.

표훈(表訓) 이후 신라에서는 성인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하대(下代) 초기에는 불교를 숭상한 나머지 나라 사람들이 자산을 탕진하는 일이 많았으므로 애장왕 7년에는 사원을 창건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또한 절에서 금, 은, 면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렇지만 이 금지 사항은 지켜지지 않았고 신라의 승려는 그 숫자가 매우 많았던 것 같다.

전대에서 다수의 고승이 나왔었고 여러 종파를 유포하였다는 것은 이미 서술한 바와 같지만 선교(禪敎)는 아직 행해지지 않았다. 하대에 이르러 선교가 크게 유행하여 선교가 전 불교계를 석권하게 되었다. 신라의 선종 승려에 대해서 살펴보면 중대(中代)에 정중사(靜衆寺) 무상대사(無相大師)가 당에 있으면서 현종황제에게 예우를 받은 고승이었지만 환국하지 않았고 그 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다음으로 본국에서는 법랑선사(法郎禪師)가 있었다. 법랑의 문인으로 신행선사(神行禪師)가 있었다. 당나라에 들어가 대조(大照)의 문인 지공화상(志空和尚)을 스승으로 모셨었고 환국하여 혜공왕 15년에 세상을 떠났다.

조금 뒤에 도의선사(道義禪師)가 있었다. 당나라에 건너가 심인(心印)⁵⁶⁾을 서당지장(西堂智藏)에게 받아 신라에 돌아와서 선종을 설법하였으나 아직 신라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산속에 은거하였는데 이때 당나라에서는 선종이 대유행하여 그 영향이 신라에 미쳐 얼마 안 있어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

애장왕 5년 진감국사(眞鑑國師) 혜소(慧昭)가 입당하여 창주(滄州)에 이르러 신감대사(神鑑大師)를 알현하고 종남산(終南山)에 들어갔다가 흥덕왕 5년에 환국하였으나 문성왕 11년에 세상을 떠났다. 적인선사(寂忍禪師) 혜철(惠哲)은 헌덕왕 6년에 입당하여 서당지장(西堂智藏)을 알현하고 신무왕 원년에 환국하여 현안왕 5년 세상을 떠났다.

보증선사(普証禪師) 체징(體澄)은 희강왕 2년에 당나라에 건너가 문성왕 2년에 환국하여 현강왕 6년에 세상을 떠났다. 양조국사 대낭혜화상 무염(兩朝國師 大朗慧和尚 無染)은 헌덕왕 17년에 입당하여 마곡보철화상(麻谷寶徹和尚)을 알현하고 여러 산행을 유람한 후 문성왕 7년에 칙령으로 환국했다가 진성여왕 2년에 세상을 떠났다.

품목(品目, 범일(梵日))국사(國師) 대화(大和)시기에 당나라에 들어가 문성왕 9년에 환국하여 국사(國師)가 되었다. 굴산사(堀山寺)에 머물러 굴산조사(堀山祖師)라고 부른다.

56) 선종(禪宗)에서 불교의 깨달음을 표현하여 비유한 말.

행적랑공선사(行寂朗空禪師)는 경문왕 10년 당나라에 건너가 헌강왕 11년에 환국하여 국사가 되었다. 신덕왕(神德王) 5년에 세상을 떠난다. 그 외에 지증대사(智證大師) 지선(智洗), 고려정진국사(高麗靜眞國師) 금양(兢讓), 고려진철대사(高麗眞澈大師) 이엄(利嚴), 동진대사(洞眞大師) 경보(慶甫), 원종대사(元宗大師) 찬유(璨幽), 대경대사(大鏡大師) 여엄(麗嚴) 등은 모두 하대 말기에 입당하여 환국했던 선종의 승려로서 일대(一代)의 존승을 받았다.

그리고 하대에는 유명한 승려 도선(道洗)이 있었다. 도선은 영암(靈巖) 사람이다. 문성왕 8년 병인(丙寅)년 20세에 동리산(桐裏山) 혜철대사(慧徹大師)에게 입문하여 23세 때 구계(具戒)⁵⁷⁾를 받았다. 희양현(曦陽縣) 백계산(白鷄山) 옥룡사(玉龍寺)에 머물며 연좌망언(宴坐忘言)을 35년 동안 하였는데, 헌덕왕에 초빙되어 한번 왕의 궁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산으로 다시 돌아왔다. 효공왕 2년 75세로 하여 세상을 떠났다. 요공선사(了空禪師)로 증시(贈諡)되었다. 지리참위(地理讖緯)의 설(說)을 주창했는데 신승(神僧) 시(視)되어 고려 왕실 흥기(興起)의 신비적 요소를 만들었다. 그 이야기는 크게 윤색되어 위대한 것이 되었다. 그 설을 담았다고 하는 음양편(陰陽篇)은 지리의 종가로 대우하는 것이 있었다. 고려 현종왕(顯宗王)에 이르러 대선사(大禪師)의 호를 부여했다. 인종왕(仁宗王)은 선각국사(先覺國師)에 추봉(追封)하였다.

또 하대(下代)에는 상산혜각(常山慧覺, (마화상(馬和尚)), 익주김(益州金), 진주김(鎭州金)과 같이 신라로부터 당나라에 들어가 유명한 선종 승려가 된 자도 있었다.

〈출전 : 『朝鮮半島史』 3편, 연도미상, 진주 경상대 文泉閣 소장〉

57) 비구(比丘)가 지켜야 할 250계와 비구니(比丘尼)가 지켜야 할 500계를 이르는 말.

4) 『조선반도사』 5편 원고(조선 중 일부)

조선

제1기 융성시대

개설

조선반도사 제5편의 제1기는 이씨조선의 흥기를 시작으로 제13대 명종에 이르러 끝난다. 처음에 조선태조 이성계가 북변에서 나와 고려를 받들면서 북방으로는 야인들의 발호를 제압, 남방으로는 해구(海寇, 이른바 왜구(倭寇)이다)의 침입을 막는 등 수많은 공을 세워 고려 군신들의 큰 신임을 얻었다. 당시 중국에는 대혁명이 일어나 크게 위세를 떨치던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섰다. 그리고 종래 원나라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고려 왕가 역시 그 여파로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국운이 기울어지는 운명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이성계는 일찌감치 이러한 대세를 간파하고 처음부터 명나라를 지향하는 방침을 정한 뒤 점차 그 세력을 조정과 군신들 사이에 이식한 결과 마침내 쇠퇴한 고려를 대신해 반도의 주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여기에 이르러 태조는 국호를 바꾸고 도성을 천도해 민심을 일신하는 정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고려 왕씨(王氏)의 후예를 제거하고 왕권을 위협하는 요소를 없애는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부에 왕위계승을 둘러싼 분란이 일어나 세자 방석(芳碩)과 형 방번(芳蕃)은 태조의 다섯 번째 아들 방원(芳遠)과 싸우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고, 두 번째 아들 방과(芳果, 정종(定宗))가 왕위를 계승해 이를 동생 방원(태종(太宗))에게 넘겨주었다. 태종은 왕위를 아들 세종에게 넘겨주었는데, 이 두 왕은 모두 총명하여 뜻을 정치에 두고 많은 것을 시행했으며, 제반 제도는 대부분 당시에 정비되었다. 이조 5백 년, 반도 통치의 기초는 이들이 재위한 50년 동안 만들어졌다.

세종이 사망하고 문종이 뒤를 이은 뒤 왕위를 그 아들 단종에게 물려주었지만, 또다시 분란이 일어나 재위 기간 불과 3년 만에 단종은 왕위를 숙부 수양대군 유(즉 세조(世祖)이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세조(제7대) 역시 마음을 정치에 두어 농업을 장려하고 무를 소중히 여기고 뜻을 제도의 정비에 두었으니, 이조의 기반은 더욱더 견고해져 성종(成宗, 제9대) 시대에는 찬란한 문화의 절정기였다고 한다. 그러나 국운쇠퇴의 징후가 점차 이 시기에 나타나 그의 아들 연산군은 무도하고 음행하여 마침내 폐위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 시기에 사화(士禍)라 불리는 조신(朝臣) 간의 내분이 일어나 당시 수많은 명사들이 화를 입었다. 사화는 한편으로는 당시 다른 지방에서 발생해 점차

도성으로 들어온 유학의 일파, 즉 김종직(金宗直) 일파의 학도와 그 주위의 충돌에 기인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종래 조신 간에 싹트고 있던 서로를 배척하는 항쟁에 따른 것이다. 연산군 폐위 후에도 사화는 끊이지 않았고 그때마다 명사들은 화를 입어 죽임을 당한 이가 적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상황은 바뀌어 외척들의 권력 쟁탈전으로 변했고, 선조(宣祖, 제14대) 시대에 또다시 상황은 바뀌어 이조 5백여 년간의 대부분을 끊이지 않는 항쟁으로 물들인 이른바 봉당간의 다툼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태조는 개국 당초부터 명나라를 받들어 모셔 사대(事大)의 정성을 다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명나라 또한 이를 예로서 대했으나 때로는 위압을 가하는 일도 있었다. 왕호(王號)만 하더라도 태조의 재위가 끝날 때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태종 원년 10월에 이르러 비로소 사절을 보내 금인고명(金印誥命)을 내려주었다. 그 뒤 조선에서는 국왕의 즉위에는 반드시 명나라에 주청하여 그 승인을 얻고 국왕이 사망하면 명나라로부터 시호(諡號)를 받는 것을 관례로 삼았다.

다음으로 일본에 대해서도 태조는 즉위 초기 교린의 국시를 정하여 함부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고자 했다. 그 이후 일본 각 지방의 호족과 제후들은 물론 아시카가(足利) 막부에서도 빈번히 사절단을 파견했고 조선 또한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하여 선물(聘禮)을 들고 왔다. 당시 해구의 우환은 여전히 끊이지 않았지만 세종이 즉위하면서 점차 종식되었고, 삼포(三浦), 제포(濟浦)·부산포(釜山浦)·염포(鹽浦)의 개항에 이어 세종 25년에는 쓰시마(對馬) 도주(島主)와 조약을 체결했다(이를 계해약조라 한다).

당시 반도 북부, 즉 압록강 상류 및 두만강 유역에는 여진족(조선에서는 이를 야인(野人)이라 부른다)이 거주하고 있어 늘 변경을 소란스럽게 했는데, 태종 때에는 경원부(慶源府, 함경북도)를 경성(鏡城)으로 옮기고, 이 지역을 야인 방어의 요충지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세종은 여진족의 내분을 틈타 두만강 방면의 개척을 단행하여 마침내 6진(鎭)을 설치하고 이들 지방을 안정시켰다. 이때에 이 방면의 조선의 영토는 확실하게 두만강 연안에 미치게 되었다(다만 두만강 상류 지방은 여전히 개척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압록강 상류 방면도 개척하여 그 지방에 4군(郡)을 설치했는데, 이는 세조 때에 모두 폐기되었다.

조선시대의 제1기는 전 시대를 통해 가장 융흥한 시기였는데, 제반 제도는 잘 정비되었고 문물의 발달 또한 현저한 것이었다. 당시 불교는 크게 쇠퇴했지만 유학이 이를 대신해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중앙에는 태학(太學), 4학(四學)이 있었고 지방에는 향학(鄉學)이 있어 뛰어난 학자들을 많이 배출했다. 이리하여 한편으로는 크게 학문이 융성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법전 편찬, 활자 주조, 언문을 제작하는 등 문화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또한 천문력, 건축, 공예, 미술 등에서도 볼 만한 것이 많았다.

제1장 창업

제1절 이씨 4조(四祖)의 사적과 이성계의 공훈

1. 4조(목조(穆祖), 익조(翼祖), 도조(度祖), 환조(桓祖))의 사적

조선의 태조 이성계의 선조는 전주에서 나왔다고 한다. 시조 이한(李翰)에서 목조에 이르기까지 자손이 18대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 그간의 17대까지의 사적(事蹟)은 이한이 신라를 받들어 사공(司空)이 되었고, 제6대 공휴(兢休)에 이르러 비로소 고려를 받들어 이 역시 사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 외에 전해지는 것은 없다. 목조의 이름은 안사(安社), 그 또한 고려를 받들면서 처음으로 전주에서 나와 의주(宜州, 함경도 덕원부(德源府))의 지사가 된 이후 선정을 베풀어 명성이 높았다. 그 이후 강릉부(江陵府)의 삼척현(三陟縣)으로 갔다가 지현(知縣)과의 갈등으로 또다시 개원로(開元路, 남경(南京, 간도 국자가(局子街) 부근)으로 이주했다. 그리고 원나라의 오천호(五千戶) 다루가치(達魯花赤)가 되어 동북 백성들의 민심을 얻었다(『이공신도비명(李公神道碑銘)』, 『태조실록(太祖實錄)』 1권,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紀略)』). 목조의 아들 익조의 이름은 행리(行里)이며, 그 또한 남경 천호(千戶)에 봉해졌다. 원(元)나라 중기에 원나라가 일본을 침략하기 위해 천하의 병선을 해동에 이끌고 나아갔는데, 익조 또한 원나라 세조의 명을 받들어 와서 자주 고려 충렬왕을 만났다. 왕은 이를 기뻐하고 그 본분을 잊지 않음을 크게 칭찬했다고 한다(『이공신도비명』, 『고려사』 26권, 『용비어천가』 제 24장). 익조는 점차 위덕을 떨쳐 여진족 천호의 부하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에게 마음을 귀의하니, 천호 등은 이를 시기하여 몰래 그를 해치려고 도모했다. 익조는 재빨리 도망쳐 두만강 하류로 내려가 마침내 적도(赤島, 경흥의 남쪽)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덕원부(德源府, 함경남도)로 돌아갔다.

익조의 아들 이름은 춘(椿)이며 이를 도조라 한다. 몽고 이름은 패안첩목아(字顏帖木兒)이다. 그 또한 원나라를 받들고 아버지 자리를 물려받았다. 고려 충렬왕 때에 이르러 왕을 알현하고 매우 융숭한 대우를 받았다. 도조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자춘(子春), 이를 환조라 하고 이가 바로 태조의 아버지이다. 몽고 이름은 오로사불화(吾魯思不花), 얼굴이 붉고 윤기가 돌았고 말 위에서 활 쏘는 것을 잘 했으며 아버지 자리를 물려받아 천호(千戶)가 되어 쌍성(雙城)에 자리를 잡았다. 공민왕(恭愍王) 4년에 처음으로 왕을 알현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쌍성(함경남도 영흥)은 땅이 비옥하여 동남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훗날 백성을 잘 돌보지 못하여 백성들이 떠돌아다니게 되자 왕은 곧바로 환조로 하여금 그곳을 다스리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편안히 생업

을 할 수 있게 되었다(『이공신도비명』, 『고려사』 공민왕세가 26권, 『용비어천가』 24장). 이듬해 환조는 또다시 알현한다. 당시 왕은 원나라 세력이 쇠락한 틈을 타서 자국의 영토를 확장하려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때마침 어떤 사람이 왕에게 밀고하여 기철(奇徹, 기철은 해주 사람으로 그의 여동생은 원나라 순제(順帝)의 후궁으로 들어가 제2 황후가 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었고, 덕원부원군으로 책봉되었다)이 난을 꾸미고 은밀히 쌍성의 반민(叛民)과 밀통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왕은 곧바로 환조를 돌려보내 진압한 뒤 기철을 죽였고, 왕은 밀직부사(密直副使) 유인우(柳仁雨)를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해 쌍성을 수복하도록 했다. 그런데 유인우가 그곳에 이르러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왕은 환조에게 소부윤(少府尹)의 벼슬을 주어 내응하게끔 했다. 환조는 곧바로 유인우와 병사를 합쳐 총관부를 함락하고 마침내 함주(咸州) 이북 땅을 수복했다. 같은 해에 환조는 대중대부(大中大夫)로 승격된 이후 사복경(司僕卿)이 되어 동생을 개경(開京)에 보내 머물게 했다. 9년 봄 3월 영록대부 판장작감사(榮祿大夫判將作監事)로서 삭방도만호(朔方道萬戶) 겸 병마사(兵馬使)가 되었으나 그 해 4월에 46세 나이로 사망했다(『이공신도비명』, 『고려사』 공민왕세가 및 조돈전(趙墩傳), 『용비어천가』 24장).

2. 이성계의 공훈

환조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은 원계(元桂), 차남은 성계(成桂), 막내는 화(和)라 한다. 성계가 아버지 뒤를 이었고 자는 중결(仲潔)이다. 훗날 이름은 단(旦), 자는 군진(君晉)으로 바꾸었고 송헌(松軒)은 그의 호이다. 고려 충숙왕(忠肅王) 4년 11월에 화령부(和寧府, 영흥부(永興府))의 사제(私第)에서 태어나 총명하고 지혜와 용맹을 갖추었으며, 특히 활 쓰는 기술이 뛰어났다(『태조실록』 1권, 『선원계보기략』 1권). 공민왕 5년, 22세 나이에 비로소 고려를 섬겼는데, 10년 9월 독로강만호(禿魯江萬戶) 박의(朴儀)가 반란을 일으키자 왕은 형부상서 김진(金璉)에게 명하여 이를 토벌케 했다. 이성계는 금오위상장군(金吾衛上將軍)으로 동북면상만호(東北面上萬戶)가 되어 김진을 도와 박의를 물리치고 마침내 강계(江界)에서 주살했다. 그리고 그해 겨울 홍두군(紅頭軍, 홍건적 또는 홍적이라고도 한다)이 대거 압록강을 건너 11월 경성으로 들어오자 왕은 남쪽으로 피신하였다. 이듬해 정월 참지정사(參知政事) 안두(安祐)는 병사 20만⁵⁸⁾을 이끌고 경성 수복을 도모하자 이성계는 휘하의 친병 3천을 이끌고 동대문으로 먼저 들어가 크게 적을 무찔렀고 이때부터 이성계는 점차 이름을 널리 떨치게 되었다. 이어서 2월 원나라의 나하추(納哈出)가 북방으로 쳐들어왔다. 이에 앞서 나하추는 원나라 말의 변란을 틈타 심양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스스로 행성승상(行省丞相)이라 칭했으며, 쌍성총관 조소생

58) 원문에 20만으로 기재되었으나 2만의 착오로 보인다.

(趙小生) 등의 꼬임에 넘어가 병사 수만을 이끌고 삼살(三撒, 북청(北靑)), 홀면(忽面), 홍원(洪原) 땅으로 쳐들어가 7월 강원의 달단동(韃鞬洞)에 진을 쳤다. 이성계는 상장군으로서 동북면 병마사가 되어 이에 맞서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다. 나하추는 그 적수가 되지 못함을 깨닫고는 마침내 흩어진 병사를 수습해 돌아갔는데, 나중에 사람을 보내어 비고(鞞鼓)⁵⁹⁾ 하나, 양마(良馬) 한 마리를 이성계에게 전했다고 한다(『고려사』 공민왕세가, 『태조실록』 1권). 공민왕 13년 정월 원나라 병사 1만이 강을 건너 의주를 침범해 고려의 군이 잇따라 패하자 왕은 곧바로 이성계에게 명해 이를 막도록 했는데, 그때 여진(女眞)의 삼선(三善)·삼개(三介)가 이를 틈타 삼살과 홀면으로 쳐들어와 빈번히 함화(咸和) 등의 여러 주(州)를 침범했다. 이성계는 서북면에서 군사를 이끌고 진격해 들어가 이를 크게 무찔러 함화 두 주를 되찾았다. 삼선과 삼개는 여진으로 달아난 이후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왕은 곧바로 이성계에게 밀직부사의 벼슬을 내렸고 단양절의대공신(端亮節翊戴功臣)이라는 호를 주었다. 삼선과 삼개는 해양(海陽, 함경북도 길주)의 다루가치 김방과(金方卦)가 도조의 딸을 아내로 맞아 낳은 자식으로 태조에게는 외사촌에 해당한다고 한다(『고려사』 공민왕세가, 『태조실록』 1권).

당시 고려 사람, 기철의 아들 기새인첩목아(奇賽因帖木兒)는 원나라를 섬기고 평장사(平章事)가 된다. 아버지 기철이 본국에서 역모를 피하다 참형을 당하자 기새인은 이에 큰 원한을 품고 그 원수를 갚을 생각이었는데, 마침 명나라 태조가 스스로 제(帝)라 칭하며 원나라 도성을 함락하고 순제가 북쪽으로 도망가자(공민왕 17년) 기새인은 곧바로 분사요심(分司遼瀋) 관리 김백안(金伯顔) 등과 공모하고 원나라의 남은 무리들을 규합해 동녕부(東寧府)에 근거지를 두고 명나라에 저항했고 또한 고려의 북방을 침입했다. 왕은 명나라를 섬겼으므로 곧바로 동녕부를 공격해 북원(北元)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이성계로 하여금 이를 공격하게 했다. 19년 정월 이성계는 동북면에서 진격해 들어가 황초(黃草, 함경남도), 설한(雪寒, 평안북도와 함경남도의 경계)의 두 봉우리를 넘고 압록강을 건너 우라산성(兀羅山城, 혹은 울리산성(兀利山城))이라고도 한다. 현재의 오여산(五女山)을 공격해 이를 점령했다. 8월 서북면 원수 지용수(池龍樹)와 동녕부 공격의 명을 받고 12월 이성계가 먼저 친병을 이끌고 의주에 도착해 부교(浮橋)를 만들어 강을 건넜다. 비장(裨將) 홍인계(洪仁桂) 등이 기병 3천을 이끌고 성을 공격했고, 이어서 대군이 진격해 들어가 성은 마침내 함락되면서 기새인은 도망갔다. 이듬해 7월 이성계는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가 되었고 이색(李穡)은 정당문학(政堂文學)이 되었다. 왕은 문무(文武)에 있어서 사람을 얻은 것을 크게 자랑했다고 한다(『고려사』 기철전(奇轍傳), 『태조실록』 1권).

59) 적을 공격할 때 말 위에 메어 두드리는 북.

이때 일본 연해의 변민(邊民)들이 빈번히 반도의 연안을 약탈했고 우왕(禡王) 때에 이르러 그 세력이 가장 창궐하게 된다. 이성계는 토벌의 명을 받고 우왕 3년 5월 지리산(경상남도)에서 싸워 크게 승리했고, 또 9월 해주(황해도)를 공격해 이를 섬멸했다. 6년 8월 양광(楊廣), 전라, 경상 3도의 도순찰사로 임명되어 9월 해구(海寇)를 전라도의 황산(荒山)에서 크게 무찔렀는데, 이로써 해구의 세력은 서서히 쇠약해지면서 이성계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고려사』 134권 신우열전(辛禡列傳), 『태조실록』 1권).

8년 7월 이성계는 동북면 도지휘사가 된다. 이때 여진의 호발도(胡拔都)가 침입해 그 지방을 노략질하고 백성을 끌고 가자 왕은 이성계를 파견해 백성들을 위로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이성계의 집은 대대로 이 지역의 군무를 관장하면서 위신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9년 8월 호발도가 또다시 침입해 단주(端州), 청주(靑州) 등의 상만호(上萬戶)가 싸움에서 잇달아 패하자 이성계는 길주에서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고 호발도는 간신히 몸만 달아났다. 이성계는 곧바로 상언하여 말하길, “북계(北界)는 국가의 요충지입니다. 무사한 때라 할지라도 식량을 축적하고 병사를 길러 불우(不虞)에 대비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네 가지의 안변책(安邊策)을 건의했다.

1. 침입을 막는 방법은 병사 훈련에 있으니, 병사를 잘 훈련시키고 병졸을 잘 가르쳐 약속을 정해 호령을 명확하게 하여 때(事機)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군대(師旅)의 생명은 군량에 있으니, 도(道)의 각 주(州) 및 화령(和寧) 등은 경전(耕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세를 부과해 공사(公私)에 편리를 도모해야 한다.
3. 군과 민을 모두 일정한 통제 아래 두지 않으면 완급을 서로 유지하기 어려우니, 군호(軍戶)를 적절히 정하여 그 마음을 굳게 결집해야 한다.
4. 민의 기쁨과 슬픔은 수령(守令)과 맞닿아 있고 군의 용맹과 비겁은 장수에게 있으니, 그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수령과 장수로 선택해야 한다.

11년 9월 해구가 홍원, 북청 등지에 침입했다. 이때 이성계는 동북면 도원수였다. 함주의 면아동(免兒洞)에서 싸워 대승했는데, 14년 정월 임견미(林堅味)와 염흥방(廉興邦)을 제거한 공으로(임견미와 염흥방은 이인임(李仁任)의 심복이었다. 공민왕이 재위 23년 만에 시해되자 수사중(守侍中) 이인임은 우왕을 옹립한 공을 세우면서 큰 세력이 되었다. 이 둘 역시 전횡을 일삼았다. 이성계는 최영(崔瑩)과 공모하고 힘을 합쳐 둘을 제거했다) 스스로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이 되어 문하시중 최영과 함께 정방(政房) 자리에 앉았다(『고려사』 134권 신우열전, 동 126 임견미(林堅味)·염흥방열전(廉興邦列傳), 『태조실록』 1권).

제2절 이씨의 왕업

1. 위화도(威化島) 회군

이에 앞서 명 태조가 원나라를 멸망시키자 공민왕은 이를 기뻐하며 지성을 다해 명나라를 섬겼는데, 태조도 예를 갖추어 대했다. 그러나 공민왕이 시해되고 우왕이 즉위한 그해(공민왕 23년, 명 태조 홍무 8년) 명나라 사신 살해사건이 일어난(명나라 사신 임밀(林密)과 채빈(蔡斌)이 고려에서 돌아가는 길에 개주(開州)에 도착하자 호송관 김의(金義)가 채빈을 죽이고 임밀을 붙잡아 북원으로 달아났다) 이후 태조는 종래의 태도를 바꾸어 오로지 위압적으로 고려를 대하고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였으므로 고려도 조정에서 점차 명나라를 배척하는 기운이 일어났다. 13년 11월 축하사절 장방평(張方平) 등이 요동에 이르러 국경을 넘지 못하고, 고려의 집행(執政)이 경박하고 간사하니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빙(通聘)을 거절한다는 명 황제의 칙서를 가지고 돌아왔다. 또 사람이 요동에서 와서 도당(都堂)에 알리길, 명 황제가 처녀와 수재 및 관자(官者) 각 1천, 우마 각 1천을 요구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자, 시중 최영 같은 이는 분개하여 그와 같은 일에는 곧 병사를 일으켜 칠 수도 있다는 말을 내뱉었다. 14년 2월 문하평리(門下平理) 설장수(倣長壽)가 명나라에서 돌아와 황제의 통빙 거절 및 철령 이복을 요동에 속하게 하겠다는 칙서를 들고 오자, 왕은 마침내 최영과 함께 백관을 모아 요동 공격을 논의했다. 때마침 명나라에서는 요동의 백호(百戶) 왕득명(王得明)을 보내 철령위(鐵嶺衛)를 설치하겠다고 고려에 알렸다. 왕은 병을 핑계로 사자를 보지 않고 최영 및 이성계를 불러 요양(遼陽) 공격을 명했는데, 이때 이성계는 지금 군사를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네 가지 있다고 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첫 번째이고, 여름에 병사를 낼 수 없다는 것이 두 번째이고, 나라 전체가 멀리 원정을 가면 왜구가 그 틈을 노린다는 것이 세 번째이고, 때가 무덥고 비가 오는 시기이니 활에 아교가 녹아 풀어지고 대군이 역병에 걸린다는 것이 네 번째 이유라고 했다. 최영은 왕에게 다른 말은 듣지 말라고 권유했다. 이성계도 왕에게 거마를 중경(中京)에 머물게 하여 가을을 기다려 병사를 보내야 한다고 했으나 왕은 결국 듣지 않았다. 직접 평양에 나아가서 각 도에 명을 내려 병사를 징발케 했다. 또 나라 안팎의 승려도 징발해 군오에 편입시켰다(『고려사』 137권 신우열전, 동 113 최영열전(崔瑩列傳), 동 131 김의열전(金義列傳), 『태조실록』 1권).

왕은 최영을 팔도도통사(八道都統使)로 임명하고 창성부원군 조민수(曹敏修)를 좌군도통사(左軍都統使), 이성계를 우군도통사로 임명했다. 좌군과 우군 합쳐 5만여 명, 과장해서 10만이 되었다. 곧바로 홍무(洪武) 연호를 그만 사용하도록 하고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원나라 복장 호복(胡服)을 하도록 하여 명나라에 등을 돌리고 북원을 따를 것을 밝혔다. 5월 좌우군이 진군해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에 이르러 주둔했는데, 도중에 죽

는 자와 도망치는 자가 계속 나왔고 이를 제지할 수도 없었다. 좌우군도통사는 상서를 올려 큰 강 앞에 이르러 빗물이 넘쳐나 급하게 건널 수 없으니 부디 되돌려야 한다고 했다. 왕과 최영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자(官者) 김완(金完)을 보내 진군을 독촉했으나, 김완을 구류하고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또다시 사람을 보내어 신속히 군사를 되돌릴 것을 청했으나 최영은 신경 쓰지 않았다. 때마침 군사들 사이에서 이성계가 휘하의 친병을 이끌고 동북면으로 향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성계가 장수들에게 상국(上國)의 국경을 침범할 수는 없으니 군사를 돌려 간신배 무리들을 제거할 것을 주장하자 장수들 모두 명을 따랐다(『고려사』 137권 신우열전, 『태조실록』 1권).

이성계가 군사를 돌려 서경에서 경성에 이르는 동안 왕의 신료, 경성의 인사 및 근처 백성들 중에 술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며 맞이하는 자들이 끊이질 않았고, 동북면 백성 및 여진족은 처음에는 군에 따르지 않으려고 하던 자들이 이때에는 앞을 다투며 그 휘하에 모여들면서 군의 기세가 높아졌다. 우왕은 돌아가 화원(花園)에 들어갔는데, 따르는 자가 겨우 50여 명이였다. 최영은 이를 거부하고 맞서 싸우기 위해 백관에게 무기를 들고 곁에서 호위하도록 하고, 부고(府庫)에서 금과 비단을 꺼내 군사를 모았지만 겨우 수십 명에 그쳤고, 모두 창고의 노예나 시정잡배에 지나지 않았다. 6월 초하루 회군을 한 장수들이 도성문 밖에 주둔하여 좌군이 먼저 진격해 선의문(宣義門)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최영이 맞서 싸워 이를 물리쳤다. 이성계가 뒤를 이어 좌군과 호응하여 숭인문(崇仁門)으로 들어가니 도성의 남녀들이 군사를 맞이했고 성을 지키던 장수들 역시 저항하는 이가 없었다. 최영은 불리한 힘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화원으로 돌아갔다. 군대는 곧바로 진격해 들어가 화원을 포위한 뒤 담을 부수고 들어가 마침내 최영을 붙잡아 고봉(高峰, 경기도)으로 귀향을 보냈다. 이로써 이성계의 세력은 큰 힘을 얻어 모든 장수들이 그의 명을 듣게 되었다. 이인임이 일찍이 말하길, “이판삼사(李判三司, 이성계)는 당연히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최영은 이를 듣고 마음속으로 큰 분노를 느끼면서도 감히 말을 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여기에 이르러 한탄하며 말하길, “이인임의 말은 바로 이를 가리킨다”라고 했다. 이성계는 곧바로 장수들과 논의를 한 뒤 다시 홍무 연호를 사용하도록 했고, 원나라 복장을 금지하면서 명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아울러 장수들은 병사를 데리고 궁궐을 지키고 왕에게 강화로 갈 것을 요청했다. 왕은 어쩔 수 없이 영비(寧妃)와 함께 강화로 떠났다. 여기에 이르러 여러 중신들이 모여 후계를 논의했는데, 이성계는 다른 왕씨(王氏)의 후손을 골라 세우려 했지만 조민수 등의 반대로 결국 우왕의 아들 창(昌)을 세워 고려왕으로 삼았다(『고려사』 137권 신우열전, 동 126 조민수열전(趙敏修列傳), 『태조실록』 1권, 『필원잡기(筆苑雜記)』).

2. 이성계의 왕업

이성계는 이제 우왕을 폐하고 세력은 날로 커져갔다. 조정의 신하 중에서 그의 뜻을 받들어 늘 그의 수족으로 부릴 수 있는 자가 적지 않았다. 가령 조준(趙浚)은 이성계의 천거로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겸 대사헌(大司憲)이 되었고 윤소종(尹紹宗), 정도전(鄭道傳), 남은(南閔), 조인옥(趙仁沃) 등도 그 무리에 속한다. 남은, 조인옥 같은 이는 위화도 회군을 논의할 당시 이미 이성계를 추대할 뜻을 밝혔다. 창왕이 즉위할 때 9세였는데 이성계는 동북면 삭방도도통사(朔方道都統使)가 되었고 충근량절선위동덕안사공신(忠勤亮節宣威同德安社功臣)이라는 호를 받았다. 아울러 수문하시중으로서 중외의 군사를 총괄하면서 그 세력은 더욱 커졌다. 이에 앞서 선왕 우는 강화에서 여흥(驪興)으로 옮겨갔는데, 항상 침울하여 즐겁지 않았다. 결국 사람을 보내어 은밀히 이성계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일로 변안렬(邊安烈)·이림(李琳)·우현보(禹玄寶) 등의 중신들이 연루되어 모두 유배를 가게 되었다. 여기서 이성계는 판삼사사(判三司事) 심덕부(沈德符)·찬성사(贊成事) 지용기(池湧奇)·정몽주(鄭夢周)·정당문학 설장수(契長壽)·평리(評理) 성석린(成石璘)·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 조준·판자덕부사(判慈德府事) 박위(朴葦), 밀직부사 정도전 등을 흥국사(興國寺)에 모이게 하여 병사를 배치한 뒤 말하길, “우와 창은 본디 왕씨가 아니니 모두 종사(宗祀)를 받들게 할 수 없다. 특히 천자의 명이 있으니 당연히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마침내 신종(神宗) 7대손인 정창군(定昌君) 요(瑤)를 맞이해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바로 공양왕(恭讓王)이다. 곧바로 우를 강릉으로, 창을 강화로 보내 폐하고 서인(庶人)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결국 죽었다(『고려사』 137권 신우열전, 동 45 공양왕세가(恭讓王世家), 동 126 변안열열전(邊安烈列傳)).

이에 앞서 고려의 전제(田制)는 크게 문란해져 겸병(兼併) 수탈의 폐해가 매우 심했는데, 이성계는 대사헌 조준 등과 논의해 사전(私田)을 개혁해 균전(均田)으로 돌아갈 것을 도모했다. 우왕 14년 6월, 창이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하자 교지를 내려 각 사사(司使)들로 하여금 폐해를 극복할 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는데, 7월 조준이 상소문을 올려 겸병 수탈의 악습을 언급하고 나아가 사전의 폐를 거론하면서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까닭을 밝혔다. 이때 조민수는 시중이었는데, 사전개혁 논의에 반대하며 이를 막으려 했지만 조준은 곧바로 탄핵을 해서 결국 조민수를 창녕(昌寧, 경상남도)으로 유배시켰다(『고려사』 78권, 「식화지(食貨志)」, 동 126 조민수열전, 동 118 조준열전(趙浚列傳)). 그리고 간관(諫官) 이행(李行)·판도판서(版圖判書) 황순상(黃順常)·전법판서(典法判書) 조인옥 등도 역시 사전의 폐를 논하고 옛 균전제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는데, 8월 왕은 교지를 내려 “사전의 세금을 지금 모두 징수하면 조신(朝臣)들이 반드시 식량난을 겪을 것이니 당분

간 그 절반을 징수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충당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9월 우상시(右常侍) 허응(許應) 등도 역시 상소를 올려 전제를 논했고 이듬해 4월 왕은 각 사(司)들로 하여금 사전개혁의 장단점을 논하게 했는데, 그 과반수가 개혁에 찬성했다. 당시 이 개혁에 대한 중신들의 찬반 추세를 보건대, 정도전과 윤소중 등은 이성계, 조준과 뜻을 같이했다. 이색은 가벼이 구법을 개혁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림·우현보·변안렬·권근(權近)·유백유(柳伯濡) 등은 그의 의견에 찬성을 했고, 정몽주는 중간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그해 8월 조준이 상소문을 올려 다시 사전을 논했고 공양왕 원년 12월에 또 상소했는데, 공양왕 2년 9월에 개혁과가 마침내 이겨서 모든 토지 문서(公私田籍)를 거두어 거리 한복판에서 불태웠다. 불은 수개월 동안 꺼지지 않았다고 한다. 왕은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사전법(私田法)이 과인의 대에 이르러 결국 혁파하다니, 애석하도다”라고 했다(『고려사』 45권 공양왕세가, 동 78 「식화지」, 동 118 조준열전, 『태조실록』 1권).

공양왕이 왕위에 오르자 이성계·심덕부·지용기·정몽주·설장수·성석린·조준·박위·정도전 등 9명은 정책의 공을 인정받았다, 이성계는 화령군 개국충의백(和寧郡開國忠義伯)으로서 식읍(食邑) 1천호(戶), 식실봉(食實封) 300호, 토지 200결(結), 노비 20구(口)를 하사받았다. 심덕부는 청성군 충의백(靑城郡忠義伯)으로서 토지 150결, 노비 15구, 지용기와 정몽주 이하 7명은 모두 충의군(忠義君)으로서 각자 토지 100결, 노비 15구를 하사받았다. 또한 이성계로 하여금 팔도의 군마를 다스리게 했고, 2년 11월 사헌부의 건의에 따라 모든 원수의 인장을 거두었다. 아울러 삼군도총제부(三軍都總制府)를 설치해 이성계를 도총제사(都總制使)로 임명했다. 배극렴(裴克廉)을 중군총제사, 조준을 좌군총제사, 정도전을 우군총제사로 임명했는데, 여기에 이르러 팔도의 병권이 모두 이성계의 수중에 들어가면서 이씨의 세력은 한층 더 커지게 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대신과 장상들이 주살되거나 유배되는 이가 매우 많았다. 최영이 먼저 창왕 원년에 주살되었고, 공양왕 2년 정월 변안렬이 참수당했으며, 같은 해 2월 조민수가 창녕에 유배되었고, 이색 또한 자리에서 물러났다. 뿐만 아니라 사헌부 간관들이 교대로 상소문을 올렸고 이색이 조민수와 논의해 창을 왕으로 세우고 또 우를 맞이하려 했으니 그 죄를 물어야 한다고 간청했다. 때마침 순안군(順安君) 왕방(王昉)과 동지밀직사사 조반(趙胖)이 명나라에서 돌아와, 이색과 조민수 등이 모의해 은밀히 파평군(坡平君) 윤이(尹彝)와 중랑장(中郎將) 이초(李初) 등을 명나라에 보내서 시중 이성계가 인척 관계에 있는 요를 세우고 병사를 움직여 명나라를 침범하려고 한다고 호소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로 인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옥에 들어가는 일어 벌어져 이색 이하 대관들의 옥살이에 연루된 자가 수십 명, 그 대부분은 이씨의 이사(驛使)⁶⁰에 따르는 것을 거부한 무리였다(『고려사』

455권 공양왕세가, 동 115 이색·우현보열전(禹玄寶列傳)). 정몽주는 이성계의 세력이 날로 커지는 것을 보고, 또 조준과 남은과 정도전 등이 이를 추대하려고 모의하는 것을 알고 기회를 보고 이들을 제거하려고 했다. 4년 3월, 세자 석(奭)이 명나라에서 돌아오자 이성계는 그를 황주(黃州, 황해도)에서 맞이하기 위해 가던 중 해주에서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정몽주는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먼저 그의 날개를 잘라버리고 그 후에 이를 도모하고자 했다. 당시 조신들 사이에서 이성계 세력을 배척하는 기운이 일고 있는 기회를 틈타 조용히 대간(臺諫)들을 부추겨 조준 등을 탄핵하고 마침내 원지로 유배를 보냈다. 이성계의 아들 방원(芳遠)이 그 모의를 알고 휘하의 장수 조영규(趙英珪) 등을 보내 정몽주가 이성계의 집을 찾아간 것을 확인한 뒤 돌아가는 길에 그를 때려죽였다. 이성계는 곧바로 황희석(黃希碩)을 왕에게 보내 말하길, “정몽주는 죄인과 한패가 되어 은밀히 대간을 띄어 충량(忠良)을 모함했으니, 바라건대 조준과 남은 등을 불러 대간과 대면케 하여 시비를 가려야 합니다”라고 했다. 왕은 어쩔 수 없이 대간을 조사하고, 김진양(金震陽)과 이승인(李崇仁) 이하 이씨에게 저항하는 자를 모두 원지로 유배 보냈다(『고려사』 117권 정몽주열전(鄭夢周列傳), 동 김진양열전(金震陽列傳), 동 115 이승인열전(李崇仁列傳)).

이제 정몽주는 죽었다. 더 이상 조신들 중에서 그 누구도 이씨에게 반대하는 자가 없다. 6월 공양왕은 이성계의 집에 가서 병문안을 했고, 아울러 이성계와 동맹을 맺기를 원하면서 방원과 사예(司藝) 조용(趙庸)으로 하여금 맹세문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방원은 이미 남은과 모의해 조준·정도전·조인옥·조박(趙璞) 등 52명과 이성계를 추대할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이르러 우시중 배극렴 등이 왕 대비에게 말하길 “지금 임금의 어두워 군주의 도리를 잃었으니 사직과 백성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이를 폐하소서”라고 했다. 대비는 마침내 교지를 내려 왕을 폐한 뒤 공양군(恭讓君)으로 내리고 원주로 보냈다. 드디어 이성계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바로 조선 태조이다. 실로 임신년 7월 17일의 일이다(『고려사』 46권 공양왕열전, 『태조실록』 1권). 곧바로 지밀직사사 조반을 명나라에 보내 글을 올려 혁명을 알리고 그 승인을 요청했다. 이어서 전밀직사사 조림을 보냈는데, 11월 조림이 명나라에서 돌아와 예부의 문서를 전하면서 조속히 개정 국호를 보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같은 달 또다시 예문관 학사 한상질(韓尙質)을 보내 조선과 화령(和寧)이라는 국호에 대해 재가를 요청했다. 명 태조는 새롭게 나라를 열어 선불리 이웃나라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에 곧바로 그 청을 받아들이며, “조선이라는 칭호가 좋고 또한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그러니 다시금 조선이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여기에 이르러 고려라는 국호를 버리고 조선이라는 국호가 되었다. 하지

60) 턱으로 부린다는 뜻으로, 남을 마음대로 부림.

만 명나라는 여전히 왕호(王號)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국내에서는 왕이라 칭해도 명에 대해서는 단지 권지국사(權知國事)라 칭하는데 지나지 않았다(명이 금인고명(金印誥命)을 내려 조선 국왕이라고 책봉한 것은 이씨 개국 10년, 즉 태종 원년이다. 명에서는 혜제(惠帝) 건문 3년이다)(『태조실록』 2권, 『황명실록(皇明實錄)』 홍무(洪武) 25년).

제3절 고려 왕씨에 대한 조처 및 왕위계승의 분쟁

1. 고려 왕씨에 대한 조처

이성계는 공양왕을 폐하고 왕위에 올라 대업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고려 왕씨에 대한 조처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였다. 즉위 원년 8월에 고려 태조의 묘를 마전(麻田, 경기도)으로 옮겼고, 공양왕의 동생 우(瑀)에게 그 지역을 주고 귀의군(歸義君)에 봉하고 왕씨의 제사를 올리게 했으며, 아울러 태조의 주상(鑄像)도 그곳으로 옮겼다. 또 고려 혜왕·현왕·충경왕·충렬왕·문왕 및 공민왕의 묘를 태조 묘에 함께 붙였다(나중에 7묘가 너무 많다는 의논이 있어 충렬왕 이하를 없앴다)(『이조실록(李朝實錄)』 태조 원년 8월, 『조야첨재(朝野僉載)』 1권).

이에 앞서 태조는 교지를 내려 왕씨 종족(宗族)을 강화와 거제 두 섬에 살도록 했다. 2년 5월 교지를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게 전해 거제에 있는 모든 왕씨에게 육지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는 동시에 재간이 있는 자는 점차 간택하여 서용(敍用)하라는 명을 내린 뒤 섬에 있는 왕씨를 완산·상주·영주 등지로 나누어 이동시켰다(『이조실록』 태조 원년, 2년 5월). 마침 공양왕은 폐위된 이후 공양군으로 봉해져 원주에 있었는데, 3년 정월 동래현령(東萊縣令) 김가행(金可行)과 염장관(鹽場官) 박중질(朴仲質) 등이 밀성(密城)의 맹인 이흥무(李興茂)에게 국가의 안위 및 왕씨의 명운을 점치게 했는데, 일이 발각되자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박위가 연루되어 있다고 했다. 곧바로 박위를 붙잡아 옥에 가두고 공양군을 삼척(三陟)으로 보냈다. 이때 대간형조는 교대로 상소문을 올려 후환을 없애야 한다며 왕씨를 모두 제거하라는 청을 했다. 태조는 처음에는 이를 듣지 않았지만 논쟁이 며칠 동안 이어지자 그들을 두고 볼 수 없어 결국 교지를 도평의사사에게 내려 백사(百司) 기로(耆老)를 모아 논의를 하였는데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하자 곧바로 사람을 보내 공양왕과 그 두 아들을 교살했다. 아울러 왕씨 종족을 강화 및 거제 바다에 수장시켰다(『태조실록』 3년 4월). 또는 다음과 같은 설도 있다. 즉 처음 왕씨를 제거하는 논의가 마침내 결정이 났지만, 이를 죽일 명분이 없음을 우려해 뱃사람이 배로 왕씨를 유인해 “지금 교지가 내려와 여러분을 섬 안에 두고 서인(庶人)으로 하라”고 했다고 하니, 여러 왕씨는 크게 기뻐하고 앞을 다투어 배에 올랐고 배가 육지에서 멀어지자 선원들이 배 밑바닥에 구멍을 내 모두 바다에 수장시켰다고도 한다(『추강냉화(秋江冷

話』). 더불어 중외에 명하여 왕씨의 서얼을 색출해 모두 참수했지만, 단 정양대군(定陽大君) 왕우(王瑀)는 그의 딸이 무안군(撫安君) 방번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고 귀의군(歸義君)에 봉해졌고, 그의 아들 탄(坦)⁶¹⁾ 역시 이를 세습해 마전(麻田)의 묘에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무안대군신도비(撫安大君神道碑)』). 그리고 같은 달 명을 내려 고려 당시 왕씨 성을 받은 자는 모두 본래의 성으로 돌아가게 했고, 또한 설령 고려 왕씨의 후예가 아니라 하더라도 왕씨 성을 가진 자는 모두 모친 성을 따르게 했다. 이때에 고려의 구신(舊臣)이면서 고명한 인사들은 참수당하거나 혹은 산속으로 도망치는 자가 적지 않았다. 이색의 아들 종학(種學), 이승인 등은 모두 비명에 갔고, 길재(吉再)·원천석(元天錫)·조연(趙涓, 나중에 趙捐)·남을진(南乙珍) 등은 모두 향촌에서 지조를 지키면서 두 번 다시 조정에 들어가지 않았다(『태조실록』 3년 5월, 동 원년 8월,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1권).

2. 왕위계승의 분쟁

고려 왕씨의 종족 및 구신들은 이와 같이 점차 주살 당해 외부의 위협세력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화는 갑자기 내부에서 일어나 골육상쟁의 비극을 연출하게 된다. 태조에게는 여덟 명의 아들이 있었다. 방우(芳雨)·방과(芳果)·방의(芳毅)·방간(芳幹)·방원(芳遠)·방연(芳衍)은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가 낳았고, 방번(芳蕃)과 방석(芳碩)은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가 낳았다. 태조가 즉위하자 그 해 8월 공신 배극렴·조준·정도전 등이 교대로 상소문을 올려 세자를 책봉할 것을 청했다. 태조는 배극렴과 조준 등을 내전으로 불러 논의했는데, 배극렴 등은 “태평한 때라면 적장자를 세우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공을 세운 이를 우선시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들의 의중은 방원을 세우려는 데 있었다. 강비(康妃)는 은밀히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태조는 강비를 중하게 여겨 방번을 마음에 두고 있어서 훗날 다시 배극렴 등을 불러 논의했다. 배극렴은 방번은 성격이 괴팍하고 행실이 나쁘니 막내가 더 나을 것이라고 했다. 태조는 마침내 뜻을 굳히고 의안군(宜安君) 방석을 세자로 책봉했다. 그러자 정도전과 남은 등의 무리는 방석에 붙어 다른 왕자들을 제거하고 왕위계승을 안전하게 하려고 은밀히 왕에게 아뢰어 명나라 조정의 황자봉왕(皇子封王)의 예에 따라 왕자들을 각도에 나누어 내려 보낼 것을 간청했으나 왕은 응하지 않았다(『태조실록』 7년 8월, 『조야첨재』 1권).

7년 8월 태조가 병으로 쓰러졌다. 정도전 등은 곧바로 왕의 거처를 옮길 것을 의논한 다음 왕자들을 불러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려 안팎에서 공격하려고 모의했다. 전

61) 조(琮)의 오기로 보인다.

참찬 이무(李茂) 역시 한패였지만 은밀히 모의를 방원에게 알렸다. 이에 앞서 하륜(河崙)은 충청도의 관찰사가 되었는데, 지안산사(知安山事) 이숙번(李叔蕃)을 방원에게 추천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대사를 맡길 만하다고 했다. 여기에 이르러 방원은 곧바로 이숙번을 불러 병사를 무장시키고 본가 문 앞을 지키게 한 뒤 직접 대궐로 달려가 서랑(西廊)에 들어갔다. 소관(小官) 하나가 안에서 나와 말하길, “지금 주상의 병이 깊어 비접⁶²⁾을 하려 하니 여러 왕자께서는 들어오시라는 분부입니다”라고 했다. 사람들은 모두 이를 이상하게 생각했고, 방원은 곧바로 익안군(益安君) 방의, 회안군(懷安君) 방간 등과 황급히 영추문(迎秋門)을 빠져나와 곧바로 사람을 나누어 좌정승 조준, 우정승 김사형(金士衡) 등을 불러 말하길, “공들은 이씨의 사직이 걱정되지 않으시오”라고 하자 순식간에 많은 조신들이 나왔다. 그때 정도전 등은 남은의 첩의 집에서 환하게 등불을 밝히고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종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방원은 곧바로 무사를 거느리고 이곳을 포위한 뒤 마침내 불을 지르고 정도전과 남은 등을 비롯한 무리들을 주살했다(『태조실록』 7년 8월, 『용재총화(慵齋叢話)』, 『조야첨재』 1권). 그때 방석 등은 성 안에 있었는데, 변을 듣고는 나가서 싸울 생각으로 군사로 하여금 성에 올라가 적의 규모를 살펴보게 했다. 광화문에서 남산에 이르기까지 철기(鐵騎)가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고 돌아와 이를 알리니 방석 등은 결국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날이 밝자 태조는 청량정(淸涼亭)으로 옮겼는데, 조준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정도전과 남은의 죄를 고하고 동시에 세자를 다시 책봉할 것을 간청했다. 이에 앞서 영안군(永安君) 방과는 태조의 병이 낫기를 기도하기 위해 소격전(昭格殿)에 제를 올리고 있었는데, 변란 소식을 듣고는 조용히 종자 하나를 거느리고 성을 빠져나와 어느 민가에 숨었다. 방원은 사람을 보내 그를 맞이해 태조에게 간청하여 세자로 삼으려고 했다. 영안군은 “개국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은 정안군(靖安君)에 있으니 저는 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방원 역시 이를 사양하자 태조는 마침내 방과를 세자로 책봉했다. 하지만 백관들이 여전히 방석과 방원을 내칠 것을 간청하자 태조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윤허했고, 도당(都堂)이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을 엿보고 있다가 사람을 보내 길에서 죽였다. 9월 태조는 왕위를 방과에게 물려주었는데, 그가 바로 정종(定宗)이다(『태조실록』 7년 8월 및 9월, 『조야첨재』).

정종이 즉위하고 2년 정월에 회안군 방간이 병사를 이끌고 정안군 방원을 제거하려고 모의하려다 성사시키지 못하고 토산(兎山, 황해도)으로 유배되었다. 처음에 정종에게 적사(嫡嗣)가 없어서 방간은 자신이 마땅히 뒤를 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안군 방원은 영민하고 조신하며 개국의 공이 있으니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마음을 기대었다. 방간

62) 병자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요양함.

은 그의 처질(妻姪) 판교서감사(判校書監事) 이래(李來)에게 “정안군은 나를 시기하고 있으니 내 어찌 함부로 남의 손에 죽겠는가”라고 했다. 이래는 우현보의 문생(門生)으로, 곧바로 그의 집에 가서 상세하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말하길, “장차 이달 그믐달에 거사하려 합니다”라고 했다. 우변보는 그의 아들 홍부(洪富)를 보내 이 사실을 방원에게 밀고 했는데, 방원은 즉시 그날 밤 하룻, 이무 등과 논의해 은밀히 대응책을 세우고 기다렸다. 방간은 그의 휘하 상장군 오용권(吳用權)을 정종에게 보내 말하길 “정안군이 저를 해하려고 모의를 하기에 저 또한 부득이 병사를 일으키니, 부디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정종은 도승지 이문화(李文和)를 보내 방간을 설득해 신속히 병사를 물리고 홀로 말을 타고 궁에 들어올 것을 권유하도록 했다. 이문화가 아직 도착하기 전에 방간은 이미 인척 관계에 있는 민원공(閔原功), 기사(騎士) 이성기(李成奇) 등의 격려를 받아 병사를 움직였다. 그의 아들 의녕군(義寧君) 맹종(孟宗) 및 휘하 병사 수백 명이 모두 갑옷을 입고 병장기를 들고 가던 중 태상전(太上殿)을 지나면서 사람을 보내 알리길, “정안군이 신을 해치려 하니 신은 허망하게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사를 일으켜 변에 대응하려 합니다”라고 했다. 태조가 이를 듣고 한탄하며 말하길, “저 소 같은 위인이 어찌 여기에 이르렀는가”라고 했다. 방간의 병사는 내성(內城) 동대문으로 향하다가 이문화와 선죽교(善竹橋)에서 만났다. 이문화는 즉시 왕지(王旨)를 전했다지만 방간은 듣지 않았다. 그때 방원 역시 군사를 정비해 나오면서 양쪽이 교전했다. 방원의 장수 이숙번 등이 먼저 나서 힘써 싸워 방간은 패하고 결국 붙잡히고 말았다. 방원이 이숙번을 불러 말하길, “형은 본성이 우직하고 이번 거사는 필시 간인(奸人)의 꼬임에 넘어간 것이리라. 그대가 가서 난을 일으킨 연유를 물어보라”고 했다. 이숙번은 달려가 그 까닭을 물었다. 방간이 대답하길, “지난해 동지에 박포(朴苞)가 우리 집에 와서 말하길, ‘오늘의 큰비에 대해 공은 그 뜻을 아는가? 옛사람이 말하길 겨울비가 내려 길이 파손되면 병사들이 저자에서 교전한다고 했는데, 정안공이 공을 보는 눈길이 예사롭지 않으니 반드시 변을 일으킬 것이다. 공은 마땅히 선수를 쳐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이를 듣고 허망하게 남의 손에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먼저 친 것뿐이다”라고 했다. 박포는 방원의 조전절제사(助戰節制使)로 일찍이 방석의 변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 그러나 사람 밑에 있는 것을 싫어하고 종종 원망하는 말을 늘어놓았다. 방원은 이를 듣고 정종에게 고해 죽주(竹州, 충청북도 영동군)로 유배를 보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환했다. 그날 난이 일어나자 박포는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고 중립을 지키며 변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에 따라 박포를 순군(巡軍)에 가두고 선동한 죄를 추궁한 뒤 주살했고, 방간을 토산으로 유배보냈다(『정종실록(定宗實錄)』 2년 정월, 『연려실기술』 1권, 『조야회통(朝野會通)』 1권).

방간의 난이 평정되자 참찬문하부사 하륜 등이 아뢰어 말하길, “정몽주의 난은 정안군

이 없었다면 대사를 성사시키지 못했을 것이고, 정도전의 난 역시 정안군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안정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제의 일을 돌이켜 보건대 천의인심(天意人心) 역시 알아야 합니다. 청하건대 빨리 위호(位號)를 정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정종은 방원을 세자로 책봉하고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이를 태종(太宗)이라 한다. 때는 정종 2년 11월이다(『조야첨재』).

방석과 방편이 비명에 가버린 이래로 태조의 마음은 늘 평안하지 않았다. 정종 원년에 금강산에 가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태종 원년 3월 마침내 새 도성 한양에 가서 금강산에 갔다가 여기서 동북면으로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았다. 태종은 이를 걱정해 도승지 박석명(朴錫命)을 보내 그 거처를 알아보도록 했는데, 그때 태조는 안변부(安邊府, 함경도)에 있었다. 박석명이 돌아와 태상왕이 명하여 양정(涼亭)을 안변 함주 땅에 세우도록 했지만 오래 머물 뜻은 없다는 말을 전했다. 태종은 또다시 창녕부원군 성석린(成石璘)을 보내 안부와 거처(行在所)를 묻도록 했다. 출발하기 전에 이르길 “태상왕은 원래 경을 소중히 여기니, 경의 말이라면 반드시 따를 것이요. 가서 문안을 여쭙고 잘 설득하여 가마를 돌리도록 하시오”라고 했다. 성석린은 곧바로 거처에 달려가 태조를 설득하니 태조도 결국 가마를 돌려 도성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여전히 답답하고 마음은 즐겁지 않았다. 그해 11월 저녁 몰래 왕궁을 나와 소요산(逍遙山, 경기도 양주군)에 가서 별전을 산 아래에 지어 그곳에 머물렀다. 이듬해 11월 다시 동북면으로 향해 철령을 넘어 함주에 도착한 뒤 또다시 서북면의 고맹주(古孟州)로 향해 12월 도성으로 돌아왔다. 이에 앞서 동북면에서는 조사의(趙思義)의 난이 일어났다. 조사의는 현비 강씨(顯妃康氏)의 인척으로 일찍이 안변도호부사(安邊都護府使)였는데, 강씨를 위해 원수를 갚겠다는 명목으로 병사를 일으켜 반란을 도모했지만 패하고 참수 당했다. 태종은 태조가 이 지방 깊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할 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 왕사(王師) 무학(無學)을 함주의 거처에 보내 가마를 돌릴 것을 부탁했는데, 태조의 승낙을 얻었다고 한다(『태종실록』 원년 3월·4월·11월 및 2년 11월·12월).

한편 다음과 같은 말도 있다. 즉 태조가 처음 함주에 들어갔을 때 문안 인사를 하러 오는 이들이 있었지만 모두 죽임을 당해 살아 돌아가는 자가 없었다. 태종은 곧바로 성석린을 보내 설득하고, 이어서 판승추부사(判承樞府事) 박순(朴淳) 및 승려 무학을 보내 태조도 결국 가마를 돌렸다. 돌아오는 날 태종은 친히 성 밖으로 나가 맞이하고 큰 장막을 쳤다. 하륜 등이 아뢰길, “태상왕의 노여움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햇빛을 막을 큰 기둥을 세우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태종은 이 말에 따랐다. 둘이 서로 만나면서 태상왕은 멀리 태종이 보이자 노기를 참지 못하고 곧바로 화살을 쏘았다. 태종은 황급히 기둥 뒤로 피해 화를 면할 수 있었다. 태조가 웃으며 “하늘의 뜻이다”라고 했다. 그리

고는 국보를 내주며 말하길, “네가 원하는 것이 이것일 테니 지금 가지고 가라.”라고 했다. 태종은 눈물을 흘리며 세 번 사양한 뒤 마침내 이를 받았다고 한다(『연려실기술』 1권).

제4절 개국 당초의 내치(內治) · 외교

1. 내치

이태조는 왕씨를 대신해 대업을 이루었다. 법제를 정하고 내치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따라서 태조는 즉위하자 가장 먼저 여러 백관들에게 명해 고려의 정령(政令), 법제의 득실, 연혁 등에 관한 서목(書目)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듣고 그 관제를 본떠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및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를 설치했다. 도평의사사는 국정을 장악했고, 의흥삼군부는 군정을 장악했다. 훗날 삼군부의 건의로 부신(符信) 제도를 정하고 명하길, “무릇 나라 안팎을 불문하고 병사를 움직일 경우에는 반드시 부신이 있어야 하고 부신이 없는 자는 함부로 군사를 움직인 자로 그 죄를 논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유비고(有備庫)를 설치해 군에 제공하도록 했다. 그 밖의 사업으로서는 문무백관의 위계를 정했다. 또한 대간과 육조에 명해 현량(賢良) 각 한 명씩 천거하여 경연(經筵)을 열어 직언을 구하고, 과거시험에 관한 법을 제정했으며, 정도전으로 하여금 주례(周禮)의 육관(六官)을 본떠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편찬하도록 했다. 아울러 하륜에게 명해 이를 자세히 규정하도록 했다. 『경국원전』 및 『속전』이라 불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태조실록』 원년 7월·8월, 『조야회통』 1권).

정종이 즉위하자 2년 4월 문하시랑찬성사(門下侍郎贊成事) 하륜에게 명해 또다시 관제를 개정하도록 했다. 즉 도평의사사를 개편해 의정부로 하고, 중추원을 개편해 삼군부로 만들었다. 또한 같은 달 대사헌 권근 등의 건의로 여러 장수들의 사병을 없애도록 명했다. 고려 말기 이후 군사(軍事)는 모두 권가(權家)의 손에 맡겨졌고, 장수는 모두 사가(私家)의 장수, 병사는 모두 사가의 병사였으니, 나라에는 한 무리의 병사도 한 조의 줄도 없는 상태였다. 대사헌 권근 등이 상소문을 올려 그 폐해를 논하고 조속히 사병을 없애고 모두 이를 삼군부에 속하도록 할 것을 간청했다. 왕은 세자 방원과 논의한 뒤 이를 허락하고 모든 장수들의 사병을 없애도록 했다(『정종실록』 2년 4월, 『조야회통』 1권). 뒤를 이어 태종이 즉위하자 그 역시 뜻을 내치에 두고 정비와 혁신을 꾀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즉위 원년 문하부(門下府)를 의정부에 편입하고(문하부는 고려시대의 관부로, 제반 행정을 통괄하는 곳이었다), 또한 저폐(楮幣)를 만들어 사담서(司贍署)를 설치해 그 유통을 도모했다. 2년 신문고를 설치해 백성들이 이를 두들기면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 주도록 했으며, 또한 사람마다 호패를 주어 출입시에는 반드시 이를 소지하도록 했고 호구를 조사했다. 8년에는 부녀자의 재혼을 금지했고, 그 자손은 사판(仕版)에 올리지 않

도록 했다. 9년에는 외척의 폐해를 감안해 봉군제(封君制)를 없앴다. 10년에는 호포제를 없애고 백성들의 부과를 가볍게 했다(호포란 고려시대에 실시된 징세의 일종이다. 저포(苧布)를 거두어 군수에 충당). 13년에는 팔도의 경계를 정하고 감무(監務)를 현감(縣監)으로 고쳤다. 14년에는 돈녕부(敦寧府)를 설치해 종친으로 태조의 후손이 아니어서 봉군되지 못한 자들 및 외척들을 여기에 두고 각자의 안녕을 도모하도록 했다. 그 밖에 농업을 권장하여 기아를 막고, 무를 강구함으로써 무비(武備)가 느슨해지는 것을 경계하도록 했다. 또한 뜻을 학문에 두고 행학(幸學)과 알성(謁聖)의 예를 행하고 친히 『대학』을 강의했다. 일찍이 좌우에 나아가 일러, “무릇 나라는 다스리려면 널리 보아야 한다. 우리 동방은 해외에 있어서 중국의 서책이 매우 적게 들어온다. 지금 동을 주조해 활자를 만들고 이를 인쇄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즉위 3년에 주자소(鑄字所)를 설치해 내부(內府)의 동을 내어 활자 수십만을 주조하도록 했으며, 11년 오부학당(五部學堂)을 재흥해 교수와 훈도를 두고 유생들을 지도하도록 했다(오부학당은 정종 시절 한 번 설치되었지만 곧 폐지된다). 17년에는 서운관(書雲觀)에서 소장하던 참위서(讖緯書) 및 도성 안팎에서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도참(圖讖)과 요탄한 서책을 거두어 이를 모두 불태우며 말하길, “옛사람들의 장기(葬期)의 제도이니, 지금 어떤 이는 해는 넘기기도 장례를 하지 않는 자가 있고, 심지어는 2, 3년에 이르기도 한다. 이는 바뀌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위설(讖緯說)은 논자 모두 이를 취하지 않았지만, 천도하던 날 하륜이 이 서책을 굳게 밟고 도성을 모악(母岳)으로 정하려고 했으나, 나 홀로 믿지 않고 한양으로 정했다. 만일 참서(讖書)를 불태우지 않으면 후세에 이치에 밝지 못한 자는 반드시 현혹되어 종사의 화근, 장단점, 안녕을 이것으로 알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태종실록』 원년 4월, 동 2년 정월, 『조야회통』 1권, 『문헌비고(文獻備考)』 209권, 『일월록(日月錄)』 1권, 『국조보감』 4권). 나라의 도성은 처음에는 개성에 있었다. 개성은 고려의 옛 도읍지로, 거의 500년간 국왕의 궁이 있던 곳이었는데, 태조가 즉위하자 천도하여 천하의 이목을 일신하기 위해 계룡산(충청도)에 새 도읍을 건설하려 했다. 그러나 경기 좌우관찰사 하륜이 상소하여 “도읍은 마땅히 나라의 중앙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룡은 땅이 남으로 치우쳐 있어서 동서남북의 교통이 불편하고, 또한 여러 풍수지리서에 따르면 나라가 쇠망할 땅이니 이곳에 도읍지를 세우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자 갑자기 계획을 중지했다. 그러나 또다시 좌시중 조준과 영삼사사 권중화 등에게 서운관원을 데리고 가서 천도할 땅을 모악(도성의 서쪽) 남쪽에서 찾아보도록 했다. 조준 등이 다녀온 뒤 “모악의 남쪽은 터가 좁아서 천도할 만한 곳이 못 됩니다”라고 했다. 서운관원 등도 역시 도읍지로 삼을 만한 곳이 아니라고 했다. 태조는 직접 가서 친히 그 지역을 살펴보고 여러 재상들에게 명하여 각자 상서를 올려 그 가부를 알리도록 했는데, 모두 천도 불가를 주장하자 태조

는 심기가 불편했다. 대신들은 “만일 반드시 천도를 하려고 한다면 한양이 좋습니다”라고 했다. 한양은 고려 숙종 때부터 남경(南京)이라 하여 이궁(離宮)을 둔 곳으로, 충렬왕 때는 한양부로 정해 폐왕 우와 공양왕은 한때 여기에 머문 적이 있다. 홀로 하륜만 이에 반대하며 말하길, “한양은 산세는 비록 볼 만한 것이나, 지법(地法)으로 논하자면 좋지 못합니다”라며 모약이 좋다고 했으나, 태조는 중인들의 말을 들어 결국 도읍을 한양으로 정했다. 3년 9월 신도궁궐조성도감(新都宮闕造成都監)을 설치하고 태묘·사직·궁궐 등의 경영을 관장케 하고 10월 새 도성으로 옮겼다. 아울러 5년 정월 민정(民丁) 십여만을 징발해 도성을 축조하도록 하고 9월에 이르러 부역을 마쳤다(『태조실록』 2년 12월, 동 3년 2월·9월·10월, 5년 정월·9월). 한양의 궁궐은 한동안 창건되지 않았고, 여염(閭閻)도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관과 사민들은 모두 옛 도성을 그리워했으며 상왕(즉 태조) 역시 그곳을 몹시 그리워했다. 또한 불길한 징조가 잇달아 일어나 서운관에서 상소문을 올리자 정중은 곧바로 종친 재상을 불러 천도를 논의한 뒤 원년 정월 마침내 상왕을 모시고 개성으로 돌아갔다. 태종이 즉위하자 4년 7월 교지를 내려 “일전에 도성을 이곳으로 이어(移御)한 것은 영원한 천도를 위함이 아니라 피방(避方)을 위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종묘사직은 여전히 한경(漢京)에 있는데, 근자에 천재지괴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종묘사직이 멀리 피지(彼地)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래서 또다시 천도를 논의했다. 진산부원군 하륜은 상서를 올려 도성을 모약으로 옮길 것을 간청했으나 태종은 듣지 않았다. 마침내 다시 한양으로 도읍을 정했다(『태조실록』 원년 정월, 『태종실록』 4년 7월).

2. 외교

처음에 태조가 일어섰을 때 먼저 명나라를 받드는(宗明) 방침을 세우고 사대(事大)를 국시로 정했는데, 왕씨를 대신하자 곧바로 사신을 명나라에 파견해 그 승인을 구하고 국호를 택해줄 것을 청했다. 이듬해 2월에 말 9,800필을 보냈고, 5월에 또다시 말과 방물을 헌상하는 동시에 고려의 금인(金印)을 바치고 이름을 다시 정해줄 것을 청했다. 그러자 같은 달 명나라는 요동도독휘사(遼東都督揮使)의 상주(上奏)로 흠차내사(欽差內史) 황영희(黃永喜)와 최연(崔淵)을 보내 조선이 금은과 비단으로 명나라의 변장(邊將)을 꾀고, 또 여진을 끌어들이어 압록강을 건너 침범한 죄를 물었다. 또한 공마(貢馬)가 느리고 둔해 거의 탈 수 없다며 이는 상국(上國)을 모욕할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따졌다. 태조는 곧바로 중추원 학사 남재(南在)를 명나라에 파견해 표(表)를 올리고 그 무망(誣妄)함을 변명하도록 했으나 명나라는 요동도지휘사사에게 명해 변방을 굳게 닫고 조선의 사신을 거절했다. 또한 조선 백성이 호시(互市)를 위해 강을 건너 국경을 침범하는 것을 금지하

자, 태조는 또다시 중추원부사 이지래(李至賚)를 보내 여진족 남녀 400여 명을 압송하고 조로(朝路)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명사(明史)』 조선전, 『황명실록』 홍무(洪武) 26년·27년, 『태조실록』 2년 5월·6월·7월·8월). 이듬해 5월 명나라는 또다시 황영기를 파견해 태조에게 전하길, 그의 아들을 보내 친히 무망을 변명할 것을 명했다. 태조는 곧바로 정안군 방원으로 하여금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조반,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남재와 함께 표전(表箋)을 들고 명나라에 가도록 했다. 명 태조는 방원을 몇 번 만난 뒤 마침내 마음을 풀고 예우하고 돌려보냈고 이어서 요동도지휘사사에게 명하여 조빙(朝聘)의 길을 열도록 했다(『태조실록』 3년 5월·6월, 『국조보감』 1권).

4년 10월 태조는 대학사(大學士) 유구(柳珣)와 한성윤(漢城尹) 정신의(鄭臣義)를 새해 하례를 위한 하정사(賀正使)로 명나라에 파견했고, 또 예문춘추관 학사 정충(鄭攄) 등을 보내 고명인장(誥命印章)을 청했으나 명 태조는 하정의 표전에 경박한 문구가 있고 또 고명인장을 청하는 글에도 무례한 언사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신 유구와 정신의 및 정충을 억류해 돌려보내지 않고, 하정의 표문을 작성한 정도전을 압송하라고 명했다. 정도전은 병을 핑계로 가지 않았다. 예문춘추관 대학사 권근은 “표문(表文)의 작성은 신 또한 참가했습니다. 신은 정충과 이를 운색했고 정도전은 사실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충은 이미 명나라에 있으니 신 또한 당연히 가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태조는 한성윤 하륜을 계품사(啓稟使)로 하여 권근, 표문 작성자 우승지 정탁(鄭擢), 전문(箋文) 작성자 판전교사사(判典校寺事) 김약항(金若恒)을 명나라에 보냈다. 명나라는 얼마 뒤 유구와 정신의 등을 돌려보냈다. 그 이후 11월 권탁 역시 계품사 하륜과 함께 돌아왔으나 정충과 권근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했다. 권근은 예부에 가서 머리 숙여 사죄하며 말하길, “소국이 사대함에 있어서 표문이 아니면 마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 등은 해외에서 태어나 학문이 그 방면에 미치지 못하여 우리 왕의 충성을 명백하게 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실로 신의 죄입니다”라고 했다. 명 황제는 그 말을 듣고 납득한 뒤 시제를 주고 시를 짓도록 했다. 권근이 고시 18편을 올렸더니 황제가 크게 기뻐하고 수재라 칭하며 홀로 권근만을 돌려보냈다. 이로써 점차 일이 해결될 수 있었다(『태조실록』 4년 10월·11월, 5년 3월·7월·11월, 6년 3월, 『황명실록』 홍무 28년·29년·30년, 『국조보감』 1권,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 권근전(權近傳), 『필원잡기』).

태종이 즉위한 원년 5월, 명나라 혜제(惠帝)는 사신을 파견해 비로소 고명인장을 주었다. 이듬해 연왕(燕王)이 병사를 일으켜 도성을 함락한 뒤 스스로 혜제를 대신해 황제라 칭했는데, 그가 바로 명 성조(成祖)이다. 그해 8월 성조의 사자 도찰원 첨도어사(都察院僉都御史) 유사길(俞士吉) 등이 와서 정변을 알리고 등극의 조서(詔書)를 전했다. 좌정승 하륜, 지의정부사 이첨(李詹), 참찬의정부사 조박(趙璞) 등이 논의해 말하길, “천자는

이미 천하와 함께 바뀌었습니다. 우리 왕의 작명인장(爵命印章) 또한 옛 것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고 했다. 그리고 하륜 등을 파견해 이를 청했는데, 성조는 좌통정 조거임(趙居任), 도지휘 고득(高得) 등을 보내 고명인장을 주었다. 때는 태종 3년 4월이다(『황명실록』 영락 2년, 『태종실록』 원년 6월, 2년 10월, 3년 4월, 『국조보감』 1권).

이에 앞서 명나라가 여진을 꺾인 죄를 조선에 묻고 흠차내사 황영기 등을 보내 해악산천(海嶽山川) 등의 신에게 제를 올리도록 했다. 왕의 죄를 신전에 알렸는데 그 축문에 태조를 고려의 신 이인임의 후계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태조는 곧바로 주본(奏本)을 지어 자신의 가계를 밝혔다. 사자에게 건네고 그 무망함을 변명하도록 했는데, 훗날 태종 3년 정월 참찬의정부사 장온(張溫)이 명나라에서 돌아와 말하길, 명 태조의 유훈 글에는 여전히 조선 국왕을 이인임의 후계로 보는 글귀가 있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자 태종은 사평좌사 이빈, 여원군(驪原君) 민무휼(閔無恤)을 명나라에 파견해 종계(宗系)를 변명하는 주본 한 부를 전하고 또다시 자신의 가계를 밝혔다. 그리고 이인임의 계보를 말하고 전혀 관련이 없음을 변명하며 종계의 수정을 청했다. 명나라는 이를 허용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희망을 달성하지는 못했다(『태조실록』 2년 6월, 『태종실록』 3년 11월).

다음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보도록 하자. 고려 말기에 일본 서국(西國)의 변민(邊民)들은 조선 반도의 연해(沿海)주군을 약탈하고 기세가 창궐(猖獗)했다. 고려는 이를 제압하지 못했다. 사신을 일본에 파견해 해구의 금알(禁遏)을 청했다. 이씨 대에 들어서 침입과 약탈은 점차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변경(邊警)은 여전히 빈번히 놀라게 되었고 결국에는 태조로 하여금 “국가의 우환이 왜구보다 심한 것이 없다”라고 탄식하게 하였다. 이 때문인지 태조는 한편으로 군비를 정비하고 해안 방어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교린(交隣)의 국시를 정하여 일본의 대표 정부인 아시카가(足利) 막부는 물론 각지의 제후와 호족과도 수호를 맺었다. 교빙(交聘)의 예가 매우 두터웠다.

일본 규슈(九州)의 탐제(探題)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 스오우(周防)의 수호(守護) 오우치 요시히로(大內義弘) 등은 이미 고려 말기부터 교통 길을 열었다. 사빙(使聘)을 통해 왔는데, 태조가 즉위하게 되면서 3년 5월 회례사(回禮使) 김거원(金巨原)은 승려 범명(梵明)과 포로로 잡혀 있던 남녀 659명을 데리고 일본에서 돌아갔다(김거원이 조선을 출발한 시기는 분명치 않다). 7월 이마가와 료순은 또다시 사신을 보내 내빙(來聘)했는데, 태조는 전 공조전서(工曹典書) 최용(崔龍)을 회례사로 임명해 일본 태재부(太宰府)에 보냈다. 오우치 요시히로 또한 종종 사신을 파견해 토산물 등을 바치고 금구(禁寇)의 뜻을 전했는데, 이에 대한 응답으로 6년 12월 태조는 전 비서감(秘書監) 박돈지(朴惇之)를 회

레사로 임명해 오우치에게 파견했고, 또한 막부에 빙례(聘禮)를 했다. 당시 막부에서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는 머리를 깎고 도의(道義)라 칭하며 자리를 아들 요시모치(義持)에게 물려주었지만, 여전히 직접 정무를 보고 있었다. 조선의 많은 선물과 예가 지극함을 기뻐하고 특별히 사신을 파견해 방물을 보내는 동시에 포로 남녀 100여 명을 송환했다. 때는 정종 원년 6월이다(『태조실록』 3년 6월, 동 6년 12월, 『선린국보기(善隣國寶記)』, 『정종실록』 원년 6월).

태종이 즉위 5년, 일본 막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선물을 전달하고 해구가 진정되었음을 알렸다. 이에 앞서 아시카가 요시미쓰는 외국과 교통을 통한 이익을 깨닫고 명나라와 수호관계를 맺고 오에이(應永) 9년(태종 2년), 그 부탁에 응해 해구를 단속하라는 명을 서해의 제후들에게 내렸다. 그리고 포로를 명나라에 보냈고, 또한 사신을 조선에 보내 해구의 진압을 알렸다. 태종은 곧바로 검교공조참의(檢校工曹參議) 윤명여(尹銘如)를 보빙(報聘) 사신으로 임명해 해구 금지에 감사한다는 뜻을 전하도록 했다. 오에이 15년(태종 8년)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사망하자 이듬해 6월 장군 아시카가 요시모치는 관령(管領) 시바 요시마사(斯波義將)에게 명해 서신을 보내 부친 요시미쓰의 사망을 알리고 계속 선린우호의 관계를 유지할 것을 알리도록 했고, 요시마사는 대장경을 사여(賜與)해 줄 것을 청했다. 태종은 이듬해 2월 전 해주의 목사(牧使) 양수(梁需)를 일본에 파견하여 요시미쓰를 조문하도록 했는데, 양수는 떠나는 길에 해구를 만나 겨우 몸만 빠져나와 일본에 도착할 수 있었다(『태종실록』 5년 6월·12월, 6년 2월, 9년 8월, 10년 2월, 11년 정월, 『명사』 일본전, 『선린국보기』, 『살번구기(薩藩舊記)』, 『도진문서(島津文書)』, 『진서요략(鎭西要略)』).

당시 아시카가 막부가 조선에 사절단을 보내는 목적은 주로 대장경을 얻기 위함이었는 데, 사절단이 조선에 도착하면 대개 그 사여를 청하는 것이 중대사였다(막부의 사절은 대개 승려). 그리고 일본 제후들 중에도 이와 동일한 목적 및 무역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조선에 수호를 맺기를 청하여 교통의 길을 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이마가와(今川)와 오우치(大内) 두 명으로, 그 외에는 규슈의 탐제 시부카와 미쓰요리(澁川滿頼, 오에이 3년 4월, 이마가와 료순을 대신해 규슈 탐제가 되어 머리를 깎고 도진(道鎭)이라 칭했다. 태조 6년 6월 처음으로 사절을 보내 수호 관계를 맺음) 및 지쿠젠(筑前)의 쇼니(少貳), 사쓰마(薩摩)의 시마즈(島津) 등이 있다. 오우치는 이미 고려 말기부터 조선과의 교통 길을 열었고, 이씨조선에 들어서서는 특히 종종 사신을 보내 친교를 맺었고, 조선 역시 오우치 요시히로가 규슈를 평정하고 해구를 소탕한 일을 덕(德)으로 보고 이를 매우 대우했다. 정종 원년 7월 요시히로는 사절을 보내 자신의 가계가 백제에서 온 것을 말하고 그 땅을 하사해줄 것을 청했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하던 중 아시

카가에 대항하다 결국 사카이(堺)에서 전사했으나 양국의 교통은 여전히 끊이지 않았다. 요시히로의 손자 모리하루(盛見, 법호는 德雄)는 태종 9년에 승려 슈테이(周鼎) 등을 파견해 대장경을 청하고 이듬해 청량소(淸涼疏) 초록을 청구했다(『정종실록』 원년 6월·7월, 『태종실록』 7년 8월, 『응영기총림문집(應永記叢林文集)』). 그 밖에 시부카와 미쓰요리 및 쇼니, 시마즈 등의 제후들은 종종 사절을 파견해 빙례를 하고 토산물을 바쳤다(『태조실록』, 『태종실록』).

태조 원년 7월 류큐왕(琉球王) 샷토(察度) 역시 사절을 파견해 수호를 맺었다. 샷토가 조선과 처음으로 교통을 연 것은 고려의 폐왕 창(昌) 원년 8월이다. 해구에게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송환하고 방물을 바쳤다. 창은 곧바로 전객령(典客令) 김원후(金元厚)와 부령(副令) 김인용(金仁用)을 보내 보빙하도록 했는데, 그러자 샷토 역시 사절을 파견했다. 그 이후 거의 잇달아 파견했다. 하지만 류큐는 길이 멀 뿐만 아니라 수로에 익숙한 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본의 상인이나 승려 중 국내에 있는 자를 사신으로 삼았다(샷토의 아들 부네이(武寧) 시대에 이르러 명나라는 책봉사를 파견해 중산국왕(中山國王)으로 했다)(『태조실록』, 『태종실록』,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

제2장 수성(守成)

제1절 세종, 세조 즉위의 사정

태종 재위 18년에 왕위를 세자 도(禔)에게 물려주었지만, 여전히 친히 병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처음 태종은 장자 제(禔)를 세워 세자로 삼았으나 창광방종(猖狂放縱)하여 학업에 열중하지 않고 오로지 성색(聲色)에 빠져 사냥을 일로 삼았다. 태종은 이를 우려하고 결국 세자를 폐할 뜻을 품었다. 18년 6월 신하들이 세자의 실덕(失德)을 논하고 모두 그를 폐하라고 청하자 태종을 이를 받아들여 신하들에게 다시 현자를 택해 물었다. 모두 간택은 그야말로 태종의 마음에 있다고 했다. 태종은 셋째 아들 충녕군(忠寧君) 도를 세워 세자로 삼았고 제를 광주(廣州)로 보내 양녕대군(讓寧大君)으로 했는데, 왕위는 도에게 물려주었다. 그가 바로 세종이다. 또는 다음과 같은 설도 있다. 양녕군은 이미 도가 현명하여 태종이 마음에 두고 있음을 알고는 일부러 미치광이처럼 행동하여 양보했다고 한다. 또 어릴 적부터 글을 잘 했지만 일부러 서책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 결국 태종도 이를 몰랐다고 한다(『국조보감』 5권, 『자해필담(紫海筆談)』).

세종은 재위 32년으로 사망했고 세자 향(瑄)이 즉위했다. 그가 바로 문종(文宗)이다. 문종은 재위 2년 만에 사망해 세자 홍위(弘暉)가 왕위에 올랐다. 이를 단종(端宗)이라 한다. 나이는 불과 12살. 영의정 황보인(皇甫仁)·좌의정 남지(南智)·우의정 김종서(金宗

瑞) 등은 문종의 고명에 따라 어린 주상을 보필했고, 집현전 학사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 등도 세종의 부탁에 따라 좌우에서 도왔다. 당시 왕의 숙부 7명은 모두 대군으로 봉해져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 모두 앞을 다투며 인재를 모으고 빈객을 초대했다. 안평대군(安平大君) 용(瑢, 세종의 셋째 아들)은 학문을 좋아하고 서화를 잘 그렸으며 또 시문에 능했기 때문에 문인 등의 인재들이 용에게 모였다. 수양대군(首陽大君) 유(瑠)는 은밀히 큰 뜻을 품고 인재를 찾았다. 안동 사람 권람(權擘)이 유에게 말하길, “능히 장사(壯士)의 사생을 맡길 수 있을 만한 2, 3명을 얻어 예기치 못한 사태(倉卒)에 대비해야 합니다”라며 청주의 한명회(韓明會)를 추천했다. 한명회는 “세도가 바뀔 때에는 문인은 쓸모가 없고, 무사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라며 홍달손(洪達孫)·양정(楊汀)·유수(柳洙) 등 30여 명을 추천했다(『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紀略)』, 『단종실록(端宗實錄)』, 『동각잡기(東閣雜記)』, 『야언별집(野言別集)』(『연어실기술』 인용)).

때는 황보인과 남지 및 김종서의 시대였다. 나중에 남지는 병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좌찬성 정분(鄭筭)이 이어받았다. 우의정 김종서는 지용이 가장 뛰어나 사람들은 그를 대호(大虎)라 불렀다. 유는 먼저 그를 제거하기 위해 한명회와 권람 등과 논의해 김종서가 가장 영악하니 먼저 그를 제거하면 나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직접 무사를 이끌고 김종서의 집에 가서 날이 저물기를 기다려 죽였다. 왕은 궁을 나와 향교동(鄕校洞)의 영양위(寧陽尉) 정종(鄭宗)이 있는 곳에 머물고 있었다. 유는 군사들을 이끌고 그곳에 가서 김종서가 모반을 꾸몄고, 일이 너무 급한 사안이라 왕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주살했다고 했다. 승지 최항 등은 문을 열고 마중을 나와 가마를 붙잡고 함께 들어갔다. 왕은 놀라 일어나 말하길, “숙부 나를 살려주소.” 유는 “신은 마땅히 그들을 처단해야 합니다”라며 명패(命牌)를 내어 여러 재상들을 불렀다. 미리 한명회로 하여금 살생부를 들고 문안에서 기다리게 한 뒤 명부에 있는 인물들은 모조리 무사들이 참살하도록 했다. 황보인과 병조판서 조극관(趙克寬), 찬성(贊成) 이양(李穰) 등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좌의정 정분과 조극관의 동생 조수량(趙遂良) 등은 모두 귀양을 보낸 뒤 이 역시 죽었다. 그리고 병조판서 정인지(鄭麟趾)는 권람으로 하여금 이진(李進), 최항 등과 교서를 작성케 하여 “간신 황보인과 김종서 등은 안평대군과 결탁하여 널리 친당을 만들고 은밀히 결사대를 양성해 불귀한 짓을 도모하려 한다. 지금 간당(姦黨)은 이미 쓰러졌고, 지친(至親)을 법에 따라 다스릴 수는 없으니 이를 밖에 안치한다.” 즉 용을 강화에 유배 보낸 뒤 정인지의 주장으로 사사(賜死)했다(『동각잡기』, 『단종실록』, 『야언별집』).

같은 해 함길도의 도절제사(都節制使) 이정옥(李澄玉)이 반란을 일으켜 주살되었다. 이정옥은 양산 사람으로 무용(武勇)이 매우 출중하고 북변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 김종서가 도절제사로 있을 때 그를 귀하게 여겨 자신의 뒤를 잇게 했다. 김종서를 죽인 후

유는 은밀히 박호문(朴好問)을 새 도절제사로 보냈다. 이징옥은 이에 반발하고 결국 박호문을 죽이고는 스스로 대금황제(大金皇帝)라 칭했는데, 종성절제사(鐘城節制使) 정종(鄭種)과 호군(護軍) 이행검(李行儉) 등에게 주살되었다(『배계기문』, 『북관개창』(『연려실기술』 인용)).

수양대군 유는 이미 김종서 등을 죽였다. 영의정부사 판리병조 겸 내외병마도총사에 봉해져 군국(軍國)의 중대사는 모두 그의 손에 결정되었다. 그리고 정인지를 좌의정으로, 한확(韓確)을 우의정으로 했다. 여기에 이르러 백관은 유의 공을 칭송하고 주공(周公)에 비유하며 집현전으로 하여금 교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학사들은 도망간 상태였다. 유성원(柳誠源)은 도망가지 못하고 남아 있었는데, 그를 협박해 결국 이를 작성케 했다고 한다(『동각잡기』). 이로써 유는 정인지와 한확 등 36명과 정난(靖難)의 공으로 인해 그 위세는 날로 커져갔다. 3년 윤 6월에 왕은 환관 전조(田鈞)로 하여금 명을 우의정 한확 등에게 전하도록 했는데, “나는 어려서 중외의 일을 모르니, 이제 장차 대임을 영의정에게 맡기려 한다”고 했다. 한확 등은 놀라 “지금 영상은 중외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데 다시 무슨 대임을 맡긴다는 말입니까?”라고 물으니, 왕은 “내가 이런 뜻을 품은 지는 오래되었네. 이미 결정했으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유를 불러 친히 대보(大寶)를 집어 그에게 건넸다. 유는 사양했지만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마침내 이를 받아들였는데, 그가 바로 세조(世祖)이다. 그는 왕을 존중하여 상왕으로서 창덕궁에 기거하도록 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설도 있다. 즉 왕이 왕위를 물려준(遜位) 것은 모신 권람에 의해 계획되고 대신 정인지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동각잡기』, 『세조실록(世祖實錄)』 1권, 『추강집(秋江集)』(『연려실기술』 인용)).

상왕이 왕위를 물려줄 때 성삼문은 예방승지(禮房承旨)였다. 왕이 명하여 옥쇄를 가져오도록 했다. 성삼문은 옥쇄를 가져와 경희루 아래에서 받들고 있다가 옥쇄를 안고 그만 통곡하고 말았다. 그리고 결국 형조참판 박팽년, 직제학(直提學) 이개(李塏), 예조참판 하위지, 사예(司藝) 유성원 및 무인 유응부(兪應孚) 등과 결탁해 은밀히 상왕을 복위시킬 계획을 세운다. 마침 명나라 사신이 와서 세조는 창덕궁에서 연회를 열 생각이었다. 성삼문 등은 이 날을 거사의 날로 잡고 있었지만 기회가 오지 않아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동지인 김질(金質)이 거사가 계획대로 풀리지 않자 마음을 바꾸어 은밀히 장인 정창손(鄭昌孫)과 짜고 대궐로 달려가 변을 알렸다. 세조는 곧바로 성삼문 등을 붙잡아 직접 모반을 계획한 연유를 물었다. 성삼문 등은 “우리는 옛 주인을 복위하려고 한 것일 뿐, 그 누구도 이를 모반이라 하지 않소. 이는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오”라고 했다. 참형으로 국문했으나 굴하지 않고 항변했다. 결국 모두 참수되었고 다만 유성원은 집에서 자살했다(『세조실록』 1권, 『동각잡기』, 『문신전(文臣傳)』(『명신언행록(名臣言行錄)』

인용), 『추강집』(『연려실기술』 인용).

세조는 여섯 명의 신하를 죽인 뒤 “일전에 성삼문 등을 국문하니 모두 상왕도 함께 모의했다고 말했다”는 교지를 내렸다. 그러자 종친 백관들이 합사하여 “상왕이 종묘사직에 죄를 지었다”고 하니 “내 어찌 사사로운 은혜로 대법을 굽힐 수 있단 말인가”라며 상왕을 강봉(降封)하여 노산군(魯山君)으로 하고 영월(강원도)로 보냈다. 또 상왕의 모친 현덕왕후(顯德王后)를 폐서인했다(『김석일반(金石一斑)』, 『노릉지(魯陵誌)』(두 권 모두 『연려실기술』 인용)).

이에 앞서 상왕은 창덕궁을 나와 금성대군(錦城大君) 유(瑜)의 집에 있었는데, 유 역시 연루되어 순흥(順興, 경상북도)에 유배되었다. 그곳에서 순흥부사 이보흠(李甫欽)과 자주 얘기를 나누고 분개하다가 결국 남중(南中)의 선비들과 결탁해 노산군의 복위를 계획하고 이보흠에게 격문을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 계획을 몰래 들은 사람이 격문을 훔쳐 달아나 결국 발각되고 말았다. 유와 이보흠은 이로 인해 죽었고 남중의 선비들 역시 대부분 주살당했다. 그러자 영의정 정인지, 좌의정 정창손, 이조판서 한명회, 좌찬성사 신숙주(申叔舟) 등은 교대로 아뢰어 노산군의 죄를 언급하며 전형(典刑)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청했다. 세조는 처음에는 이를 듣지 않았지만 결국 윤허하고 사사했다. 때는 2년 10월 24일이다(『세조실록』 2년, 『음애일기(陰涯日記)』, 『병자록(丙子錄)』(『연려실기술』 인용)). 김시습(金時習)·조려(趙旅)·원호(元昊)·이맹전(李孟專)·성담수(成聃壽)·남효온(南孝溫) 등은 이 사실을 듣고 벼슬을 버리고 재야에 숨어 살았다. 세상은 이들을 생육신(生六臣)이라 부른다. 훗날 숙종(肅宗) 때에 이르러 노산군이 복위되자 묘호를 단종으로 하고 성삼문 등 사육신의 관작(官爵)을 회복시켜 그 절개를 기렸다. 정조 때에 생육신 또한 이조판서로 추대되었고 각자 시호를 받았다(『연려실기술』, 『대사편년(大事編年)』).

제2절 세종, 세조 및 성종의 내치

세종은 현명하여 뜻을 정치에 두었다. 즉위 초기에 가뭄과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자주 일어나 흉년이 이어졌다. 왕은 세심하게 백성을 구할 방도를 강구하고 백성들을 구휼하라는 교지를 내려 각지의 수령들을 다그치고 주야로 마음을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일에 쏟으며 이를 게을리하지 않았더니, 마침내 백성들은 큰 기아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춘과당일월록(春坡堂日月錄)』 2권). 7년 영의정부사 유정현(柳廷顯)과 예조판서 허조(許調) 등의 말을 듣고 관리 구임법(久任法)을 만들자 모두 놀라 그 불편을 아뢰었지만 듣지 않았다. 8년 처음으로 백관의 윤대(輪對)를 명했고, 또 육전등록(六典騰錄)을 만들었다. 20년 교지를 내려 “우리나라는 과거로 인재를 뽑지만 덕행 천거의 법이

없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만약 덕행이 뛰어나고 재예(才藝)가 특히 민을 만한 이들이 있다면 모든 도관찰사는 그들을 찾아내도록 하라”고 했다. 즉 도천법(道薦法)을 시행했다. 21년 녹봉(봉급 제도)을 정해 백관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과로 나누어 품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쌀·콩·보리·주포·저화 등으로 춘하추동 사계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했다(『춘파당일월록』 2·3권, 『조야회통』 1권, 『문헌비고』 2·3·7권). 왕은 농정(農政)을 중시하여 종종 관농(觀農)의 교지를 내려 각 도의 수령들을 다그쳤는데, 11년 각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농예(農藝)에 관한 노농(老農)들의 체험을 묻도록 했고, 아울러 총제 정초(鄭弔)에게 명해 이를 정리하게 함으로써 『농사직설(農事直說)』을 편찬하도록 한 뒤 이를 나라 안팎에 나누어주었다. 19년에는 공부법(貢賦法), 26년에는 전제(田制)를 정했고, 30년에는 팔도의 전품(田品)을 고쳤으며 대신들을 관찰사로 임명했다(『국조보감』 6권, 『문헌비고』 제141, 동 148). 왕은 또한 형옥을 걱정했다. 일찍이 “청옥(聽獄)의 법은 당연히 허심청문(虛心淸問)이어야 한다. 사죄(死罪)를 물을 때는 곧 살릴 방도를 찾고, 중죄를 물을 때는 곧 가볍게 할 진실을 찾아야 한다. 인정으로 죄를 다스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잃는 것이 있다. 하물며 마음의 참과 거짓을 살피지 못하고 위협으로 다스릴 경우에는 오죽하겠는가. 그리하여 무죄인 사람을 극형에 처하게 한다”라고 했다. 또한 “옥은 유죄를 별하는 곳이지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최치운(崔致雲)에게 무원록(無冤錄)의 해주를 달도록 했고 율문(律文)을 강해하도록 했다. 8년에는 의금부에서 주살을 가며 행하는 폐해가 있음을 보고 의금부 삼복법(三覆法)을 정했다. 12년에는 태배형(笞背刑)을 금지했고, 또 노인과 어린아이의 금신(禁身)을 없앴다(『국조보감』 5·6권, 『춘파당일월록』 2권, 『국조명신록(國朝名臣錄)』 최치운(崔致雲), 『조야첩재』 2권). 26년에는 노비 구살(毆殺)에 관한 형을 정해 “나라의 풍속에 상하의 구분이 엄격하니, 노비가 죄를 지어 그 주인이 죽이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고 모두 그 주인을 치켜세우고 노비를 억누른다. 노비가 비록 천하긴 하나 이 또한 하늘의 백성(天民)이니 어찌 함부로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앞으로 노비가 죄를 지어도 관에 알리지 않고 구살하는 자는 모두 옛 사례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국조보감』 7권).

세종이 마음을 정치에 두고 이와 같이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지만, 가장 힘을 쏟은 것은 문교(文教)에 있다. 왕은 학문을 좋아하여 즉위 2년 집현전을 설치해 문학의 인재들을 여기에 두었고 또 장서각을 그 북쪽에 세웠지만, 여전히 그들이 마음을 강학에 전념하지 못함을 걱정하여 재능 있는 젊은이 몇 명을 골라 긴 휴가를 준 뒤 모두 산에 올라 책을 읽도록 했다(『조야회통』 4권, 『필원잡기』). 한편으로 왕은 학사(學事)를 장려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신하들에게 명해 각종 서책을 편찬하도록 했다. 『효행록』, 『오례의』, 『자치통감훈의』, 『치평요람』, 『용비어천가』, 『고려사』 등이 유명한데, 조선의 문

화사에 있어 가장 주의할 것은 언문(諺文)의 제작이다. 25년 처음으로 궁궐 안에 국(局)을 열어, 28년에 비로소 완성되었다(『국조보감』 7권, 『조야회통』 4권).

또한 왕은 음률과 역상(曆象)에 관한 학문에 깊은 관심을 쏟아 세종 15년에 처음으로 조제(朝祭)에 아악(雅樂)을 사용했고 대제학 박연(朴堧)에게 명하여 신경(新磬)을 만들도록 했다. 20년에는 대제학 정근(鄭根), 제학 정인지(鄭仁趾) 등에게 명하여 대간의(大簡儀)·소간의(小簡儀)·혼의(渾儀)·혼상(渾象)·양부일구(仰釜日晷)·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자격루(自擊漏) 등의 기기를 만들었는데, 모두 왕의 의장(意匠)에서 나온 것으로 정교하기 그지없다고 한다. 24년에는 측우기(測雨器)를 제작해 각 도에 나누어 주었고, 역관(曆官)을 마이산(강화도)·백두산·한라산(제주도) 등에 파견해 북극의 고도를 측정했다(『국조보감』 7권, 『문헌비고』 2권). 조선 문화에 있어서 왕의 공로는 대개 이와 같다.

세조도 단종에 이어 왕위에 오르자 경국에 큰 뜻을 두었다. 민정을 살피고 형욕을 피하며 인재를 등용했다. 즉위 원년 잠실(蠶室)을 설치해 비와 세자빈으로 하여금 양잠을 하도록 하고, 세조 3년에 상평창법(常平倉法)을 실시했고 4년에는 『잠서주해』를 편찬했다. 5년에는 서방을 순시하고 민간의 질고를 살폈으며, 7년에는 양전(量田)을 실시했다. 11년에는 발영시(拔英試)와 등준시(登俊試)를 두고 친히 뛰어난 인재를 등용했다(『조야회통』 4권, 『문헌비고』 147, 동 186, 『정사촬요(政事撮要)』 1권).

왕은 또한 마음을 문교에 두고 시간이 있을 때는 선비들과 학문을 논하고 도를 논했다. 일찍이 동방학자의 어음이 바르지 않고 구두(句讀)가 분명치 않음을 걱정하여 뛰어난 학식과 명망 있는 선비들에게 명하여 『사서오경구결(四書五經口訣)』을 만들도록 했다. 또한 직접 『역학계몽요해(易學啓蒙要解)』를 저술했으며, 아울러 선비들에게 명하여 그 보해(補解)를 만들도록 했다. 그 밖에 『국조보감』, 『동국통감』 같은 것 그리고 『경국대전』의 찬수는 비록 후대에 완성되기는 했지만 편찬은 왕의 치세 중에 시작된 것이다. 12년에 왕은 세종의 영향을 받아 친히 규형(窺衡) 및 인지의(印地儀)를 제작해 땅의 원근을 측정했다. 왕은 또한 불전에 정통했는데, 즉위 7년에 간경도감(刊經都監)을 설치해 불경을 번역해 간행하도록 했다. 9년에는 원통사(圓通寺)를 도성 안에 지었고, 또 원각사(圓覺寺)를 창건했다(『국조보감』 7권, 『조야회통』 7권, 『조야침재』 4권, 『연려실기술』 5).

세조는 천부적으로 호탕하고 뛰어난 인품을 갖고 있고 활쏘기를 좋아했으며, 또 병서에 밝았다. 세종 27년 왕명을 받아 집현전 유신(儒臣)과 『역대병요(歷代兵要)』를 만들었고, 또 문종 때에 명에 의해 『오위진법(五衛陣法)』을 편찬하기도 했다(『국조보감』 10권, 『문헌비고』 115권, 『연려실기술』 별집 14권). 세조 3년에는 나라 안팎의 군사(軍士)를 모아 병사를 교외에서 열병했고, 4년에는 진법을 후원(後苑)에서 익히도록 했으며, 또한

『병정(兵政)』(진법에 관한 책)을 편찬했다. 9년에는 삼갑전법(三甲戰法)을 반포했고, 10년에는 친히 『병서대지(兵書大旨)』를 제작했다. 그 밖에도 오위도총부를 세워 오로지 군무를 맡겼고, 발병부(發兵符)를 만들어 각 도의 관찰사 및 절제사에게 보냈으며, 또 무신을 불러 활쏘기를 시킨 뒤 뛰어난 자에게는 파격적인 직위를 주었다. 또한 어찬(御饌)을 하사하여 상을 주는 등 균비를 확충하는 일에 큰 힘을 쏟음으로써 무위는 날로 치솟아, 12년 이시애(李施愛)가 길주에서 모반을 일으켰으나 곧바로 진압할 수 있었다(『조야첨재』 4권, 『문헌비고』 109권, 동 112권, 동 113권, 『조야회통』 7권).

이시애는 길주(함경도) 사람으로 회령부사(會寧府使)였는데, 상을 당하고 잠시 집에 머무르면서 은밀히 다른 뜻을 품게 되었다. 12년 5월 이시애의 아우 이시함(李施合)과 공모하여 병사(兵使) 강효문(康孝文)과 목사(牧使) 허징(許澄)을 죽이고 마침내 난을 일으켰다. 함흥이북의 여러 지역이 이에 호응하여 각지의 수령을 죽이고 합세했다. 관찰사 신면(申旻)이 대항해 싸웠지만 이기지 못하자 활을 꺾고는 크게 적(賊)을 꾸짖고 죽였다. 적의 기세가 너무 대단해서 온 나라가 두려워했다. 왕은 곧바로 허종(許宗)을 절도사로 임명하여 회령부사 어유소(魚有沼), 절제사 강순(康純) 등과 병사 수만 명을 이끌고 먼저 공격하도록 했고, 이어서 귀성군(龜城君) 준(浚)을 함길·강원·평안·황해 4도의 도총사로 임명해 10만 대군을 이끌고 출발하도록 했다. 허종 등은 진격해 홍원과 북청 등지에서 싸우다가 만령(蔓嶺, 함경남도 이원군)에서 적을 크게 무찔렀다. 이시애는 길주로 달아나 야인들 속으로 숨으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붙잡혀 군전(軍前)에서 참수당했다. 당시 도성 안에서는 한명회와 신숙주 등이 이시애와 내통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는데, 왕은 곧바로 한명회 등을 붙잡아 의금부에 가두었지만 모두 곧 풀려났다(『동각잡기』, 『조야회통』 7권).

세조의 아들 예종(睿宗)은 재위 기간 불과 1년 만에 사망했다. 후계가 아직 어려서 왕위를 물려받을 수 없었다. 세조의 비 정희왕후(貞熹王后) 윤씨는 뜻을 성종(成宗)에 두었는데, 형 월산군(月山君) 정(婷)을 버리고 그를 세웠다. 나이 13세였다. 윤씨의 수렴청정은 성종 7년에 이르러 익명서를 승정원에 붙여 대비의 수렴청정의 폐를 지적한 자가 있자 윤씨는 수렴청정을 끝내고 왕권을 왕에게 돌려주었다(『국조보감』 16권, 『조야첨재』 4권).

성종은 총명하여 학문을 좋아하고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경사(經史)와 백가(百家)에 정통했으며 성리학에 심취했다. 사예(射藝)와 서화에도 능통했다고 한다. 즉위 초기 집현전의 구제(舊制)에 따라 홍문관을 열고 독서당을 용산강(龍山江)에 설치해 젊은 문신들로 하여금 휴가를 주어 독서를 할 수 있게끔 했다. 5년 존경각(尊經閣)을 만들어 수많은 경서를 소장하게 했으며, 15년 대학 및 향학에는 논밭을 내렸고, 20년에는 향학

에 서적이 많지 않음을 걱정해 사서오경 및 여러 역사서를 찍어 각 도에 나누어 주었다. 또한 왕은 신하들에게 명해 수많은 서적을 편찬하도록 했다. 그 중에서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동문선(東文選)』 등은 가장 유명한 것들이다. 그리고 『경국대전』 또한 성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배포되었고, 왕은 별도로 광천군(廣川君) 이극중(李克增), 찬성(贊成) 어세겸(魚世謙) 등에게 『대전속록(大典續錄)』을 편찬하도록 하고 24년에 이를 나라 안팎에 나누어 주었다(『조야첨재』 4권, 동 5권, 『일월록』 3권, 『조야회통』 2권).

왕은 또한 뜻을 민치에 두고 친히 적전(籍田)을 경작하고, 형옥을 보살폈다. 사람을 쓰는 데 참으로 성의를 다하고 재능이 있는 자라면 파격적으로 등용하여 중직을 맡겼다. 때문에 한때 인재들을 대거 배출했고 그런 상황은 세종의 대를 잇는 것이라 했다(『국조보감』 5권, 『오산설림(五山說林)』(『연려실기술』 인용)). 성종은 술을 매우 즐겨 마셔서 큰 술잔을 기울였다. 종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간소한 연회를 열어 기악(伎樂)을 베풀었다. 또한 문인들을 모아 같이 마시고 중양절(重陽節)에는 명하여 교외에 놀러나가 주락(酒樂)을 베풀었다. 일찍이 성균관에 포 500필, 쌀 300여 석을 하사했는데, 광천군 이극중이 아뢰길 “지금 성은을 입어 많은 쌀과 포를 받았으니, 청하건대 술과 음식을 마련해 조중(朝中)의 문사들을 불러 그 문(文)의 성사(盛事)를 이루게 하소서”라고 했다. 24년 가을 성균관에 가서 선성(先聖)·선사(先師)를 기렸고, 돌아와 장전(帳殿)에 갔다. 문신과 재추(宰樞) 이하 모두 그 곁에 앉았고 팔도의 유생들이 도성에 운집하니 그 수가 1만여 명이었고, 상하 모두 꽃을 꺾고 연회에 참석하여 마음껏 마셨다고 한다. 그 태평성대의 모습은 충분히 상상할 만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하 모두 놀이에 빠져 기강이 문란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당시 두 명의 재상이 한 명의 기녀를 놓고 서로 쟁탈전을 벌였는데, 언관은 이를 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아뢰었지만, 왕은 사대부가 서로 처와 첩을 훔치는 것은 바로 나라가 쇠퇴했을 때의 일이지만 자신은 지금 세상이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고는 여기지 않는다면, 결국 죄를 묻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왕의 성품이 너그러운 데서 나오는 폐해였고, 당시 뇌물을 주는 풍조도 만연했다고 한다. 그리고 왕의 후궁 역시 몹시 복잡한 상태였는데, 11년 왕비 윤씨는 교만하고 시기한 죄로 인해 폐비가 된 뒤 사약을 받게 되었다. 윤씨는 폐주(廢主) 연산군의 생모로, 논자들은 후일 그가 연회에 빠져 살고 잔악한 살인을 마구 저지르게 되는 발단은 바로 여기서 나왔다고 한다(『오산설림』, 『전언왕행록(前言往行錄)』(『해동야언(海東野言)』 인용), 『용재총화』, 『송와잡기(松窩雜記)』(『연려실기술』 인용), 『한엄집(韓奄集)』, 『조야첨재』 5권).

제3절 대외관계 (1)

1. 대명관계

태종 이전 조선의 대명관계는 앞 장에서 이미 논했다. 태종 이후에도 명나라에 대해서는 국가의 초기 방침에 따라 사대의 예를 지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기에, 그 관계는 매우 원만했다. 명나라로부터는 3위(三位)를 경질할 때마다 사신을 파견해 인장고명을 받았고, 아래에 서술한 두세 가지 작은 사고 외에는 아무런 분쟁도 야기되지 않았다.

태종 9년 9월, 명나라의 성조(成祖)는 대감 황엄(黃儼)을 보내 비단을 내리고 처녀를 요구했다. 태종은 지의주사(知宜州事) 정원후(鄭元厚)의 여자를 골라 보냈으나, 그 이후에도 처녀를 계속 요구했고 처녀들 중에 후궁으로 들어가 비빈(妃嬪)이 된 이는 4명에 이르렀다. 명나라 영종(英宗)이 즉위하자 도성에 머물고 있는 조선 여인 53명을 모두 송환하라고 했다(『문헌비고』 174, 『교빙고명사(交聘考明史)』 32권 『조선열전(朝鮮列傳)』). 같은 해 태종은 설미수(契眉壽)를 명나라에 보내 예부에 부탁하길, 금은그릇의 세공(歲貢)을 면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왜냐하면 금은은 조선 본토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예부상서 조설(趙說)은 홍무(洪武)의 구제(舊制)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세종 11년 함녕군(咸寧君) 인(裒)을 보내 다시 한 번 간청하자 명나라 성조는 신하들에게 “조선은 저 멀리 떨어져(僻遠) 있어 조공의 사신을 빈번히 보내고 있다. 공물로 금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소국의 조변(措辦)하기 어려운 일일 테니 이제 그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며 칙서를 내려 “금은은 이 나라의 산물이 아니다. 지금부터 공헌(貢獻)은 오로지 토산물로 그 성의를 다하도록 하라”고 했다. 세종은 사신을 보내 표문을 바쳐 이에 감사를 표했다(『문헌비고』 174권 교빙의 부, 『황명실록』 선덕(宣德) 5년). 훗날 세조 때에 이르러 야인과의 관계로 인해 명나라의 질책을 받은 일이 있고, 세조 및 성종 때에 명 황제의 칙서를 받고 병사를 움직여 야인을 정벌한 적이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고 다음 절의 야인과의 관계에서 서술하도록 한다.

2. 대일관계

다음으로는 태종 이후의 조선의 대일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양국 정부 사이에는 빈번한 신사(信使)의 왕래가 있었다. 가령 아시카가(足利)의 본의(本意)는 대장경의 청구에 있었고, 조선의 진의는 이를 바탕으로 해구의 침략을 방지하려는 데 있었는데, 그 교류는 매우 평온하고 사절의 왕래도 빈번히 이루어졌다. 세종 4년 5월(일본의 오에이(應永) 2년)에는 장군 요시모치(義持)가 승려 규주(圭籌) 등을 파견해 선물을 건네고 대장경을 요구했는데, 세종은 박희중(朴熙中)을 회례사(回禮使), 이예(李藝)를 부사로 하여 일본에

보내 토의(土宜) 및 일절경(一功經)⁶³⁾을 막부에 주었다(『선린국실기(善隣國實記)』, 『간문일기(看聞日記)』, 『세종실록(世宗實錄)』 4년 12월). 이듬해 3월 요시모치는 머리를 깎고 도전(道詮)이라 칭하며 자리를 아들 요시카즈(義量)에게 물려주었다. 같은 해 7월 답신을 보내 조선이 요구하는 포로의 쇄환(刷還)을 허락하고, 아울러 또다시 승려 규주(圭籌)와 범령(梵齡)을 파견해 토의의 증답(贈答)을 보내고 대장경 판본을 청하도록 했다. 세종은 군신들과 만나 이를 논의했으나, 결국 대장경은 한 본뿐이어서 달리 나누어줄 것이 없으며 거절했고, 막부는 회신을 보내 이를 사양했다(『선린국실기』, 『겸선공기(兼宣公記)』(『후감(後鑑)』 인용), 『세종실록』 6년 정월·2월).

일본 쇼초(正長) 원년(세종 10년), 전 장군 요시모치가 사망하고 장군 요시카즈는 부친보다 일찍 죽어, 요시모치의 동생 요시노리(義教)가 자리를 물려받았다. 세종은 대사성(大司成) 박서생(朴瑞生)과 대호군(大護軍) 이예를 통신사로 임명해 신 장군의 취임을 축하했고, 전 장군에 대한 제를 올리도록 했다. 또 세종 21년(에이쿄(永享) 11년) 7월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고득중(高得宗) 및 상호군 윤인보(尹仁甫)를 파견해 선물을 건넸다. 당시 오우치(大內)는 쇼니(少貳)와 싸움을 벌여 규슈는 큰 혼란에 빠졌고, 히치쿠(肥筑)의 무사들은 쓰시마(對馬)로 달려간 뒤 바다를 건너 조선의 연안을 약탈했다. 신사(信使)는 곧바로 이를 막부에 호소했다. 장군 요시노리는 오우치와 쇼니에게 사신을 파견해 교지를 전달하고 서로 화해하도록 한 뒤 부하들을 잘 단속하라는 명을 내렸다(『족리관위기(足利官位記)』, 『건내기(建內記)』(두 권 모두 『후감』 인용), 『음량현일록(蔭涼軒日錄)』, 『세종실록』 10년 12월 및 21년 7월).

이때에 이르러 일본 제후들이 조선에 대해 우호관계를 맺는 경우가 더욱 증가하여 앞서 언급한 오우치·시부카와·시마즈를 비롯해 오토모(大友)·쇼니·기쿠치(菊地) 등의 거두는 물론, 그 밖의 소(小)제후들도 거의 매년 사신단의 배를 보냈다. 이리하여 이들 사신단 배가 왕래하자 막부의 사절은 말할 것도 없이 소제후의 사신 역시 모두 조선 정부의 접대와 과해량(過海糧)을 받았다. 접대는 사신의 조선 채류 중 그 일행을 모두 일수에 따라 식량을 받는 것을 말하고, 과해량이란 귀환할 때 그 원근에 따라 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식량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그 중에는 개인 상인의 흥판선(興販船)이 이들 제후의 이름을 모칭(冒稱)하고 사신단의 배라며 정부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는 접대의 번거로움과 국가 재정의 낭비로 어려움을 겪자 세종 20년 쓰시마의 소우(宗)와 논의를 하여 일본 정부 관령(管領), 무위(武衛) 및 오우치와 기쿠치 등과 같은 거두를 제외하고는, 제후의 사신이라 하더라도 소우의 문인(文引, 쓰시마 도주의 날인이 들어간 증명서)을 지니지 않은 자는 결코 접대하지 않고,

63) 불교에 관한 서적 일반적인 것으로, 대장경을 가리키기도 한다.

또 과해량도 종전의 예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의 임의로 하는 협정을 맺었다(『세종실록』 20년 4월·9월 및 21년 2월).

당시 쓰시마의 소우 및 그 밖의 제후들 중에는 조선으로부터 면서(呾書, 즉 인장을 가리킨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감합인(勘合印)이라 부른다)을 발급받아 교통의 증명으로 삼았다. 이를 발급할 때는 도장(印)을 종이에 찍어 예조전교서(禮曹典校署) 및 삼포(제포, 부산포, 염포)에 이를 두고 사신이 올 때마다 이와 대조한 뒤 그 진위를 가렸다(아울러 세종 20년에 소우와 협의하여, 가령 제후들 중에 도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소우의 문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 것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보았다). 도서에는 보통 도서를 받은 자의 이름을 넣었지만 형식이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세종 때에 소우 사다모리(宗貞盛)에게 보낸 것은 정사각형으로 약 4.5센티(一寸五分)의 동인(銅印)에 전자(篆字)로 의화(義和)라고 새겼고, 단종 때에 오우치에게 보낸 것은 세로 5.2센티(一寸八分), 가로 1.5센티(五分) 정도로, 이 역시 동인이었고 무게 약 162그램(43匁7分)이었다. 옆에 ‘조선국사대내전통신부경태4년7월 일조(朝鮮國賜大內殿通信符景泰四年七月 日造)’라고 새겼고(경태는 명나라 경제(景帝)의 연호, 4년은 일본 교토쿠(享德) 2년 장군 아시카가 요시마사 때, 즉 조선 단종 원년에 해당한다), 정면에는 통신부(通信符)라는 세 글자의 절반이 들어가 있었다. 즉 이 동인의 나머지 절반은 조선에 있었고, 다른 절반은 오우치에게 보낸 것이다. 훗날 성종 5년(일본 분메이(文明) 6년 장군 아시카가 요시히사(足利義尚) 시기) 통신부 10장을 막부에 보낸 적이 있다. 이는 당시 조선과 교류하는자들 가운데 종종 막부의 사신이라 위칭(僞稱)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이 있어서 진짜 사신을 판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막부의 요청에 응해 조선에서 보낸 것이다. 상아(象牙)로 제작한 원형으로 둘레 13.5센티(四寸五分), 직경 4.5센티, 한 면에는 전자로 ‘조선통신’이라는 네 글자를 적었고, 다른 한 면에는 ‘성화(成化) 10년 갑오’라고 적어 각각 번호를 기입해 두었다(번호는 1~10까지).

당시 이키(壹岐), 쓰시마 및 규슈 연해의 제후들 중에는 조선을 위해 힘쓴 공로가 있다가, 혹은 특별한 관계로 인해 종종 조선의 관직을 받은 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수직인(受職人)이라 불리며 매년 한 번의 교류를 승인받았고 또 접대를 받는 특전도 누렸다. 하지만 공식적인 사신을 파견할 수는 없었다(『세종실록』, 『성종실록』, 『해동제국기』, 『통문관지(通文館志)』, 『선린국보기』, 『조선통교대기(朝鮮通交大紀)』, 『취고첩(醉古帖)』).

그 이후 여전히 양국의 정부 간에는 물론 각 제후들과의 사절의 왕래도 종종 이루어졌는데, 세조 때에 이르러 장군 요시마사는 사절을 파견해 대장경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동시에 동전의 지급을 요구했다. 세조 5년(일본의 간쇼(寬正) 5년)에 세조는 송처검(宋處儉)을 통신사로 하여 서장관(書狀官) 이근(李勤)과 함께 일본에 보냈지만, 도중에 태풍을

만나 결국 도달하지 못하고 바다에 빠져 익사했다(『세조실록』 3년·6년·12년, 『문헌비고』 178, 『교빙고(交聘考)』). 성종 6년(일본의 분메이 7년) 영의정 신숙주가 임종하면서 왕에게 남긴 유언에 따르면 “바라건대 일본과 화친을 끊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했다. 신숙주는 세종 25년 일본에 사신으로 와서 나라 안팎의 사정을 잘 살피고 일찍이 『해동제국기』를 저술했다. 성종은 그 말에 감동하여 부제학 이형원(李亨元)을 통신사로 임명해 서장관 김흔(金訢)과 함께 일본에 보냈는데, 이형원은 쓰시마에 도착해 태풍을 만나 병을 얻고 결국 서장(書狀)을 도주에게 건네고 돌아갔다. 그 이후 사신을 보내지 않았고, 일본 사신이 도착해도 그저 전례에 따라 접대하는 데 그쳤다(『세종실록』 25년 2월, 『소문쇄록(謏聞瑣錄)』, 『징비록(懲毖錄)』 1권, 『문헌비고』 178, 『교빙고』). 당시의 조선과 일본 막부 및 각 제후들과의 교류 상황은 대개 이와 같은데, 쓰시마의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상 그 관계가 다른 곳과는 매우 달랐고, 좀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적지 않다. 따라서 아래에 그 개략을 서술함으로써 쓰시마에 대한 관계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자.

당초 해구(海寇)가 조선 연안을 약탈하자 정부는 이키와 쓰시마 두 섬을 해구들의 소굴로 판단하고 고려 공양왕 원년에 경상도의 원수 박위(朴葦)는 병선 100척을 이끌고 쓰시마를 토벌했고, 이씨조선에 들어서도 태조 5년에 문하우정승 김사형(金士衡)을 보내 5도의 병선을 모아 또다시 쓰시마를 정벌하도록 했다. 그 원정군은 해상에 진을 치지 못하고 도중에 귀환한 것으로 보인다(『고려사』 박위전(朴葦傳), 『태조실록』 5년 12월). 훗날 소우 사다시게(宗貞茂)는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고 우호관계를 맺은 뒤 해구를 금할 것을 약속했다. 조선도 쌀과 콩 또는 마포·모시·호피 등을 보내 환심을 사는 동시에 조선의 남쪽 연해의 항구에서 쓰시마 주민들의 호시(互市) 조어(釣魚)를 묵인한 이후, 양국 사이에는 점차 별다른 분쟁이 야기되지 않게 되었다(『태조실록』 6년 5월, 『정종실록』 원년 7월). 당시 해구의 약탈은 일본의 장군 요시미쓰가 금지하는 정책을 편 것과 조선의 수군과 육군이 점차 정비된 것, 그리고 태조 이래 취해온 평화정책의 성과에 따른 것으로, 크게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니었다. 태종 때에도 종종 소규모의 해구가 있었고, 세종 원년 5월에는 충청도 비인현(庇仁縣)에 침략했고 또 황해도 해주를 약탈했다(이 해구는 명나라 연안을 향하던 무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태종은 이미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주었지만, 여전히 조정 일에 관여하여 병마에 관한 사항은 그의 수중에 있었는데, 결국 왕과 논의를 한 뒤 쓰시마를 정벌하고 해구의 소굴을 소탕할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우선 도통사 유정현(柳廷顯)을 경상도에 파견해 연안의 각 항구를 조사하도록 했고, 도체찰사(都體察使) 이종무(李從茂)에게 선함 227척, 병사 1만 7,000여 명을 이끌고 6월 쓰시마를 정벌하도록 했다(『세종실록』 원년 5월·6월). 이 소식을 접한 일본에서는 과거 분에이(文永) 전쟁과 고안(弘安) 전쟁 때와 같이 몽고와

고려의 연합군의 침입으로 생각하고 규슈의 무사 대부분이 쓰시마에 모여 이를 막았는데, 조선군은 결국 패배하고 편장(編將) 박홍신(朴弘信), 박무양(朴茂陽)을 비롯해 병사 백 수십 명을 잃었고, 이종무는 패전병과 선함을 수습해 같은 해 허망하게 본국으로 귀환했다(『세종실록』 26년 7월, 『간문일기』). 그러자 태종은 병조판서 조말생(趙末生)을 쓰시마에 파견해 소우 사다시게(宗貞茂)의 아들 사다모리(貞盛)에게 강화를 전달했다. 사다모리 역시 조선과 오래 항쟁을 벌이는 것은 이득이 없다고 깨닫고 곧바로 이에 응해 가신을 파견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고 교류 또한 이전과 다르지 않게 되었다(『세종실록』 원년 7월).

이리하여 조선의 쓰시마에 대한 정책은 원래의 평화적인 것으로 돌아갔고, 세종은 쓰시마 인들을 위해 삼포를 열어 그들의 호시·조어 장소가 되도록 했으며, 일이 다 끝나면 곧바로 돌아가야 한다는 제도를 정했다. 이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쓰시마인에게 호시·조어를 공적으로 승인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실은 그들이 종래 조선의 연안 각 항구에서 자유롭게 왕래하는 호시·조어를 제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세종실록』 8년 정월, 『해동제국기』). 삼포란 웅천의 내이포(乃而浦, 즉 제포), 동래의 부산포(富山浦, 즉 釜山浦) 및 울산의 염포를 가리킨다. 그 이후 이 지역을 왕래하는 쓰시마 인들이 매우 많았고 일이 다 끝나더라도 돌아가지 않자 세종은 예조로 하여금 서신을 사다모리에게 보내 이들을 모두 쇄환(刷還)할 것을 명했다. 다만 거주한 지 오래된 자 60명만은 특별히 당분간 머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 이후 거주민의 수는 다시 증가하여 성종 6년(일본의 분메이 7년)에는 아래와 같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세종실록』 21년 9월·11월, 『해동제국기』, 『성종실록』 6년 3월).

부산포 88호, 남녀 인구 350명
 제포 300호, 남녀 인구 1,731명
 염포 34호, 남녀 인구 128명

세종 25년(일본의 가키츠(嘉吉) 3년)에 소우 사다모리와 약조를 맺었는데, 매년 쓰시마에서 파견하는 선박 수를 제한하는 계해약조(癸亥約條)가 바로 그것이다. 당초 소우 사다시게는 조선과 우호관계를 맺자 매년 파견하는 사신의 선박이 1, 2척이고 각 선박의 승원이 5, 6명을 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선박과 인원이 증가하여 도중에 있는 역관(驛館)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자 세종은 쓰시마의 세견선(歲遣船)을 제한할 생각으로, 25년 2월 통신사 변효문(卞孝文), 서장관 신숙주 등이 일본에 가는 편을 통해 예조의 서신을 들고 가도록 해 그 뜻을 사다모리에게 전했다. 4월 변

효문 등은 쓰시마에 도착해 서신을 사다모리에게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도 다시 쓰시마에 들렀지만, 사다모리는 아직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서 결정하지 못하자 신속주가 설득해 이해득실을 따진 뒤 마침내 조약을 체결하고 돌아갔다. 즉 그 약조는 다음과 같다(『세종실록』 25년 2월, 『성종실록』 6년 6월, 『통문관지』).

1. 도주에게 매년 쌀과 콩 200석을 줄 것.
2. 도주의 세전선은 50척으로 한정하고, 어쩔 수 없는 보고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특송선을 허락할 것.

훗날 삼포에서 변란이 일어나 조약을 개정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제4절 대외관계 (2)

1. 동북 방면 야인(두만강 방면)과의 관계

야인이란 당시 조선의 북방에 거주하는 여진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반도와외의 관계는 이미 신라 말기에 시작되어 고려시대는 물론 이씨조선시대에 들어서도 경략(經略)의 진척과 더불어 종종 갈등을 야기했다. 여기서는 편의상 이를 동북면 및 서북면 두 방면으로 나누어 그 관계를 서술하도록 한다.

동북면, 즉 두만강 방면에 이씨의 세력이 수립된 것은 이미 고려 말기였다. 원나라의 구세력이 점차 무너지고 명나라의 신세력이 아직 이 방면에 확립되지 않은 틈을 타서 고려가 영토의 확장을 꾀할 때 이태조의 부친 환조는 삭방도만호(朔方道萬戶) 겸 병마사로서 이 방면을 진무(鎭撫)했고, 태조 역시 부친의 자리를 물려받아 종종 공을 북변에서 세워 위신을 민이(民夷)들 사이에 쌓게 된 지 오래되었다. 따라서 태조 즉위 당초 이미 이씨의 영역은 두만강 하류에 미쳤고, 그 지역의 양대 부족인 올랑합(兀良哈)과 알도리(斡都里)⁶⁴ 등의 야인들은 그 무렵 종종 그의 초유(招諭)에 응해 알현할 뿐만 아니라, 즉위 원년 9월 태조는 셋째 아들 방원을 공주(孔州, 현 함경북도 경흥)에 파견해 목조 및 그 아내 이씨의 능실에 제를 올리도록 했으며, 2년 8월 동북면 도안무사(都安撫使) 이지란(李之蘭, 즉 두란첩목아(豆蘭帖木兒))을 보내 갑주(甲州, 현 함경남도 갑산) 및 공주 땅에 성을 쌓아 이 지방을 다스리도록 했다(『고려사』 공양왕 3년, 동 『태조실록』 원년, 동 2년 8월).

64) 원문에는 간도리(幹都里)로 표기되었으나 알도리(斡都里)의 오기로 보인다.

이리하여 태조는 7년 정월 동북면 도선무순찰사(都宣撫巡察使) 정도전을 파견해 그 지방의 주부군현(州府郡縣)의 경계를 확정하도록 했고, 부(府)를 공주에 두고 비로소 경원(慶源)이라 불렀다. 더 나아가 그해 4월 도당에 명해 단주(端州, 현 함경남도 단천) 이 북 각 주와 군의 군량 1천 석을 경원에 수송했다. 또한 병선 10척을 강에 띄워 그 방면을 경비하도록 했다(『태조실록』 7년 4월, 『세종실록』, 「지리지(地理志)」 ‘세종실록지리지’가 아닐지……). 그런데 태종 6년 2월에 영고탑(寧古塔) 부근의 야인 울적합(兀狄哈)이 경원의 소다로(蘇多老, 또는 所多老라고도 한다. 지금의 경원 남쪽)에 침입했다. 또다시 10년 2월에 알도리, 올랑합 등과 손을 잡고 경원부를 침략했는데, 찰리사(察理使) 조연(趙涓)이 태종의 명을 받들어 길주를 출발해 두문(豆門, 또는 토문(土門)이라고도 한다. 현 함경북도 경원의 북쪽, 강 밖의 지역)에서 올랑합과 싸워 크게 이기고 그 우두머리를 죽였다(『태종실록』 10년 3월). 야인들은 격분해 같은 해 4월에 남은 종족들이 알도리와 함께 옹구참(雍丘站, 현 함경북도 웅기(雄基))을 침략했고, 같은 해 또다시 울적합과 손을 잡고 아오지(阿吾地, 함경북도, 지금의 아오지보다 약간 북방)를 침략했다. 병마사 곽승우(郭承祐)가 맞서 싸웠지만 패하고 사망자가 73명, 부상자가 50여 명에 이르렀다(『태종실록』 11년 4월). 태종은 군신들과 논의한 끝에 부(府)를 경성(鏡城, 함경북도)으로 옮긴 뒤 이북의 땅을 버리고 목조 및 그 부인 이씨의 분묘인 덕(德), 안(安) 두릉(陵)을 경원에서 함주(咸州, 현 함경남도 함흥)로 이장함으로써 경성을 이 방면의 야인을 방어하는 요충지로 삼았다(『태종실록』 10년). 그 이후 7년 동안 야인들의 침입은 없었고 때로 그들이 조공을 바치러 오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17년 8월 명나라가 내관 장신(張信)을 공주에 파견해 위(衛)를 이 지역에 설치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물론 이 소문은 잘못 전해진 것으로, 사실은 백두산 북쪽 땅에 사우(寺宇)를 건립하려는 것이었다(『만선지리역사연구보고(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제4, 조선 초기의 동북경과 여진과의 관계. 하지만 태종은 이를 우려하여 경원을 다시 설치하라는 명을 내리고 목책성(木柵城)을 부거(富居, 함경북도) 땅에 세워(『태종실록』 17년 8월), 후일 부치(府治)를 이곳으로 옮겼다. 하지만 세종 4년 9월에 울적합이 부거의 경원부를 침략한 이후 또다시 빈번히 야인들이 침략하자 군신들이 논의를 한 뒤 부를 용성(龍城, 현 함경북도 수성(輸城))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지만, 세종은 일찍이 동북 경략에 관해 진취의 뜻을 갖고 있었기에 좀처럼 그 의견에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방어를 전진시킴으로써 부의 위치를 유지할 생각으로 수차례의 심의 끝에 마침내 세종 14년 6월 영북진(寧北鎭)을 부(府)의 서쪽 석막(石幕, 함경북도, 현 부령(富寧))에 설치했다(『세종실록』 6년 5월·9월, 동 7년 11월, 14년 3월·6월).

세종 15년 10월 울적합 부족이 알목하(斡木河) 부근의 야인 알도리를 공격해 우두머리

건주좌위도독(建州左衛都督) 맹가첩목아(猛哥帖木兒) 부자를 죽이는 일이 벌어져 야인들 사이에 큰 동요가 일어났다(『세종실록』 15년 10월). 세종은 이 사실을 듣고 옛 영토를 회복할 기회로 보고 곧바로 김종서를 함길도의 도절제사로 임명했다. 이듬해 석막의 영북진을 백안수소(伯顔愁所, 함경북도, 현 행영으로 옮겨 종성군(鍾城郡))라 하고, 알목하에는 여전히 알도리 부족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야인들이 침략하는 요충지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진을 설치해 회령(會寧)이라 했다(『세종실록』 16년, 『동국여지승람』 함경도의 부). 세종 17년 경원부치(慶源府治)를 부거에서 회질가(會叱家, 현 경원)로 옮기고, 공주의 옛 땅에 현을 두고 공성(孔城)이라 하고 훗날 경흥군(慶興郡)으로 승격시켰는데(세종 19년), 바로 지금의 경흥이다. 그런데 세종 18년 경원에 야인의 침입이 있어 북변은 여전히 평온하지 않음으로써, 22년 종성군치(鍾城郡治)를 수주(愁州, 함경북도, 현 종성)로 옮겨 본진을 행영으로 했다. 또한 군을 다온평(多溫平, 현 함경북도 온성)에 두고 이름을 온성(穩城)으로 바꾸었다. 이듬해 봄에 훈용(訓戎, 함경북도 경원 지역)에서 강을 따라 독산연대(禿山烟臺, 함경북도, 현 회령 서쪽)까지 장성(長城)을 쌓았고, 31년 석막에 부령부(富寧府)를 설치했다(『세종실록』 18년, 2년 및 31년, 『세종실록지리지』 함경북도의 부).

이와 같이 세종의 동북 경략은 착실히 진척되어 점차 강 안쪽 지역을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상류 지역, 즉 동량북(東良北) 여진 방면(즉 지금의 무산(茂山) 방면)에는 끝내 촌토(寸土)의 개척을 하지 못했다. 훗날 세조 때에 이르러 종성 부근 강 밖의 야인 모린위(毛隣衛), 올랑합의 우두머리 낭발아한(浪孛兒罕)은 변장(邊將)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그의 아들 아비거(阿比車)는 동쪽 야인들을 규합하여 종종 회령 지방을 침입했다. 그러자 함길도 도체찰사 신숙주는 이를 정벌하기 위해 먼저 장수들을 나누어 무산·운두·부령 각지에서 출발시켜 야인들 지역에 들어가도록 했고, 자신 또한 종성을 출발해 여러 장수들과 그 본거지를 포위하여 마침내 소굴을 소탕하고 돌아왔다. 하지만 이 방면의 개척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지방은 여전히 야인들의 지역으로 긴 시간 동안 옛날 그대로 남아 있었다(『세조실록』 5년 9월 및 6년 9월, 『황명실록』 천순(天順) 4년 10월, 『동국여지승람』 함경도 회령부).

성종 22년 야인들이 또다시 영안도(永安道, 성종 원년 함길도를 영안도로 했다) 조산보(造山堡)에 침입해 경흥부사 나사중(羅嗣宗)을 죽이자 왕은 도관찰사 허종(許琮)에게 명을 내려 북방을 정벌하게 했다. 10월 허종이 보병과 기병 2만을 이끌고 온성에 도착한 뒤 두만강을 건넜다. 이 사실을 듣게 된 야인들은 놀라 달아났고, 허종은 결국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다(『성종실록』 22년, 『국조보감』 17, 『해동명신록』).

2. 서북면 야인(즉 압록강 방면)과의 관계

다음으로 서북면, 즉 압록강 방면에는 고려 공민왕 때에 이미 의주(義州)·이성(泥城, 현 평안북도 창성(昌城))·강계(江界, 현 강계가 아니라 압록강의 연안에 있다. 또는 현 만포진이라는 설도 있다) 등에 만호부(萬戶府)를 두었고, 강 상류 즉 동북방에도 공민왕 3년 갑주에 만호부를 설치했다(『고려사』 공민왕(恭愍王) 및 공양왕세가(恭讓王世家), 『동국여지승람』 등에 의거). 이씨조선에 들어와서는 이 방면의 개척이 점차 진척되어 초기에 이미 갑산(甲山)의 서쪽으로는, 압록강 남쪽 연안을 거의 대부분 손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태종 원년에 입석(立石, 입석은 동국여지승람에 ‘입석역, 재부남일백육십오리(立石驛, 在府南一百六十五里)’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향(古哈), 괴(怪) 등지를 합쳐 석주(石州)라 했는데, 태종 3년 석주를 다시 강계부(江界府, 현 강계)로 했다. 또한 태종 16년에는 여연군(閔延郡, 평안북도)을 설치했다. 여연은 원래 함길도에 속했고 갑산군의 관하에 있었는데, 여기에 이르러 거리가 너무 멀어 빠르게 대응할 수 없음을 우려해 이를 갑산에서 분리해 하나의 군으로 해서 평안도에 넣었다(『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평안도의 부). 그런데 세종 4년에 파저강(婆猪江, 즉 만주의 동가강)의 야인들이 침입해 군의 서부를 약탈하고 또다시 14년 침입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여연·강계와 거리가 멀어 구원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웠기 때문에 중앙의 자작리(慈作里)에 성을 쌓아 군을 두고, 이를 자성군(慈城郡)이라 했다(『서정록(西征錄)』, 『세종실록지리지』 평안도의 부).

세종 15년 3월 세종은 평안도 도절제사 최윤덕(崔潤德)에게 명을 내려 황해도와 평안도의 군마를 이끌고 파저강의 야인을 정벌토록 했다. 최윤덕은 장수들을 강계부에 모은 뒤 강을 건너 야인들의 땅 깊숙이 들어가 남녀 200여 명을 생포하고 170여 명을 참획(斬獲)하고 돌아왔다. 윤 8월, 우두머리인 건주위지휘(建州衛指揮) 이만주(李滿住)가 사람을 파견해 화친을 요청하고 포로의 쇄환을 요구했다. 세종은 신하들과 논의한 뒤 이를 허락했지만, 그 이후에도 침입이 끊이지 않자, 19년 9월 세종은 또다시 평안도 절제사 이천(李蕝) 등에게 이를 정벌토록 했다. 이천은 곧바로 군사를 셋으로 나누어 강을 건너 뒤 울랄산성(만주 회인현(懷仁縣)의 강 건너편), 오미부(吾彌府, 회인현 부근) 등지의 소굴을 공격해 소탕하고 돌아왔다(『세종실록』 15년 3월 및 윤 8월, 동 19년 9월).

22년 세종은 여연군의 상무로보(上無路堡)에 무창현(茂昌縣)을 두었고, 24년 군으로 승격시켰다. 또한 이듬해 우예군(虞芮郡)을 두었고, 28년 함길도 갑산군 삼수보(三水堡)를 승격시켜 군으로 했다. 처음 이 지역에는 만호를 두고 이를 발전시켰지만, 야인들의 침입이 잦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군으로 승격시켰다(『세종실록지리지』 평안도의 부). 이와 같이 세종은 이 방면의 경략에 관해서도 오로지 진취의 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문종 때에 이르러 대신들 중에 변방에서 야인들과의 갈등을 우려해, 또 지역이 편소

(偏少)하고 척박할 뿐만 아니라 벽지이고 왕래하기 불편함이 적지 않다며 자성(慈城)의 진수(鎭戍)를 혁파할 것을 논의하는 이들이 있었다. 왕은 이 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세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마침내 즉위 그해에 여연·무창·우예 세 군을 없애고 그 지역 백성들을 구성과 강계부로 이주시켰다. 이어서 세조 4년에는 자성군을 없애고 백성들을 강계로 이주시켰는데, 그 이후 이들 지역을 폐사군(廢四郡)이라 부른다(『문종실록』, 『세조실록』, 『동국여지승람』). 세조 4년에 건주위도독 이만주의 아들 고납합(古納哈), 건주우위도독 동산(董山) 등이 귀부(歸附)하자 왕은 이들을 위로하고 관직을 주었다. 명나라 영종(英宗)은 이 사실을 듣고 곧바로 사신을 파견해 왕을 질책하고 명을 내려 앞으로 법도를 근수(謹守)하고 사교(私交)를 끊도록 했다(『명사』 조선전, 『세조실록』 5년). 그러나 동산은 명나라에 등을 돌리고 종종 요동 땅을 침입하고, 또 강을 건너 조선에 들어가 의주와 창성 등지를 침범하였다. 그러자 명나라는 병사를 보내 이를 토벌하고, 아울러 조선에 칙서를 내려 공격하도록 했다. 때는 세조 12년 9월이다. 세조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강순(康純)에게 어유소(魚有沼)·남이(南怡)와 함께 병사 1만을 이끌고 가서 정벌하도록 했다. 같은 달 강순 등은 강을 건너 파저강으로 공격해 들어가 올미부(兀彌府, 오미부와 동일)를 공략하여 이만주 및 그의 아들 고납합 등을 베고, 소굴을 불태운 뒤 돌아왔다. 그리고 곧바로 사신을 파견해 승리를 전하니, 명나라 헌종(憲宗)이 칙서를 내리고 선물을 전하며 그 공을 치하했다(『황명실록』 성화(成化) 3년 및 4년, 『세조실록』 13년 9월 및 10월).

성종 10년에 명나라는 또다시 사신을 파견해 건주위(建州衛)를 공격하라는 칙서를 내렸다. 왕은 우찬성 어유소를 보냈다. 어유소는 병사를 이끌고 만포진에 도착했으나 강물이 얼지 않아 건널 수 없다며 병사를 이끌고 돌아왔다. 그러나 한명회는 용맹한 병사들을 조속히 보낼 것을 다시 청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길이 험하고 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다시 병사를 보내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지만, 한명회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왕은 곧 우의정 윤필상(尹弼商) 등에게 명을 내려 병사 4천을 거느리고 다시 정벌하게 했다. 윤필상은 강을 건너 야인들의 소굴을 소탕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사신을 명나라에 보내 승리를 알리고 포로들을 헌상했다(『명사』 조선전, 『황명실록』 성화 15년, 『동각잡기』).

제3장 조신(朝臣)의 내홍

제1절 사화 (1)

1. 무오사화(戊午史禍)

사화는 당시 발흥한 유학파, 곧 김종직(金宗直) 일파와 주위의 충돌에 기인한 것이다. 당초 고려의 신하 길재(吉再)가 경상도 선산(善山)에서 제자들을 길렀다. 문하에 김숙자(金叔滋, 선산 사람)가 있었고, 그의 아들 김종직이 대두하면서 그 계통의 유학이 크게 발전하여 명사(名士) 정여창(鄭汝昌)·김굉필(金宏弼)·김일손(金駟孫)·유호인(俞好仁) 등이 모두 그의 문하로서 유학은 점차 도성으로 파고들었다. 당시 조선의 유학은 주로 왕정(王廷)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나 그 자제들 손에 있었는데, 이 학풍이 세상을 풍미하게 되면서 마침내 주위와 충돌하고 이른바 사화를 야기했다.

사화가 처음 발생한 것은 연산군 무오(戊午) 4년 7월이다. 부윤(府尹) 유규(柳規)의 서자 유자광(柳子光)은 어려서부터 무뢰하고 완력이 강했는데, 세조의 신망을 얻고 김종직의 문하에도 출입했다. 그리고 예종 초기 남이(남이는 의산위 휘(暉)의 아들로, 태종의 외손이다. 매우 총명했고 세조 때에 이시애를 진압하고 건주위 야인을 정벌하는 공을 세웠다. 예종이 즉위한 해에 모반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했다)의 모반을 밀고한 공을 인정받아 무령군(武靈君)에 봉해졌는데, 김종직은 속으로 이를 좋지 않게 생각했다. 마침 유자광이 함양군에 놀러 가서 시를 짓고 이를 군수(郡守)에게 부탁해 현판으로 만들어 벽에 걸도록 했다. 훗날 김종직이 함양군수로 가면서 유자광의 시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는 곧바로 이를 철거하도록 명했다. 유자광은 분개하면서 복수심을 불태웠는데, 광양군(廣陽君),⁶⁵⁾ 이극돈(李克墩)이 실권을 잡는 것을 보고 서로 결탁했다. 이극돈 역시 김일손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 김일손은 김종직의 뒤를 이어 사관(史官)으로 있으면서 이극돈이 전라감사로 있을 때, 성종의 상(喪) 때에 향을 도성에 바치지도 않고 기녀와 놀았다는 사실을 사초에 기록했다. 이극돈이 조용히 이를 고쳐줄 것을 부탁했지만 단호히 거절하자 이극돈은 이에 원한을 품었다. 그리고 후일 김일손이 헌납(獻納)이 되었을 때, 성준(成俊, 창녕 사람으로 연산군 4년에 재상에 봉해졌으나 10년에 직산에 유배된 이후 죽었다)과 이극돈이 서로 봉당의 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상소문을 올리자 이극돈은 크게 노하여 결국 유자광과 손을 잡고 보복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런데 연산군 4년 7월에 사국(史局)을 열어 『성종실록』을 편찬하면서 이극돈은 당상(堂上)이 되었을 때 김일손의 문장에서 김종직이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실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은근히

65) 광원군(廣原君)의 오기이다.

세조를 비방하는 것이라며 유자광에게 알렸고, 결국 선성부원군 노사신(盧思慎), 파평부원군 윤필상 등과 함께 변을 고했다. 연산군은 본디 학문을 좋아하지 않았고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 학사 무리들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유자광의 말을 듣고는 명을 내려 김일손 등을 추국하도록 했다. 여기에 이르러 유자광은 모두 옥에 가둘 생각으로 김종직의 문하 및 관련 있는 자들은 전원 잡아들여 형벌에 처했지만, 김종직은 이미 죽었기에 부관참시를 했다. 김일손을 비롯한 권오복(權五福)·권경유(權景裕)·이목(李穆)·정여창·정희량(鄭希良)·김굉필 등 수십 명의 명사들이 죽임을 당했다. 연산군 무오년에 일어난 이 사건을 무오의 화(禍)라 하고, 그 단초가 사서 편찬에서 나왔다고 해서 사화(史禍)라고도 한다(『대사편년』 3권, 『동각잡기』, 『조야첨재』 유자광전(柳子光傳), 『조야회통』 10권).

2. 갑자사화(甲子士禍) 및 연산군의 폐위

무오사화가 일어난 지 6년, 연산군 10년에 이르러 또다시 사화가 일어나 소위 명사라 불리는 이들 수십 명이 죽임을 당했다. 연산군의 생모 윤씨가 폐비된 뒤 죽임을 당한(제2장 제2절 참고) 사실을 연산군은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훗날 이를 듣고 크게 비통해 하면서 같은 해 4월 윤씨를 추숭(追崇)하고 성종의 묘에 배사하려 했다. 모든 중신들이 이에 찬성했지만, 오직 이행(李荇)만이 불가하다고 하자 연산군이 크게 노하며 이행을 옥에 가두었다. 아울러 당시 윤씨의 폐위와 죽음에 관련한 자들에게 모두 죄를 물으려고 했다. 당시의 비 신씨(慎氏)의 오빠 신수근(慎守勤)이 실권을 잡고, 동생 신수영(慎守英) 및 신수겸(慎守謙)과 내외에 반거(蟠據)하여 늘 사림의 명성에 대해 증오하면서 이를 배척하려고 했다. 지중추부사 구수영(具壽永), 승지 임사홍(任士洪) 등과 손을 잡고 기회를 엿보다가 사림이 국사를 비방한다는 거짓을 꾸몄다. 연산군은 처음부터 사림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로써 사화가 또다시 일어나 윤필상·이극균(李克均)·이세좌(李世佐)·김굉필·홍귀달(洪貴達)·이원귀(李元貴) 등의 조신들과 사림들 중에 윤씨의 폐비와 죽음에 관련된 자들 수십 명이 죽임을 당했다. 한치형(韓致亨)·한명회·정창손·어세겸·정여창·남효온 등 이미 죽은 자들은 부관참시에 처하고 뼈를 부수어 바람과 함께 날려 보내거나 강에 던졌다. 또한 그 자손들과 동족들에게도 죄를 물었는데, 그 참혹함이 무오사화의 두 배에 이른다고 한다(『조야첨재』 5권, 『대사편년』 3권, 『용재집(容齋集)』, 『정암집(靜庵集)』).

연산군은 무도하기 그지없어, 성종의 후궁인 엄숙의(嚴淑儀)와 정숙의(鄭淑儀)가 그의 생모 윤씨를 폐사(廢死)에 이르게 했다는 말을 듣고는 크게 노하며 그들을 내정(內庭)에서 때려 죽였다. 소혜왕후(昭惠王后, 덕종의 비)가 이 사실을 듣고 꾸짖자 연산군은 머리

로 그녀의 몸을 들이받는 등의 폭행을 휘둘렀다. 뿐만 아니라 각 도에 기락(妓樂)을 열어 창기 300명을 도성 안에 들이거나 채홍사(彩紅使)·채청사(採靑使)를 각 도에 파견해 미녀와 양마(良馬)를 구해오도록 했다. 또 사간원을 혁파하고 홍문관을 폐지하여 학자들을 쫓아내고 태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무당을 불러 음사(淫詞)를 그 안에 설치하는 등의 짓을 저질렀다. 또한 음학(淫虐)함이 날로 심해져 여러 신하들이 불안에 떨자, 13년 9월 결국 전 이조참판 성희안(成希顔)은 지중추 박원종(朴元宗)과 이판 유순정(柳順汀) 등과 모의하여 폐출을 도모했다. 성희안은 창녕 사람으로, 성종 때에 과거에 급제하여 옥당(玉堂)에 들어가 왕의 은총을 입었지만, 연산군이 들어서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조참판을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쫓겨나 집에 칩거하면서 매일 근심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일이 여기에 이르러 월산대군 정(婷, 덕종의 아들)의 부인의 동생 박원종, 이조판서 유순정 등과 밀통하여 폐출을 꾀했다. 때마침 호남에 유배된 유빈(柳濱)과 이과(李顥), 김준손(金駿孫) 등이 성종의 차남 진성대군(晉城大君) 역(愕)을 추대하려고 모의하고 격문을 전한 뒤 도성에 도착했다. 박원종 등이 이 사실을 듣고는 먼저 일을 도모하기 위해 장수들을 훈련원에 모아 광화문 밖에 도착한 뒤 우선 신수근과 신수영 및 입사홍 등을 참살했다. 그리고 성희안 등은 백관을 거느리고 경복궁으로 몰려가 자순대비(慈順大妃) 윤씨(성종의 계비)의 교지를 갖고 왕을 폐하고 연산군으로 한 뒤 교동(喬洞)에 거처를 잡도록 했다. 진성대군 역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바로 중종(中宗)이다. 성희안·박원종·유순정 등 백여 명은 공을 인정받고 정국공신(靖國功臣)이 되었다. 유자광 또한 여기에 참여했지만 중종 3년에 죄를 짓고 유배된 뒤 호남에서 죽었다(『조야침재』 5권, 『동각잡기』, 『기묘속록(己卯續錄)』, 『조야회통』 10권).

3. 기묘사화(己卯土禍)

중종이 즉위하여 연산군의 비정(秕政)을 혁파하고 풍화 진작(振作)을 위해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전대의 조신들 간 분쟁의 화근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기묘(己卯) 14년에 참화가 또다시 발생해 참수와 유배당한 사람들이 수십 명에 이르렀다. 당초 중종이 왕위에 오르자 부인 신씨를 세워 왕비로 삼았다. 그러나 박원종 등이 논의해 아뢰길, “비의 부친 신수근이 이미 죽임을 당했는데 그 딸이 곤위(坤位)가 있다면 인심이 이상하게 여길 것이며 종사(宗社)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다. 그리고 왕에게 신씨를 밖으로 내쫓고 파원부원군(坡原府院君) 윤여필(尹汝弼)의 여식을 책립하여 비로 삼도록 했다. 박원종은 윤여필의 처형이다. 중종 10년 3월에 윤비는 원자 호를 낳고 7일 만에 죽었다. 그때 순창군수 김정(金淨)과 담양부사 박상(朴祥)이 구언(求言)의 교지에 응하여 함께 상소문을 올려 폐비 신씨의 복위를 청했다. 아울러 박원종 등이 군부(君父)를 위협하고 국모를 내

쫓은 죄를 물어 관직을 박탈함으로써 천하와 후세들에게 대의명분을 함부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을 간청했다. 대사헌 권민수(權敏手)와 대사간 이행은 이를 사론(邪論)으로 간주하고 죽을 죄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좌의정 정광필(鄭光弼) 등이 구해(救解)하며 비록 말이 옳지 않다고는 하지만 이를 죄로 다스려 언로(言路)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정은 결국 외역(外驛)에 유배되었다. 이 사실을 들은 정언(正言) 조광조(趙光祖)가 곧바로 이행 등을 책망하며 말하길, “대간의 직책은 언로를 지키는 일이지 늘 지금 오히려 말을 하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스스로 간혀 임금에게 간언하는 것을 막는 꼴이 된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행 등을 파직할 것을 반복하여 강하게 주장했다. 왕은 마침내 대사간과 대사헌을 파직하고 이장곤(李長坤)을 대사헌으로 하고, 김안국(金安國)을 대사간으로 했다. 조광조는 김종직의 고제(高第)이자 김굉필의 문하로, 그해 11월에 처음으로 정언에 올랐다. 여기에 이르러 이장곤과 김안국은 조광조에게 찬동했고, 장령(掌令) 유부(柳溥), 김희수(金希壽) 등은 권민수와 이행을 지지했으며, 직제학 김안로(金安老)는 둘 다 옳다는 주장을 하며 말하길, “조광조는 언로를 위해 노력했고, 이행 및 권민수는 종사를 위해 죄를 청했다. 둘 다 옳다고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조정 내의 의견이 분분하여 서로 시비를 따지는 등 사화의 단초가 또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정암집』 부록 5권, 『조야첨재』 6권, 『국조보감』 19권, 『대사편년』 4권, 『기묘속록』).

당시 왕은 조광조를 신임하였고 분연히 지치(至治)를 펼치려는 뜻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조광조의 건의로 기신재(忌辰齋, 선왕과 선왕후의 기일에 제사를 절에서 올리는 것을 말한다)를 폐지하고, 현량과(賢良科)를 설치해 김식(金湜)·안처근(安處謹)·박훈(朴薰) 등 28명을 채용해 이들을 중용했다. 이는 한나라의 현량방정과(賢良方正科) 제도를 본떠 만든 것이다. 그리고 김정·박상·이자(李紆)·김구(金絳) 등도 파격적으로 발탁되었다. 조광조는 부제학에서 대사헌으로 승차하여 언로를 열었다. 이로써 조광조를 따르는 신진기예의 무리들은 의기 응만하여 이로써 삼대(三代)⁶⁶⁾의 이상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다. 그래서 때의 유리와 불리를 감안하지 않고, 상황의 가능과 불가능을 생각하지 않으며, 너무 급진적으로 일을 추진해 점차 주위의 질시를 받게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려고 했다. 그리고 왕에게도 과격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결국 왕이 혐오하게 되었다. 반대하는 무리들은 이 기회를 틈타 그들을 배제하려는 계획을 꾸몄다. 이로써 형세는 또다시 돌변하게 되었다(『조야첨재』 6권, 『용천담적기(龍泉談寂記)』, 『기묘속록』, 『대사편년』 4권).

이에 앞서 회령성 부근의 야인들이 갑산부를 침략해 수많은 사람과 가축을 약탈하면서 여전히 그 부근에 출몰하자, 남도병사(南道兵使)가 은밀히 병사를 이끌고 가 그들이

66) 중국의 하(夏), 은(殷), 주(周).

방심한 틈을 타서 잡아들일 것을 청했다. 왕은 여러 재상들과 논의한 뒤 이를 허락하고 이지방(李之芳)을 방어사로 하여 활과 화살, 갑옷을 하사하였다. 당시 조광조는 부제학이었는데, 이를 듣고는 곧바로 왕에게 아뢰길, “이 일은 옳지 못한 속임수이며, 특히 왕자(王者)가 오랑캐를 막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라고 했다. 병조판서 왕담년(王聃年)⁶⁷⁾ 등은 조광조와 논쟁을 벌였지만 왕은 듣지 않고 결국 중의(衆議)를 물리치고 조광조의 말에 따랐다. 그러자 여러 재상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혐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간원과 사헌부·옥당(玉堂)·예문관 등에서 소격서(昭格署, 천지성진(天地星辰)의 초제(酬祭)를 담당하는 관아로, 도교의 하나의 기관이다)를 폐지하라며 교대로 상서를 올려 간청하고 대신들도 아뢰었지만, 좀처럼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조광조는 여러 관원들을 이끌고 문 앞에 연좌하여 종일 간청했다. 날이 저물어 대간들은 모두 물러갔지만 홀로 조광조는 옥당의 관원들과 함께 남아서 날이 밝아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까지 간곡히 청하자, 왕은 마침내 이를 허락했다. 당시 사림의 무리들은 매우 거만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위를 깔보며 내려다보는 태도를 취했다. 예판 남곤(南袞)은 당초 명분과 절의를 중하게 여겼지만 사림들은 그를 소인으로 대했고, 만나면 비꼬는 듯한 태도와 말투를 드러냈다. 그래서 남곤은 늘 마음이 불편했다. 또 조광조가 대사헌이 되어 우연히 길에서 찬성(贊成) 고흥산(高荊山)을 만났는데,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등의 행동으로 조광조의 반대파는 절치부심했다고 한다(『조야첨재』 4권, 『국조보감』 19, 『사제척언(思齊摭言)』, 『기제잡기(寄齋雜記)』, 『당적보(黨籍補)』).

중종 14년 10월 대사헌 조광조와 대사간 이성장(李成章) 등이 문 앞에 연좌하여 정국공신(靖國功臣)들 중에 모람자(冒濫者)를 추가로 삭제할 것을 간청하고 대신 육조판서 또한 이를 아뢰었다. 왕은 처음에는 이를 따르지 않았지만, 대사헌과 대사간이 사직을 청하자 결국 이를 허락하고 정국공신 2, 3등 중 남록자(濫錄者)와 4등 중에서 모두 76명을 삭제했다. 그러자 여러 공신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원망하며 일어섰다. 여기에 이르러 11월 15일 해질 무렵 남양군 홍경주(洪景舟)·공조판서 김전(金銓)·예조판서 남곤·병조판서 이장곤·호조판서 고흥산 등이 신무문(神武門) 밖에서 모임을 갖고 도총관 심정(沈貞)과 참지 성운(成雲)도 참가한 가운데 홍경주가 상소문을 들고 들어가 아뢰길, “조광조 등이 봉당을 만들어 자신을 따르는 자는 천거하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는 배척하는 등, 함부로 후진들을 유인하여 궤격(詭激)한 습성을 갖게 하고, 소(少)로서 장(長)을 능멸하고 천함으로써 귀함을 능멸하여 국세(國勢)를 전도하고 조정을 날로 그르치고 있습니다. 조신들 모두 분함과 한탄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으나 그 세력이 치열한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입을 여는 이가 없고, 모두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세가 이 지경

67) 유담년(柳聃年)을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에 이르렀으니, 어찌 딱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청하옵건대, 유사(有司)에 부쳐 그 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당시 왕은 이미 사림을 혐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이 말을 받아들이고 명을 내려 참찬 이자·형조판서 김정·대사헌 조광조·대사성 김식·부제학 김구 등을 잡아들이도록 한 뒤 참수하려 했다. 이장곤의 간언으로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을 불렀다. 정광필이 아뢰길, “나이 어린 유생들이 시의를 알지 못하고 그저 옛 것을 가져와 지금에 시행하려고 했을 뿐,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자, 왕도 마음이 다소 풀려 조광조 등을 옥에 가두었다. 또 다음과 같은 말도 있다. 즉 이보다 앞서 남곤 등이 조광조를 제거하기 위한 시기를 엿보다가 때마침 도성 밖의 땅이 크게 흔들려 왕이 크게 근심하였다. 당시 남양군 홍경주가 일찍이 찬성이 되었을 때 조광조로 인해 탄핵을 받아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었는데, 남곤이 이를 알고는 그와 결탁하여 홍경주의 딸 희빈(熙嬪)을 이용하여 대궐에 “민심이 모두 조광조에게 돌아갔다”라는 소문을 퍼뜨리도록 하고, 또 대궐 안 정원의 나뭇잎에 꿀물로 ‘주초위왕(走肖爲王)’이라는 네 글자를 써서 벌레가 갹아먹도록 하여 왕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다고 한다(『국조보감』 20, 『조야첨재』 6, 『기묘속록』, 『동각잡기』).

조광조 등이 옥에 붙잡혀 들어가자 관학(館學)의 여러 유생들이 거리에서 울고 대궐로 달려가 아뢰는 이들이 무려 1천여 명에 이르렀고, 상소문을 올려 조광조 등의 무죄를 밝히거나 궐정(闕庭)에 들어가 통곡했다고 한다. 같은 달 21일 왕은 조광조 등의 죄를 나라 안팎에 밝히고 조광조를 능주(綾州)에 유배를 보낸 뒤 사사했다. 그 밖에 김정·김구·김식·박세희·박훈 등 소위 명사들 중에 유배를 간 자들이 수십 명에 이르렀다. 이때가 종종 기묘 14년이었기에 사람들은 이를 기묘사화라 한다(『국조보감』 20권, 『기묘속록』, 『동각잡기』, 『조야첨재』 6).

제2절 사화 (2)

1. 기묘(己卯) 이후의 항쟁

기묘 이후 남곤, 심정이 실권을 장악했다. 김안로(金安老)도 발탁되어 이조판서가 되었지만 종종 19년 남곤·심정·이항·김극복 등의 탄핵으로 원지로 유배된 이후 풍덕(豊德, 경기도)으로 옮겨졌다. 22년 남곤이 사망하고 정광필이 영상에 올랐다. 심정·이항·김극복 등은 조정을 마음대로 흔들게 되었지만, 마침내 이항과 김극복은 배척당하게 된다. 25년 겨울 대사헌 김근사(金謹思)와 대사간 권예(權輓) 등이 상소하여 “심정은 간사하고 탐욕스러우며, 김극복은 이항과 손을 잡고 사우(死友)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배척당하자 가슴속에 분노를 품고 비밀리에 간계를 꾸렸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인군(人君)이 대신을 중히 여기는 까닭은 대신이 도리를 다하는 데 있습니다. 심정이 후진을

끌어들여 인심을 움직이고 시신(侍臣)들과 결탁하여 간모(奸謀)를 꾀하고, 박씨(경빈(敬嬪))로부터 뇌물을 받고 박씨의 비(婢)를 바라는 것은 과연 대신의 도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위기는 대신의 전권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군이 우유부단하거나 발호를 제어하지 못하여 사태를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이를 후회해도 늦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김근사 등은 김안로와 같은 무리에 속하는 자로 그의 사주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심정은 마침내 강서로 유배되었다. 이에 앞서 동궁에 저주를 내리는 변이 일어나 27년 경빈 박씨 및 그의 아들 안성군(安城君)⁶⁸ 미(岬)를 사사(賜死)했다. 심정 또한 박씨와 밀통했다 하여 탄핵을 받고 12월 이항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국조보감』 20권, 『기묘록속집』, 『당적보』(『연려실기술』 수록)).

당초 김안로는 풍덕에 있으면서 또다시 복권되기를 바라며 호언하기를 “내가 만일 조정에 돌아간다면 반드시 기묘의 사류(士類)를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했다. 또 그의 아들 희(禧)가 왕세자 호(皓)의 여동생 효혜공주(孝惠公主)와 혼인한 것을 이용하고, 자신의 처와 같은 무리인 채무택(蔡無擇)으로 하여금 “동궁은 홀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김안로를 날개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도록 했다. 벼슬아치들 중에 이를 믿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26년 마침내 부름을 받아 복권되었다. 사간 박소(朴紹)가 반대하려 하자 김안로 일파인 허항(許沆)의 모함을 받게 되면서 밀양부사 이언적(李彦迪)이 박소를 대신해 사간이 되었다. 그도 여전히 반대를 하면서 “김안로가 행하는 바를 보면 소인과 같습니다. 지금 또다시 그를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나라를 그르칠 것입니다”라고 했지만 결국 국 다시 좌천되었다. 좌의정 이행도 처음에는 김안로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나중에는 그를 소인으로 보고 영의정 정광필과 함께 그의 간사함을 거론하며 유배 보낼 것을 청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행은 함종(咸從, 평안남도)에 유배되었고 정광필은 김해에 귀양을 가게 되었다(『용재집』의 행장기(行狀記), 『기재잡기(寄齋雜記)』).

김안로는 이미 뜻을 이루고 그의 일파 허항과 채무택과 함께 실권을 잡았다. 그리고 지난날 내뱉은 말을 실현하기 위해 기묘의 사류(士類) 중에서 단지 김구와 박훈 등 몇 명을 방환(放還)시켰을 뿐, 그 밖의 대부분은 옥에 가두어 탄압이 더욱 심했다. 또한 종종 대옥사건을 일으켜 왕실의 지친(至親) 및 공경(公卿)과 대신들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자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신하들이 하루도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결국 왕비를 폐해야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왕 역시 점차 그를 혐오하게 되었고, 외척 윤임(尹任)과 윤안인(尹安仁) 등과 논의한 뒤 밀지를 대사헌 양연(梁淵)에게 전하여 김안로의 간사함을 탄핵하도록 했다. 양연이 곧바로 양사(兩司)를 데리고 문 앞에 엎드려 김안로의 죄를 고하자 즉시 병사를 보내 김안로를 붙잡아 허항과 채무택과 함께

68) 복성군(福城君)을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원지로 유배 보낸 뒤 길에서 모두 사사했다. 때는 중종 32년 9월이다(『중종실록』 32년 9월, 『기묘당적보(己卯黨籍補)』).

2. 외척의 분쟁과 그 전권

중종의 비 단경왕후(端敬王后)는 자식이 없어 폐비되었고, 계비 장경왕후(章敬王后)는 세자 호를 낳고 죽었다. 다음의 계비 문정왕후(文定王后)는 둘째 아들 경원대군(慶源大君) 환(峴)을 낳았다. 그런데 윤임은 장경왕후의 오빠이고, 윤원형(尹元衡)은 문정왕후의 동생이었기에 서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알력이 끊이지 않았다. 때마침 김안로가 동궁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중궁을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다. 그래서 윤임은 그와 결탁하고 윤원형과 그의 형 윤원로(尹元老)를 밖으로 내쫓았지만, 32년 김안로가 패하면서 윤원형 등은 다시 소환되어 복권되었다. 여기에 이르러 한때 각 무리들은 각자 기대는 곳이 있어서 서로 각을 세움으로써 대윤(大尹)·소윤(小尹)이라는⁶⁹⁾ 소문이 돌고, 마침내 외척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단초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국조보감』 20권, 『석담일기(石潭日記)』, 『충재일고(冲齋逸稿)』 부록).

39년 중종이 사망하고 세자 호가 왕위에 올랐는데, 이를 인종이라 한다. 인종은 즉위 당초 유관(柳灌)과 이언적(李彦迪) 등 소위 명류(名流)들을 등용시켜 대신의 자리에 앉히고, 특히 이조판서 유인숙(柳仁淑)은 성품이 강직하고 사류를 잇달아 중용하면서 사림이 점차 대두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뜻을 이루지 못한 무리들은 모두 우르르 몰려가 윤원형 일파에 가담하면서 은밀히 보복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인종은 재위 기간 불과 8개월 만에 죽고, 아우 경원대군 환이 왕위에 올랐다. 그가 바로 명종이다. 당시 나이 불과 12세였다. 왕이 나이가 어려 대비(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면서 윤원형 일파가 득세하게 되었다. 그런데 같은 해 7월 영의정 윤인경(尹仁鏡)과 좌의정 유관 등이 상소하여 윤원로의 간사함을 고했다. 즉 그가 망언을 하고 천친(天親)을 이간질하려 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청했다. 윤원로는 당시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이었다. 대비는 처음에는 이를 윤허하지 않았지만, 육조를 비롯한 모든 대신들이 그를 처벌할 것을 청하자 결국 대비도 어쩔 수 없이 윤원로를 남양에 유배 보냈다(『조야첨재』, 『국조보감』 22권, 『괘일록(掛一錄)』(『연려실기술』 수록)).

당시 윤원형은 예조참의였는데, 은밀히 윤임과 유관을 제거할 획책을 꾸미고 있었다. 그러던 가운데 지중추 정순봉(鄭順朋)·병판 이기(李芑)·호판 임백령(林白齡)·공판 허자(許磁) 등이 윤임과 대립하고 있음을 알고 이들 네 명과 결탁하여 “인종의 병환이 깊을 때 윤임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동생을 후원하면서 계림군(桂林君)을 옹립하려 했다.

69) 대윤은 윤임 일파, 소윤은 윤원형 일파를 가리킨다.

또한 유관과 유인숙도 그를 도왔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계림군의 이름은 유(瑠), 계성군(桂城君) 순(恂)의 양자이다. 대비는 이에 현혹되어 은밀히 밀지를 윤원형에게 내려 양사(兩司)로 하여금 윤임 등의 죄를 논하게 했다. 양사는 곧바로 중학(中學)에서 만나 이를 논의했지만 의견이 분분하여 결론이 나지 않자, 윤원형은 일이 틀어질 것을 우려해 그날 밤 정순봉·이기·임백령·허자와 광화문 밖에서 만난 뒤, 다음날 아침 함께 정원(政院)에 나아가 아뢰길, “나라에 대사가 있으니 면대를 청하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왕과 대비를 알현하고 윤임이 오랫동안 다른 뜻을 품고 유관과 유인숙 등 역시 그와 결탁한 형적이 있다고 했다. 왕은 놀라 곧바로 육조 이상을 불러 논의한 뒤 마침내 윤임을 창주(昌州)로 유배 보냈고, 유관과 유인숙의 직위를 박탈했다. 나아가 훗날 윤임을 남해에, 유관을 서천(舒川)에, 유인숙을 무장(茂長)에 유배 보낸 뒤 모두 사사했다. 그러나 옥화(獄禍)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만연하여 사람들 중에서 주살되거나 혹은 직위를 박탈당하는 자가 수없이 많았다. 계림군 유 또한 경기감사 김명운(金明胤)의 밀고로 죽임을 당했다. 이 사건은 을사(乙巳)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사람들은 이를 을사사화라 부른다. 이로써 이기·정순봉·임백령·허자·김명운 등 30명은 모두 정난(定難)의 훈을 받았지만, 훗날 선조 대에 이르러 모두 추탈 혹은 삭훈되었다(『조야첨재』 7권, 『석담일기』, 『동각잡기』, 『을사전문록(乙巳傳聞錄)』).

윤원형은 드디어 뜻을 이루고 실권을 잡았다. 형 윤원로 역시 부름을 받아 돈녕도정(敦寧都正)이 되었지만 윤원형과 서로 권력을 다투었다. 그리고 참훈(參勳)되지 못한 데에 대해 분개하면서 자주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러자 윤원형은 병조좌랑 윤춘년(尹春年)을 부추겨 상소를 올리도록 해 윤원로의 간사함을 폭로하고 그 죄를 논하도록 했다. 왕은 대신들을 불러 상소문을 보여주고 명을 내려 윤원로를 원지로 유배 보낸 뒤 사사했다(『동각잡기』, 『조야첨재』 7권, 『을사전문록』).

명종 2년 9월 부제학 정언각(鄭彦懋)이 전라도 양재역(良才驛)에 도착해 벽에 붙은 주서(朱書)를 발견하고 돌아왔다. 그 글에는 “여자 임금이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 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락하고 있다. 나라가 장차 망하려 하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니, 이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女王執政於上, 姦臣李芑等弄權於下, 國之將亡可立而待, 豈不寒心哉……)”라고 적혀 있었다. 윤인경, 이기와, 정순봉 등은 사론(邪論)이 나돌고 있는 것은 화근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을사사화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죄를 물을 것을 간청했다. 이로써 사화가 또다시 일어나 봉성군(鳳城君) 완(阮)·송인수(宋麟壽)·이약빙(李若氷) 등이 죽임을 당했고, 권발(權撥)·이언적·백인걸(白仁傑)·유희춘(柳希春) 등 유배를 간 자들이 수십 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기는 이듬해 2월 홍문관 박사 안명세(安名世)가 일찍이 사관이었을 때 유관·

유인숙·윤임 등을 칭찬한 사실을 들어 역적을 비호했다며 상소를 올리고 그들을 처형했다. 또한 그의 동료 수명은 장류(杖流)되었다(『조야첨재』 7권, 『동각잡기』, 『을사전문록』, 『대사편년』 5권).

윤원형의 세력은 더욱 커져 날로 교만해졌다. 왕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왕비 인순왕후(仁順王后)의 부친 청릉부원군 심강(沈綱)의 처남인 이량(李樑)을 발탁해 정경(正卿)으로 삼았다. 이량은 사람이 아둔하면서도 당했으며 늘 동년배들로부터 놀림을 당했는데, 여기에 이르러 권세가 갑자기 높아져 한때 이익을 탐하는 무리들이 앞을 다투어 그의 문 앞에 몰려들었다. 이량의 아들 이정빈(李廷賓)은 전랑(銓郎)에 봉해져 권세를 누리며 교만방자하기 그지없었고, 자신에게 이득이 없는 자를 배척했다. 정랑(正郎) 박소립(朴素立)과 좌랑(佐郎) 윤두수(尹斗壽) 같은 이는 모두 삭탈관직을 당했고, 윤근수(尹根壽)·이문형(李文馨)·허엽(許曄)도 이량 일파의 시기를 받고 배척당했다. 당시 심강의 아들 심의겸(沈義謙)은 이량의 조카였다. 그는 늘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었는데, 이량 일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배척당하고 조야(朝野)가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왕에게 밀고하여 내지(內旨)를 받아 당시의 부제학 기대항(奇大恒)을 유인했다. 기대항은 심강의 인척으로, 당초 이량 일파에 속했지만 심의겸이 이미 내전과 소통한 사실을 알고는 곧바로 그와 대응하여 관료(館僚)들을 이끌고 나아가 이량의 죄를 탄핵했다. 18년 8월 이량은 마침내 물러나 귀양지에서 죽었다. 그의 일파 역시 모두 삭출(削黜) 또는 귀양을 갔다(『조야첨재』 8권, 『동각잡기』, 『조야회통』 13권, 『국조보감』 23권).

이량이 패한 뒤에는 그 누구도 윤원형에 대항할 자가 없었지만, 문정왕후가 사망하자 윤원형의 세력 또한 약해져 대사헌 이탁(李鐸), 대사간 박순(朴淳) 등에 의해 탄핵을 받고 삭탈관직을 당한 이후 고향에 돌아가서 죽었다. 때는 왕후가 사망한 지 4개월이자, 명종 20년 8월이다(『국조보감』 23권, 『동각잡기』, 『석담일기』).

제3절 대외관계

1. 대명관계

성종이 사망하고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자 명나라 황제는 예의 인장고명을 내리고 조선국왕으로 인정했고, 부인 신씨를 왕비로 삼았다. 그리고 8년(명 홍치(弘治) 15년) 겨울, 주청에 따라 장자 황을 세자로 책봉했다. 하지만 12년(명 정덕(正德) 원년) 연산군이 폐위될 때, 세자가 어려서 죽었고 병을 이유로 들어 국사를 동생 진성대군 역(礫)에게 맡길 것을 청했다. 명나라는 명을 내려 진성대군 역이 국사를 서리(署理)하고 연산군이 사망하기를 기다린 뒤에 책봉하겠다고 했다. 조공사(朝貢使) 노공필(盧公弼) 등이 명나라 도성에 도착해 다시 한 번 책봉을 간청했으나 승인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성종의 계비 윤

씨의 주본(奏本)을 들고 또다시 간청하니, 명나라도 이를 윤택하고 중종 3년(명 정덕 3년)에 태감 이진(李珍)을 보내 고명 및 면복(冕服)을 주었다(『명사』 조선전, 『황명실록』 정덕(正德) 2년, 『조야첨재』 6권, 『정사제요(政事提要)』).

중종 13년(명나라 정덕 13년)에 조공사 이계맹(李繼孟)이 명나라에서 돌아와 아뢰길, “『대명회전(大明會典)』의 조선국 부분의 주(註)에 ‘이인임 및 그의 아들 단은 홍무 6년에서 28년까지 왕씨를 죽이길 네 명의 왕……’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중종은 곧바로 남곤, 이자 등을 보내 세계(世系)를 설명하고 선세(先世), 나아가 시역(弒逆)한 일이 없음을 알리고 개정을 청했으나, 명 태종은 이를 받아들이고도 여전히 개정하지 않았다(『명사』 조선전, 『패관잡기(稗官雜記)』).

중종 24년(명 가정(嘉靖) 8년) 8월에 하절사로 명나라에 간 유부(柳溥)가 『대전회통(大典會通)』⁷⁰⁾을 중찬(重纂)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곧바로 글을 예부에 전하고 종계(宗系)의 무망(誣妄)을 변명하고 전설의 오류를 말한 뒤 두 가지를 진실에 의거해 개정할 것을 청했다. 이어서 34년(명 가정 18년)에 왕은 주청사(奏請使) 권발과 임권을 보내 또다시 이를 주청하였더니, 명나라는 고(高) 황제의 조훈(祖訓)은 오랫동안 간행되지 않았으므로 가벼이 그 말을 논해선 안 된다고 하며, 훗날 『대명회전』을 중수(重修)할 때 조선의 주장을 빠짐없이 모두 여기에 부록으로 넣을 것을 약속했다(『패관잡기』, 『명사』 조선전, 『황명실록』 가정(嘉靖) 8년).

중종이 사망하고 인종을 거쳐 명종 대에 이르러 『대명회전』은 여전히 간행되지 않아 종계의 오류가 개정되었는지 어떤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명종 12년(명 가정 36년)에 호조판서 조사수(趙士秀)를 보내 주청했고, 18년(명 가정 42년)에 또다시 주청사 김주(金澍) 등을 파견해 선세(先世)가 이인임과 무관함을 설명하고, 시조 이단 및 그의 부친 이자춘의 이름을 『대명회전』에 넣어줄 것을 간청했지만, 명나라는 또다시 이를 『대명회전』 본문 끝에 부록으로 달 것을 허락했다(『명사』 조선전, 『황명실록』 가정 36년 및 42년, 『조야첨재』 8권).

2. 대일관계

중종 5년(일본 고카시와바라 천황(後柏原天皇) 분키(文龜) 7년) 4월 삼포에서 변란이 일어난 결과 쓰시마(對馬)와의 관계에 변동이 생겼고, 일찍이 체결한 계해약조(癸亥約條)를 개정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삼포에는 거류민의 호구가 점차 늘어나고 세력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늘 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별다른 방도를 강구하지 못하는 가운데 당시 진장(鎭將) 등이 좋지 않은 대우를 하고, 특히 부산첨사(釜山僉

70) 『대명회전(大明會典)』의 착오이다.

使) 이우증(李友曾)은 난폭하고 무모하여 절제하지 못하고 오로지 위압적인 태도로 대하여, 거류민들은 모두 그를 원망했다. 때마침 쓰시마 도주 소우 요시모리(宗義盛)는 조선 정부가 그의 사자를 냉대하면서 예전처럼 접대하지 않은 데에 분노하여 은밀히 거류민과 내통한 뒤 그의 아들 모리히로(盛弘)에게 병사 300을 주고 바다를 건너도록 했다. 민중들도 일제히 이에 합세하여 4월 4일 부산과 제포의 진을 공격해 부산첨사 이우증을 죽이고 제포첨사 김세조(金世鈞)를 붙잡았다. 이어서 웅천성과 동래성을 공격했다. 오랫동안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져 이민(吏民)들이 금고(金鼓)를 알지 못하다가 변란이 일어나자 모두 당황하며 달아났다. 경상우도 절도사 김양철(金揚哲)⁷¹⁾이 병사를 이끌고 웅천을 구하려 했으나, 수백에 이르는 병사를 보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전진하지 못하다가 결국 패하고 창원으로 물러났다. 4월 7일 웅천현감 한륜(韓倫)이 성을 버리고 도망가면서 웅천성은 마침내 함락했지만, 동래성을 포위한 부대는 병사가 적어서 공격을 하지 못하고 현령 윤인복(尹仁復)의 군사와 대치하고 있었다(『중종실록』 5년 4월, 『음애잡기(陰崖雜記)』, 『종씨가보(宗氏家譜)』).

상황을 보고 받은 왕은 크게 놀라며 전 절도사 황형(黃衡)과 전 방어사 유담년(柳聃年)을 좌우도 제치사(制置使)로 임명하고 먼저 출발시켰고, 이어서 좌의정 유순정(柳順汀)을 도원수, 병조판서 안윤덕(安潤德)을 원수로 임명하여 뒤이어 출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유순정이 출발하기를 주저하면서 “우상 성희안은 모략에 능하고 결단력이 있으니 그에게 대사를 맡겨야 합니다”라고 하자, 성희안은 “유순정은 군사(軍事)를 잘 익히고 있어서 그보다 나은 이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왕은 일을 모면하려는 것을 보고는 특별히 유순정에게 명하여 출발하도록 했다. 안윤덕은 출정의 명을 듣고는 크게 놀라 시일을 미루면서 출발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앞서 간 군대의 이둔(利鈍)을 기다리길 10일 만에 출발했지만 도착이 늦어지자 황형과 유담년은 길을 나누어 먼저 진격해 들어가 세 갈래로 공격해 모두 물리쳤다. 모리히로는 전사하고 거류민은 대부분 도망쳐 쓰시마로 돌아왔다(『중종실록』 5년 4월, 『음애잡기』, 『종씨가보』, 『대마사략(對馬史略)』).

이리하여 조선과 쓰시마의 교류는 일시적으로 끊기게 되었다. 그러나 쓰시마는 원래 바다에 고립된 섬으로, 땅이 거칠고 늘 물자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교류의 단절은 매우 불리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듬해 소우 요시모리는 막부에 조정을 부탁했다. 장군 아시카가 요시타네(足利義植)는 이를 듣고 승려 봉중(朋中)을 조선에 파견해 쓰시마를 위해 교류를 복구할 것을 간청했다. 중종은 이를 승인할 생각이 없었지만, 성희안과 유순정 등 여러 대신들이 해구(海寇)의 재현을 우려해 화친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자 왕도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르고 봉중에게 “그 수악(首惡)을 주살하고 머리를 함

71) 김석철(金錫哲)의 착오이다.

에 넣어 보낸다면 교류에 관한 논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중종 7년(일본 고카시와바라 천황 분키 9년) 4월에 봉증이 수급을 들고 다시 건너오자, 왕은 곧바로 정부에 명하여 신중히 검토한 뒤 마침내 교류의 길을 열었지만, 그 결과 계해약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될 수밖에 없었다.

1. 세견선(歲遣船) 50척을 절반으로 줄여 25척으로 할 것(그 가운데 대선 9척, 중선 8척, 소선 8척).
2. 세사미(歲賜米) 200석을 절반으로 줄여 100석으로 할 것.
3. 특송선을 폐지하고, 만약 사고가 일어나면 세견선으로 이를 대신할 것.
4. 수도서인(受圖書人) 및 수직인(受職人) 등 접대의 예를 없애고, 또한 삼포의 거류민 호를 폐지하고 다만 부산에 관(館)을 설치해 사신 접대를 하도록 할 것(『중종실록』 6년 7월, 『통문관지』, 『대마사략』).

훗날 또다시 쓰시마 사람들이 사랑(蛇梁, 경상남도 고성군)에 침입해 약탈을 자행하니 중종은 신하들에게 명하여 다시 교류를 끊었다. 그러나 명종이 즉위하면서 아시카가 막부 및 쇼니(小貳)는 사신을 파견해 서신을 전하고 쓰시마 도주를 위해 간곡히 부탁했다. 왕은 정부에 명하여 이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한 뒤 우참찬 신광한(申光漢)의 청으로 화친을 허락하고 다음과 같은 약조를 체결했다. 때는 명종 2년(일본 고나라 천황(後奈良天皇) 덴분(天文) 16년) 2월이다.

1. 세견선은 25척으로 할 것(그 가운데 대선 9척, 중선 8척, 소선 8척).
2. 풍랑 등 날씨가 불순하다는 이유로 가덕도(거제도 동쪽)의 서쪽에 정박하는 것은 왜적으로 간주할 것.
3. 50년 이전의 수도서, 수직자는 임신약조(壬申約條)에 따라 접대를 허락하지 않을 것.
4. 무릇 약속은 첫째로 진장(鎭將)의 영을 따를 것.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무겁게는 3년, 가볍게는 2년 동안 접대를 허락하지 않을 것(『명종실록』 2년 2월, 『국조보감』 22권).

명종 10년(일본 고나라 천황 고지(弘治), 원년) 5월에 해구가 배 60여 척을 이끌고 전라도를 침략해 달량진을 공격해서 함락시켰다. 절도사 원적(元績) 및 장흥부사 한온(韓蘊)이 패하고 전사했으며, 영암군수 이덕견(李德堅)이 붙잡혔다. 어란포·마도·가리포 및 장흥·강진 등이 함락되었고, 다만 해남현감 변협(邊協)이 고성(孤城)을 사수하고 있어서 함락되지 않았다. 해구들은 승세를 몰아 진격해 영암에 도착하여 곧 도성을 침략하겠다고 큰소리쳤다. 왕은 호조판서 이준경(李浚慶)을 전라도 도순찰사로 임명하고, 심

수경(沈守慶)과 김귀영(金貴榮)을 종사관으로 임명해 병사를 이끌고 가서 막도록 했다. 아울러 김경석(金景錫)과 남치근(南致勤)을 좌우의 방어사로 임명하여 광주와 나주에 주둔시켜 돕도록 했다. 이에 앞서 전라도 관찰사 김주는 변란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달려가 영암에 도착했지만, 별다른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던 와중에 어떤 이가 김주에게 전주부윤 이운덕이 지략을 갖고 있다고 전하자, 이운덕을 영암의 수장으로 임명했다. 이운덕은 곧바로 성에 들어가 남치근 등과 함께 힘을 모아 도적 무리들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다. 도적들은 도망가면서 또다시 제주도를 침략했지만 목사 김수문(金秀文)의 군과 싸워서 패한 뒤 도망갔다(『명종실록』 10년 5월, 『국조보감』 23권, 『조야첨재』 8권).

같은 해 10월 쓰시마 도주 소우 요시시게(宗義調, 요시시게는 덴분 22년(명종 8년)에 부친 하루야스(晴康) 뒤를 이어 도주가 되었다)가 가신 히라 시게미쓰(平調光)를 파견해 도적무리의 수급을 바꿨다. 호조판서 이준경은 “쓰시마 도주가 바라는 바는 세견선의 복구이니, 그 수를 몇 척 늘리고, 또 사자(使者)에게 관직을 주어 도주의 마음을 편하게 함으로써 변환(邊患)을 진정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어떤 이는 이준경의 주장에 동의하고 또 어떤 이는 세사미를 늘리라고 했다. 왕은 세견선 및 세사미의 증가를 허락하지 않고, 다만 사자에게 호군직(護軍職)을 주고는 돌려보냈다. 훗날 18년(일본 오기마치 천황(正親町天皇) 에로쿠(永祿) 6년)에 이르러 세견선을 늘려 30척으로 했다(『명종실록』 10년 10월, 『동고집(東臯集)』, 『종씨연보약(宗氏年譜略)』, 『통교대기(通交大紀)』).

3. 야인(野人)과의 관계

함경도 방면에서는 중종 13년 회령성 주변의 야인들이 다른 부족들과 연합하여 갑산부를 침략해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을 약탈했는데, 왕은 병사를 보내 이들을 붙잡도록 했지만 부제학 조광조의 간언으로 이를 포기한 적이 있다(제3장 제1절 참고). 평안도 방면에서는 세조 때에 여연·무창·자성·우예 4군을 폐지한 이후 많은 야인들이 그 지방에 들어와 살면서 여연, 무창 지역에서는 점차 부락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중종 18년 양계(兩界)의 절도사는 병사를 보내 이들을 몰아냈는데, 23년 정월 만포첨사 심사손(沈思遜)이 땀나무를 구하기 위해 희천군수 등과 이차가화연대(伊車加火烟臺) 여둔동(餘屯洞, 평안북도 만포진 북방)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야인들의 습격을 받고 죽었다. 왕은 크게 노하여 야인들을 토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조신들 또한 대부분 찬성했지만, 오직 이행(李荇)만 불가하다며 “그 병사들은 흥폭하고 싸우면 죽기로 싸우니 만전을 기하기 어렵고, 또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그 이후 변환(邊患)이 더욱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자, 왕은 또다시 병사를 움직이지 못하고 포기했다. 명종 대에 이르러서도 야인들은 여

전히 끊이지 않고 변방을 침입하자 변방의 장수들에게 명하여 이를 내몰거나 혹은 의주에 산성을 쌓는 등의 대책을 세우긴 했지만, 야인에 대한 경영으로서 그 밖에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중종실록』 18년 및 23년, 『조야침재』 7권, 『일월록』 4권).

제4장 조선 초기의 문화

제1절 관제(官制)

이씨조선의 관제는 당초 고려 말기의 제도를 본떠 점차 변형시켰는데,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점차 확정되었다. 후세에 변경이 없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확정적인 것이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관제는 동반(東班)과 서반(西班)으로 나눌 수 있고, 동반은 문관이고 서반은 무관이다. 그리고 양반(兩班) 모두 경관(京官)·외관(外官)의 구별이 있었다.

1. 중앙관제

중앙정부를 형성하는 요직은 대개 동반의 경관직으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정부·육조·의금부·사헌부·사간원이다.

(1) 의정부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라는 곳은 백규(百揆)의 모든 서무를 총괄했다. 또 삼사(三司, 처음에는 사평부(司平府)라 했다), 밀직사(密直司, 나중에 중추원(中樞院)으로 개편)가 있었는데, 삼사는 전곡(錢穀)의 출납을 관장하고, 밀직사는 출납(왕명의 출납)과 궁궐의 경비 및 군사 기밀을 관장했다. 나라의 대사가 있으면 삼부가 모여 서로 논의한다. 이를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라고 한다. 조선 태조가 왕위에 오르자 관제는 오로지 고려의 제도에 의거하고, 당시 도평의사사는 가장 중요한 관부로서 그 관원은 다음과 같다.

판사 2명(문하시중(門下侍中)이 겸무), 동판사(同判事) 11명(문하부 상의부사(商議府事) 이상, 삼사좌우복야(三司左右僕射) 이상이 겸무), 사(使) 1명(판중추원사가 겸무), 부사(副使) 15명(중추사 이하, 중추학사 이상이 겸무), 검상(檢詳) 2명, 경력(經歷) 1명, 도사(都事) 1명(이상은 모두 다른 관원이 겸무).

정종 2년에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로 개편하여 좌우정승(정1품), 시랑찬성(중1품), 참찬지부사(정2품)를 두었다. 또한 태종 원년에 문하부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합쳤지만, 그 이후 의정부는 완전히 국가 최고의 중앙관부로서 백관을 총괄하면서 나라의 서무를 안정시키고 음양을 판단하며, 방국(邦國)을 경영하는 곳이 되지는 않았다. 그 관원

으로는 태종 14년에 개편되어 영부사(領府事) 1명, 판부사(判府事) 2명, 동판부사(同判府事) 2명을 두었다. 그 이후 또다시 개편되어 영의정, 좌우의정 각 1명(정1품), 좌우찬성 각 1명(중1품), 좌우참찬 각 1명(정2품), 사인 2명(정4품), 검상 1명(정5품), 사록(司錄) 2명(정8품)을 두었다(나중에 사인(舍人), 사록 각 1명을 감원).

명종 10년에 비변사(備邊司, 비국(備局) 또는 주사(籌司)라고도 한다)를 설치하고, 3공(영의정, 좌우의정) 및 재신(宰臣)들 중에서 시망(時望)이 있고 시무(時務)를 관별할 수 있는 이들에게 겸무하도록 했다. 이로써 나라 안팎의 군국(軍國)의 기무(機務)를 총괄하도록 했다. 그 이후 비변사는 중앙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서 국가의 정무는 모두 이곳에서 관장하게 되었고, 따라서 의정부는 점차 그 실권을 잃게 되었다.

(2) 육조(六曹)

육조란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를 가리킨다. 각 조는 의정부 밑에서 각각의 정무를 분담했다.

이조(吏曹) : 태조가 즉위하면서 고려 말의 제도에 의거해 이를 설치하고 문선(文選)·훈봉(勳封)·고과(考課)의 정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이조에 소속된 문선사(文選司)는 종친·문관·잡직의 제수(除授)·고신(告身, 임명장)·녹패(祿牌, 봉록을 받는 증거로서 교부하는 지표(紙票))·문과생원·진사의 반패(頒牌, 과거에 급제한 자에게 증서를 주는 것)·취재(取才)·개명(改名) 및 뇌물죄와 배륵죄(背倫罪) 등을 저지르는 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고훈사(考勳司)는 종친과 재상, 공신의 봉작(封爵)·증직(贈職)·증시(贈諡) 등을 관장한다. 고공사(考功司)는 문관의 공과와 근태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관원으로는 당초 전서(典書) 2명, 의랑(議郎) 2명, 정랑(正郎) 1명, 고공정랑(考功正郎) 1명, 좌랑(佐郎) 1명, 고공좌랑(考功佐郎) 1명, 주사(主事) 2명을 두었지만 나중에 태종 때에 판서 1명(정2품), 참판(參判) 1명(중2품), 참의(參議) 1명(정3품), 정랑 3명(정5품), 좌랑 3명(정6품)으로 개편되었다(영조 17년에 정랑과 좌랑 각 1명을 감원).

호조(戶曹) : 태조 원년에 고려 말의 제도에 의거해 호조를 설치하여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田糧)·식화(食貨)의 정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호조에 소속된 판적사(版籍司)는 호구·토지·조세·권업·조전(漕轉) 등에 관한 사무를 본다. 회계사(會計司)는 중앙과 지방에 축적된 곡식의 세계(歲計)·해유(解由)·손실평가(欠)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경비사(經費司)는 국가의 지출과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양료(糧料)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당초에는 전서 2명, 정랑 2명, 좌랑 2명, 주사 2명을 두었지만 태종 때에 판서 1명, 참판 1명, 참의 1명, 정랑 3명, 좌랑 3명으로 개편되었다(판서 이하 관원의 위계는 이조와 마찬가지로이고, 예조를 비롯한 그 밖의 관원들도 마찬가지다).

예조(禮曹) : 태조 원년에 고려 말의 제도에 의거하여 설치해 예악(禮樂)·제사(祭祀)·연향(宴享)·조빙(朝聘)·학교·과거의 정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예조에 소속된 계제사(稽制司)는 의식·제도·조회·경연(經筵)·사관(史官)·학교·과거·인신(印信)·표전(表箋)·책명(冊命)·천문·누각(漏刻)·국기(國忌)·묘호(廟號)·상장(喪葬)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전향사(典享司)는 제사·생두(牲豆)·음선(飲膳)·의약(醫藥) 등의 일을 관장한다. 전객사(典客司)는 외국사신의 영접과 조공의 연회, 하사품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당초에는 전서 2명, 의랑 2명, 정랑 2명, 좌랑 2명, 주사 2명을 두었지만 태종 때에 판서 1명, 참판 1명, 참의 1명, 정랑 3명, 좌랑 3명으로 개편되었다.

병조(兵曹) : 태조 원년에 고려 말의 제도에 의거하여 설치해 무선(武選)·의위(儀衛)·우역(郵驛)·병갑(兵甲)·기장(器仗)·문호(門戶) 등의 정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병조에 소속된 무선사(武選司)는 무관·군사·잡직의 제수와 고신·녹패 및 무과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승여사(乘輿司)는 노부(鹵簿)·여련(輿輦)·구목(廩牧)·정역(程驛)·보충대(補充隊, 노비를 면한 천민으로 편제한 부대)·조례(皂隸, 관아 소속의 하인)·나장(羅將, 의금부 소속 하층민), 반당(伴尙, 경성 각 관아의 사역)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무비사(武備司)는 군적(軍籍)·마적(馬籍)·병기·점호와 사열·군사 훈련 및 제반 방수(防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당초에는 전서 2명, 의랑 2명, 좌랑 2명, 주사 2명을 두었지만 태종 때에 판서 1명, 참판 1명, 참의, 참지 각 1명(참의와 참지의 위계는 동일하다), 정랑 4명, 좌랑 4명으로 개편되었다.

형조(刑曹) : 태조 원년에 고려 말의 제도에 의거하여 설치해 법률·사송(詞訟)·노예의 정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형조에 소속된 상복사(詳覆司)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복심을 관장하고, 고율사(考律司)는 율령의 조사에 관한 일을, 장금사(掌禁司)는 형옥(刑獄)과 금령(禁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장예사(掌隸司)는 노예의 장부 및 포로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당초에는 전서 2명, 의랑 2명, 정랑 2명, 좌랑 2명, 주사 2명을 두었지만 태종 때에 판서 1명, 참판 1명, 참의 1명, 정랑 4명, 좌랑 4명으로 개편되었다(훗날 정랑과 좌랑 각 1명을 감원).

공조(工曹) : 태조 원년에 고려 말의 제도에 의거하여 설치해 산택(山澤)·공장(工匠)·영선(營繕)·도야(陶冶)의 정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공조에 소속된 영조사(營造司)는 궁실(宮室)·성지(城地)·공해(公廩)·옥우(屋宇)·토목·구역(工役)·피혁·모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공야사(攻冶司)는 여러 장인들의 제작품, 금·은·주옥·구리와 철의 제작, 도량형 등의 일을 관장한다. 산택사(山澤司)는 산림·소택(沼澤)·나루터·교량·궁궐의 정원·식목·탄·목재·석재·선박·차량·필목·칠기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당초에는 전서 2명, 의랑 2명, 정랑 2명, 좌랑 2명, 주사 2명을 두었지만

나중에 태종 때에 판서 1명, 참판 1명, 참의 1명, 정랑 3명, 좌랑 3명으로 개편되었다.

(3) 의금부(義禁府)

고려 초기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를 두고 포도(捕盜)·금란(禁亂)·국수(鞫囚) 등을 관장했는데, 공민왕 때에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로 개편되었다. 이조에 이르러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따랐지만, 태종 2년에 순위부(巡衛府)로, 3년에 또다시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로 개편되었다가 14년에 의금부로 개칭하고 도제조(都提調)·제조(提調)·진무(鎭撫)·지사(知事)를 두었다. 이로써 병사와 관련된 일을 그만두고 오로지 교지를 받들어 추국(推鞫)을 관장하게 되었다. 나중에 관원 수를 개편해 판사 1명(종1품), 지사 1명(정2품), 동지사(同知事) 2명(종2품), 경력 5명(종4품), 도사(都事) 5명(종5품, 나중에 종6품으로 내림)을 두었다(나중에 경력을 개편해 도사 5명(종8품)을 증원했다).

(4) 사헌부(司憲府)

태조 원년에 고려 말의 제도에 의거하여 사헌부를 설치해 시정(時政)을 논하고 백관의 공과를 살피고, 풍속을 다스리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고, 남위(濫僞)를 금지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도록 했다. 당초에는 대사헌(大司憲) 1명, 중승(中丞) 1명, 시사(侍史) 2명, 잡단(雜端) 2명, 감찰(監察) 20명을 두었지만 나중에 대사헌 1명(종2품), 집의(執義) 1명(종2품), 장령(掌令) 2명(정4품), 지평(持平) 2명(정5품), 감찰 24명(정6품. 『문헌비고』에는 감찰 25명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경국대전』에 의거했다. 나중에 감찰 11명을 감원으로 개편되었다.

(5) 사간원(司諫院)

태조 원년에 고려의 제도에 의거하여 문하부낭사(門下府郎舍)를 두고 헌납·간쟁(諫諍)·박정(駁正) 등의 일을 관장하도록 했다. 좌우간의대부(左右諫議大夫) 각 1명, 직문하(直門下) 1명, 좌우보궐(左右補闕) 각 1명, 좌우습유(左右拾遺) 각 1명을 두었지만 태종 2년에 사간원을 분리해 간의대부를 사간대부(司諫大夫)로, 직문하를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로, 보궐을 헌납으로, 습유를 정언(正言)으로 개편했다. 나중에 또다시 개편해 대사간 1명(정3품), 사간 1명(종3품), 헌납 1명(정5품), 정언 2명(정6품)을 두었다(연산군 때에 한때 사간원을 폐지했으나 중종이 즉위하면서 원래대로 돌아갔다).

서반(西班)의 경관직(京官職) 중에서 최고의 기관이 중추부(中樞府), 중요한 기관으로는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이다.

(1) 중추부(中樞府)

고려 성종 때에 중추원을 설치해 출납·숙위(宿衛)·군기(軍機)에 관한 정무를 관장하도록 했는데, 나중에 밀직사(密直司)로 개칭되었다. 조선 태조가 즉위하면서 고려 말의 제도에 의거하여 또다시 중추원을 두었지만, 정종 2년에 이를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로 개편했다(의흥삼군부의 설치는 태조 2년 9월이다. 『태조실록』에 의거). 태종 9년에 삼군부를 폐지하고 또다시 중추원을 설치했으나 세조 때에 별도로 승정원(承政院)을 두고 왕명출납에 관한 일을 관장하도록 했다. 또 중추원을 중추부로 개편한 뒤에는 소임을 정하지 않고, 문무당상관 중에서 소임이 없는 자들을 우대하는 곳이 되었다. 관원은 영사(領事) 1명(정1품), 판사 2명(중1품), 지사 6명(정2품), 동지사 7명(중2품. 나중에 1명을 증원). 첨지사(僉知事) 8명(정3품), 경력 1명(중4품), 도사 1명(중5품. 나중에 2명을 증원)이다.

(2)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태종 9년에 삼군부를 폐지하고 진무소(鎭撫所)로 개편한 뒤 병조에 소속되어 금려(禁旅)를 이끌고 돌아가며 숙위하는 일을 관장하도록 했는데, 세조 때에 진무소를 오위도총부로 개편하고 오로지 군무를 맡았고 병조에 속하지 않았다. 관원은 도총관 5명(정2품), 부총관 5명(중2품), 경력 4명(중4품. 나중에 2명을 증원), 도사(중4품. 나중에 2명을 증원)이다.

(이상은 『이조실록』, 『문헌비고』, 『연려실기술』 별집, 『경국대전』, 『대전회통(大典會通)』, 『지봉류설(芝峰類說)』)

2. 지방관제

동반의 외관직, 즉 지방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은 관찰사(觀察使, 감사라고도 한다)이다(유도부(留都府)에 유수(留守)라는 것이 있어서 관찰사와 동격의 고관이긴 하지만, 이는 외관이 아니라 경관직이다). 고려 때에 안염사(按廉使)라 칭하며 전제적인 방식으로 등용과 축출을 행하였지만, 이씨조선에 이르러 각 도에 관찰사 1명을 둬으로써 지방의 행정과 사법을 주관하도록 하고, 동시에 병마의 권한도 주어졌다(각 도의 병마·수군 각 절도사의 정원 중에 1명은 반드시 관찰사가 이를 겸임). 관찰사 아래에 도사(都事)가 있고, 또한 부·주·군·현에는 각각 수령이 있어서 관찰사의 감독을 받는다.

지방청의 조직은 중앙관청을 본떠 감사(監司)는 그 아래에 이·호·예·병·형·공의 육방(六房)을 두고 관내의 재정·군정·농·공·상·경비 업무 등의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장한다. 부윤(府尹) 이하의 각 수령 또한 이를 본떠 육방을 설치해 관내의 제반 사

무를 관장한다.

서반의 외관직으로는 각 도에 병마·수군의 각 절도사·절제사·우후(虞候)·첨절제사(僉節制使)·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수군만호(水軍萬戶) 등이 있다. 각 절도사의 정원 가운데 1명은 도관찰사가 이를 겸임한다. 그 밖의 다른 무관 역시 대부분 수령이 이를 겸임한다. 다음은 당시의 대략적인 행정구획과 지방관의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태종 13년에 전국을 나누어 다음과 같이 팔도로 구분했다.

경기도 : 태조 때에 고려 말의 제도에 의거해 경기를 나누어 좌도·우도로 했는데, 태종 2년 양도(兩道)를 합쳐 경기좌우도라 칭했다. 그리고 13년 개성의 서쪽 지역을 풍해도(豐海道)에 편입시키고, 충청도의 여흥·안성이북 지역을 나누어 경기도에 편입시키고, 좌우도를 개편해 단순히 경기도라 칭했다.

충청도 : 고려 때에 당초 양광도(楊廣道)라 칭했으나, 나중에 충청도라 했다. 이조에 들어서 태종 13년 충청도의 여흥·안성·음죽·양성·양지를 나누어 경기도에 편입시키고, 경상도의 옥천·황간·보은·청산을 충청도에 편입시켰다.

경상도 : 고려 충숙왕 때에 경상도라 칭하고, 이조시대에도 이를 따랐다. 중종 14년에 이를 좌우도로 나누었지만, 다시 하나의 도로 했다.

전라도 : 고려 현종 때에 전라도라 칭하고, 이조시대에도 이를 따랐다. 인조 때에 전남도로 개칭한 뒤 다시 전라도라 칭했으나, 나중에 광남도(光南道)라 칭하다가 그 이후 원래 명칭으로 돌아갔다.

황해도 : 고려 때에는 서해도라 칭했으나 이조시대에는 태조 4년에 풍해도라 했다. 태종 17년에 또다시 개칭해 황해도라 했지만, 광해군 때에 황연도(黃延道)로 개칭한 뒤 다시 원래 명칭인 황해도로 돌아갔다.

강원도 : 고려 때에 교주강릉도(交州江陵道)라 칭했으나, 이조시대 태조 4년에 강원도라 하고, 효종 때에 원양도(原襄道)라 개칭하고, 나중에 또다시 원래 명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숙종 때 또다시 강양도(江襄道)라 한 뒤 옛 명칭인 강원도로 돌아갔다.

영길도 : 고려 때 동북면 또는 삭방도(朔方道)라 불렀지만, 이조시대 태종 13년에 영길도(永吉道)로 고치고 16년에 함길도(咸吉道)로 고쳤다. 성종 원년 영안도로 부르다가, 중종 4년에는 함경도(咸鏡道)로 개칭했다.

평안도 : 고려 때에 서북면이라 칭했으나 이조시대 태종 때에 평안도라고 했다. 태종 16년에 영길도 갑산군의 서면·여연 지역을 나누어 여연군으로 하고 평안도에 편입시켰다.

이러한 팔도를 좀더 상세히 구분하면 유도부(留都府) 1곳, 부(府) 4곳, 대도호부(大都

護府) 4곳, 목(牧) 20곳, 도호부(都護府) 40곳, 군(郡) 82곳, 현(縣) 175곳이다. 그리고 유도에 유수(留守), 부에 부윤(府尹), 대도호부 및 도호부에 부사(府使), 목에 목사(牧使), 군에 군수(郡守), 현에 현령(縣令) 또는 현감(縣監)을 두었다. 부윤 이하를 총칭해서 수령(守令)이라 한다.

(이상은 『이조실록』, 『문헌비고』, 『경국대전』, 『대전회통』, 『읍지(邑誌)』, 『경북부지(京北府誌)』)

〈동반 외관 배치표〉

	관찰사 (觀察使)	유수 (留守)	부윤 (府尹)	대도호부사 (大都護府使)	목사 (牧使)	도호부사 (都護府使)	군수 (郡守)	현령 (縣令)	현감 (縣監)
경기도	1명 (중2품)	2명(중2품) 1명은 관찰사가 겸임. 1명은 개성(나중에 광주·강화·수원·춘천을 유수부로 승격)			해독 불가	7명(중3품) 수원(나중에 유도부로 승격), 강화(나중에 유도부로 승격), 부평·남양·이천·인천·장단(나중에 통진·교동·죽산 3현을 도호부로 승격)	7명(중4품) 양근·풍덕(나중에 폐지), 안산·삭녕·안성·마전·고양(나중에 김포·가평·영평·교하 4현을 군으로 승격)	5명 (중5품) 현의 명칭은 생략	14명 (중6품) 현의 명칭은 생략
충청도	상동				해독 불가		12명(상동) 임천·단양·청풍(나중에 도호부로 승격), 태안·한산·서천·면천·천안·서산·괴산·옥천·온양(나중에 대흥·보은·덕천 3현을 군으로 승격)	1명 (상동)	37명 (상동)
경상도	상동		1명(중2품) 경주	1명(정3품) 안동(나중에 창원(군수)을 대도호부로 승격)	해독 불가	7명(상동) 창원(나중에 대도호부로 승격), 김해·영해·밀양·선산·청송·대구(나중에 함양·울산 2군 및 동래·거제·거창·하동·인동 5현을 도호부로 승격, 순흥·칠곡 2개 도호부를 신설)	14명(상동) 함천·함양(나중에 도호부로 승격), 초계·청도·영천·예천·영주·홍해·울산(나중에 도호부로 승격)·양산·합안·금산·풍기·곤양	7명 (상동)	34명 (상동)
전라도	상동		1명(상동)			4명(상동) 남원·장흥·순천·담양(나중에 여산군	12명(상동) 보성·익산·고부·영암·영광·진도·	6명 (상동)	31명 (상동)

						및 장성·무주 2현을 도호부로 승격)	낙안·순창·금산·진산·여산(나중에 도호부로 승격)·김계(나중에 대정·정의 2현을 군으로 승격)		
황해도	상동				2명(상동) 황주·혜주	4명(상동) 연안·평산·서흥·풍천(나중에 곡산군 및 웅진현을 도호부로 승격)	7명(상동) 곡산(나중에 도호부로 승격)·봉산·안악·개령·수안·백천·신천(나중에 금천을 신설)	4명(상동)	7명(상동)
강원도	상동				1명(상동) 원주	5명(상동) 회양·양양·춘천(나중에 유도부로 승격)·철원·삼척(나중에 영월군 및 이천현을 도호부로 승격)	7명(상동) 평해·통천·정선·고성·간성·평창	3명(상동)	9명(상동)
영길도	상동	1명(상동) 관찰사가 겸임. 영흥(나중에 대도호부로 승격, 함흥(군수)을 부로 승격)	1명(상동) 안변(나중에 도호부로 내리고 영흥을 대도호부로 했다)			11명(상동) 경성(북도 절도사가 이를 겸임)·경원·회령·종성·온성·경흥·부령·북청(남도 절도사가 겸임)·덕원·정평·갑산(나중에 산수군·단천군 및 명천현을 승격하고, 무산·장진·후주를 신설)	5명(상동) 삼수(나중에 도호부로 승격)·문천·고원·단천(나중에 도호부로 승격)·함흥(나중에 부로 승격)		4명(상동)
평안도	상동	1명(상동) 관찰사가 겸임. 평양(나중에 의주(목사)를 부로 승격)	1명(상동) 영변(절도사가 겸임)	3명(상동) 안주·정주·의주를 부로 승격		6명(상동) 강계·창성·성천·삭주·숙천·구성(나중에 중화·자산·선천·철산·용천·초산 6군 및 삼화·함중 2현을 도호부로 승격)	18명(상동) 중화(나중에 도호부로 승격)·상원·덕천·개천·자산(나중에 도호부로 승격)·가산·선천(나중에 도호부로 승격)·곽산·순천·철산(나중에 도호부)·희천·이산(나중에 도호부)·벽동·운산·박천·위원·영원·용천(나중에 도호부)	8명(상동)	5명(상동)

〈서반 외관 배치표〉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병마·수군절제사	병마절제사	병마첨절제사	수군첨절제사	병마동첨절제사	수군만호	병마만호
경기도	1명(종2품) 관찰사가 겸임	2명(정3품) 1명은 관찰사가 겸임			4명(종3품) 각 수령이 겸임. 각 도 모두 동일	1명 (종3품)	4명(종4품) 수령이 겸임. 각 도 모두 동일	3명 (종4품) 현령이 겸임	
충청도	2명(상동) 1명은 관찰사가 겸임	상동			상동	2명 (상동)	12명 (상동)	3명 (상동)	
경상도	3명(상동) 1명은 관찰사가 겸임	3명(상동) 1명은 관찰사가 겸임		1명 (정3품) 경주	5명 (상동)	상동	20명 (상동)	19명 (상동)	
전라도	2명(상동) 1명은 관찰사가 겸임	상동	1명 (정3품) 제주도	상동 전주진	4명 (상동)	상동	14명 (상동)	15명 (상동)	
황해도	1명(상동) 관찰사가 겸임	1명(상동) 관찰사가 겸임			2명 (상동)	1명 (상동)	11명 (상동)	6명 (상동)	
강원도	상동	상동			3명 (상동)	상동	상동	4명 (상동)	
영길도	3명(상동) 1명은 관찰사가 겸임	3명(상동) 2명은 병마절도사가 겸임. 1명은 관찰사가 겸임			15명 (상동)		6명 (상동)	3명 (상동)	14명 (상동)
평안도	2명(상동) 1명은 관찰사가 겸임	2명(상동) 1명은 병마절도사가 겸임. 1명은 관찰사가 겸임			16명 (상동)	3명 (상동)	17명 (상동)		4명 (상동)

제2절 교육·과거

1. 교육

선조 15년에 대제학 이이(李瑋)에게 명하여 학교 사목(事目)을 만들게 했다. 이이는 곧 바로 3공과 논의해 택사양사(擇師養士)를 사목으로 하여 학교 규범을 작성했다. 그 제11조에 응거(應擧)를 서술하여 이르기를 “과거 급제는 비록 뜻있는 선비가 애써 구할 바가 아니지만, 요즈음에는 그것이 벼슬에 나아가는 길이 되어 있으니, 늘 몸을 바로 세워 도(道)를 행하고, 충군보국의 마음을 갖고, 구차스레 따뜻하고 배부름을 구해서는 안 된다.

참으로 도에 뜻을 두고 게을리하지 않고, 날로 행하는 일이 도리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없다면, 과거 또한 매일 하는 일 중에 하나이니, 어찌 실공(實功)에 해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당시 조선의 교육 제도는 실로 과거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필경 관리 등용문에 다름 아니다. 지금 그 제도의 대강을 말하자면, 그 중앙에 성균관이 있고, 그 밑에 사학(四學)이 있으며, 향교가 있다. 성균관과 사학은 예조 직속기관이고, 향교는 주·부·군·현에 속한다. 또한 그 밑에 많은 상숙(庠塾)이 있어 아동의 훈도에 종사하고 있다. 소위 서당이 바로 그것이다. 사족의 자제들은 대개 8, 9세부터 15, 16세까지 이러한 서당에 들어가 먼저 소학을 구독하고 조금씩 문리를 이해함에 따라 대학·논어·맹자·중용 등을 배운다. 그리고 계속해서 학문에 뜻을 둔 자는 사학 혹은 향교에 들어갈 수 있고(도성에는 사학 교관, 밖에서는 수령·교관의 진고(詮考)에 따라) 몇 년간 면학한 뒤 생진과(生進科)에 응시하고, 거기에 급제한 자는 성균관(즉 태학)에 들어가 문과 시험에 응함으로써 관리에 등용될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여러 학교에 대한 개략을 서술한 것이다.

(1) 태학(太學)

태학이 처음 설치된 것은 삼국시대이다. 고려 때에 국자감(國子監)을 두고 나중에 성균관으로 개편했다(충렬왕 34년). 조선 태조가 즉위하면서 태조 6년 3월에 수도의 동북쪽 숭교방(崇教坊)에 마주한 곳에 태학을 만들었지만, 이듬해 7월에 여전히 고려의 제도를 본떠 성균관이라 불렀다. 문묘(공자를 받드는, 즉 대성전이다) 앞에 있으며, 명륜당을 중앙에 두고 좌우에 협방(夾房)을 두었다. 태조는 이곳에 학전(學田)을 내리고 노비를 주었으며, 성균관 제조(提調) 정도전 및 권근에게 명하여 4품 이하의 유사(儒士)를 모아 경사(經史)를 강습하도록 했다. 태종 5년에 왕이 태학에 가서 알성(謁聖)의 예를 행하고, 태종 7년에 밭 1만여 무(畝), 노비 300명을 성균관에 하사했다. 그 이후 각 왕들은 종종 그곳에 가서 알성의 예를 행하고, 전결(田結)과 노비를 하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숙종 때에는 영광군(전남도)의 각 섬의 어염(魚鹽)의 세금을 성균관에 내어주고 선비 양성(養士)을 위한 자금을 충당하도록 했다.

구성원으로는 당초 대사성(大司成, 1명)·궐주(祭酒, 1명)·악정(樂正, 2명)·직강(直講, 1명)·전부(典簿, 1명)·박사(博士, 2명), 양유박사(諒諭博士, 2명)·진덕박사(進德博士, 2명)·학정(學正, 2명)·학록(學錄, 2명)·직학(直學, 2명)·학유(學諭, 4명) 등을 두었지만, 나중에 지사(知事, 1명)·동지사(同知事, 2명)·대사성(1명)·궐주(1명) 나중에 사성으로 개편)·사예(司藝, 3명)·직강(4명)·전적(典籍, 13명)·박사(3명)·학정(3명)·학록(3명)·학유(3명)로 개편했다. 성균관 유생의 정원은 200명으로, 생원과 진사의 자격이

있는 자들 중에서 고르거나 또는 인원이 모자랄 경우에는 사학의 학생들 중에서 15세 이상으로 소학과 사서 및 일경(一經)에 능통한 자, 유음적자(有蔭嫡子) 중에서 소학에 능통한 자 및 과거 문과 및 생원 진사과의 향(鄕)·한성시(漢城試, 즉 초시)에 통과한 자들 중에서 이를 보충했다. 문묘는 정종 2년에 큰 화재로 인해 태종 7년에 재건한 뒤 임진의 난에 당시 또다시 피해를 입었지만, 선조 34년에 증건했다.

(2) 사학(四學)

정종 2년에 처음으로 경성의 동·서·중·남·북 5부에 각 학당을 설치하고 이를 오부학당이라 칭했다. 하지만 아직 학사(學舍)가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부에서는 학생들이 순천사(順天寺), 서부에서는 미륵사(彌勒寺)에서 모여 공부를 했지만, 두 사원의 승려들이 항의하게 되면서 결국 중단하고 오부학당은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태종 11년에 의례상정소제조(儀禮詳定所提調) 허조(許稠)의 건의로 다시 이를 설치했다. 그러나 세종 때에 북부학당이 폐지되어 동·서·중·남 네 곳이 남았는데, 이후에는 이를 사부학당이라 칭했고, 또는 단지 사학이라고도 했다. 사학 유생의 정원은 각 100명으로, 구성원은 각 학에 교수 2명(종6품)·훈도 2명(종9품)을 두었으며, 모두 성균관의 전적 이하가 이를 겸임하도록 했다(나중에 교수·훈도 모두 각 1명으로 감원).

역대 국왕들은 종종 전결과 노비를 하사했고, 성종 때에는 사학 교관 임명에 관한 법을 정하고 강학을 장려하는 등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큰 힘을 쏟았지만, 이미 당시에 부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3년 왕이 사관(史官)을 보내 순시했을 때 생도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왕은 즉시 교지를 내려 이를 훈유(訓諭)했다. 훗날 명종 때에 이르러 왕은 학교의 황폐화를 걱정해 이황(퇴계)을 대사성으로 임명했는데, 이황은 곧바로 계유문(戒諭文)을 작성해 사학의 학생들을 꾸짖었다고 한다. 임진의 난에 사학은 모두 파괴되어 훗날 다시 복구했지만, 또다시 변란을 만나게 되면서 크게 쇠퇴하였고, 인조 때에는 사학 유생의 정원을 줄여 5명이 되었다. 그 이후 2명으로 줄었다가 인조 7년에 3명을 늘려 다시 5명이 되었다.

(3) 향교(鄕校)

고려 때에 이미 향교가 설치되었다(고려 인종 5년 3월에 각 주에 명을 내려 학문을 일으키고 교도(敎導)를 확장시켰다). 말기에 이르러 병란이 잇따라 일어나 각 도의 학문은 크게 쇠퇴했으나, 조선 태조가 즉위하면서 학문을 일으키고자 하는 뜻을 갖고 태조 원년에 각 도의 안찰사에게 명을 내려 학교의 흥폐를 고과(考課)의 법으로 삼으니, 그 이후 문교가 점차 멀리 미쳤다. 같은 해 제주에 학교가 들어선 이후 공주(경흥)에서부터 갑산

에 이르기까지 모두 학교를 세워 경서를 가르치게 되었다. 세종 때에는 서적을 제주 학교에 보냈고, 성종 또한 향학에 서적이 적다는 사실을 걱정하면서 명을 내려 사서오경을 찍어 각 도에 나누어주었다.

향교는 각지의 수령이 그 지방의 공비(公費)로 설립하고, 관은 전결(田結) 및 소요 서적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보조했다. 각 도의 관찰사가 이를 감독하고 각 부·군·현에 하나씩 있었으며, 모두 대성전, 명륜당 양재(兩齋)를 갖추었고, 유생의 정원은 지방마다 달랐다. 세종 때에는 유도부 50명, 목과 도호부 40명, 군 30명, 현 15명으로 정했지만, 훗날 『경국대전』이 제정되었을 무렵에는 부·대호부·목은 90명, 도호부는 70명, 군은 50명, 현은 30명으로 개정되었다. 구성원으로는 당초 교수관·교도·학장이 있었는데, 도호부 이상은 교수관, 군·현은 향도 또는 학장을 두었다. 그러나 나중에 교수와 훈도만 두었는데, 도호부 이상은 교수, 군·현은 훈도를 두게 되었다.

학생의 과업은 강독(경서)과 제술(시문)이다. 군수는 매달 말에 일과와 성적을 모아서 이를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는 매년 각 군을 순시하면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게 한 뒤 뛰어난 자를 골라 호역(戶役)을 면해줌으로써 학문을 장려했다. 하지만 향교의 교수·훈도는 매우 낮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선비들은 대부분 이를 꺼려했고, 따라서 교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음에 따라 사학과 마찬가지로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성종 2년에 예조는 “각 읍의 유생들의 정원이 매우 적고, 학사 또한 피폐하여 사생(師生) 중 때로는 개인 집에 교우(僑寓)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관찰사가 태만하여 이를 살피지 않는다. 국가가 학교를 진흥시킬 뜻이 있으니 각 읍의 유생들은 정원을 정하지 말고, 그 학사 또한 피폐한 것은 이를 수선하도록 하라”고 했지만, 명종 이후에는 더욱 쇠퇴하여 선조 2년에 이이는 향학 부흥을 위한 정책을 논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각 읍은 3년에 한 번씩 향인들 중에서 경사에 능통하고 사람의 스승이 될 만한 자를 골라 감사(監司)에 보고하도록 하라. 감사는 각 읍에서 선출된 자들을 모아 이조에 옮기고 이조는 그 명부를 작성해 신중한 공문을 거친 뒤 더욱 정교하게 선택하라. 훈도를 맡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읍의 사람을 시키도록 하고, 그 읍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웃 읍의 사람에게 맡기고, 이웃 읍에도 사람이 없다면 그 도의 사람에게 맡기도록 한다. 매년 감사가 직접 그 성적을 파악하고 성적이 뛰어난 자에게는 곧바로 알린 뒤 상을 주고 6품직을 내림으로써 사림을 독려하도록 하라. 만약 이와 같이 된다면 훈도직을 중히 여기고 과거 이 일을 가벼이 보던 인사도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임진의 난 이후 향교는 완전히 피폐해져 관은 이를 부흥시키기 위해 큰 힘을 쏟았는데, 유생들 중에 사재를 털어 이를 경영하는 자도 있었고, 때로는 상을 주어 이를 장려하

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한편으로는 서원의 발흥이 있어서, 학교의 내실은 완전히 그곳에 빼앗겼고, 단지 석전(釋典)의 예 또는 양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이 빈번히 개최됨으로써 겨우 그 이름을 유지할 수 있었을 따름이다.

부기

향교를 대신해 부흥한 것은 서원이다. 서원은 중종 36년에 풍기(경상북도) 군수 주세붕(周世鵬), 고려의 명신 문안유(文安裕, 고려 충선왕 때의 사람. 이름은 유(裕), 나중에 향(珦)으로 바꾸었다)가 구기(舊基, 풍기군의 속현 순흥)에 사(祠)를 세우고 이를 백운서원(白雲書院)이라 부른 것이 그 시초이다. 훗날 명종 때에 유신(儒臣) 이황(퇴계)의 주청으로 그곳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액자를 하사하면서 큰 발전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서원 시작의 제1기에 두는 것이 당연하지만, 가장 융성했던 시기는 인조 이후이다. 또한 그 부흥은 당쟁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상세한 것은 제2기에 서술하도록 한다.

(『이조실록』, 『경국대전』, 『문헌비고』, 『율곡전서(栗谷全書)』, 『이퇴계전집(李退溪全集)』, 『국조보감』)

2. 과거

과거는 당시 관리의 등용 시험이다. 조선 사족들의 자제는 모두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가장 긴요한 일로 생각했고, 학문과 교육은 대개 이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 선조 15년 왕명에 따라 학교 사목을 작성한 대제학 이이는 그가 작성한 『학교모범』에 과거에 관해 언급하며 “과거급제는 뜻있는 선비가 애써 구할 바가 아니나 요즘에는 그것이 벼슬에 나아가는 길이 되었으니, 참으로 도(道)에 뜻을 두고 게을리하지 않고, 날로 행하는 일이 도리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없다면, 과거 또한 일하는 한 가지 일이다”라며 과거에 응시할 수밖에 없는 까닭을 설명했다.

조선에 과거 제도가 처음 정해진 것은 멀리 신라 원성왕 때이며, 원성왕 4년 당나라의 제도를 본떠 독서출신과(讀書出身科)를 만들어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혹은 예기·문선을 읽고 그 뜻을 통달하는 동시에 논어·효경에 밝은 자를 상(上)으로 하고, 곡예·논어·효경을 읽은 자를 중(中)으로 하며, 곡예·효경을 읽은 자를 하(下)로 했다.

고려 광종 9년 5월에 비로소 과거를 설치해 한림학사 쌍기(雙冀, 후주 사람. 광종 7년에 봉책사로 따라온 뒤 머물러 왕의 요속(僚屬)이 되었다)을 지공거(知貢舉)로 삼아 시험을 치렀는데, 시(詩)·부(賦)·송(頌) 및 시무책(時務策)을 통해 진사를 뽑고, 동시에 의업(醫業)·복업(卜業) 등의 사람도 채용했다. 이로써 과거는 오로지 인재를 뽑기 위한 법이 되었는데, 나중에 공민왕 18년 비로소 원나라의 향시(鄉試)·회시(會試)·전시(殿

試) 제도를 활용해 정하면서 상식(常式)으로 했다.

조선 태조가 왕위에 오르자 태조 원년에 교지를 내려 문무 양과(兩科)의 하나라도 없앨 수 없다고 했다. 이로써 과거의 법을 정했다. 이어서 이듬해 3월에 3년 1시(試)의 법을 만들어 자오묘유(子午卯酉) 해에 이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그해는 계유(癸酉)이기 때문에 고려 기유(己酉, 즉 공민왕 18년)의 격식(格式)에 따라 곧바로 이를 실시했다. 정종 원년에 생원·진사시를 설치하고, 태종 8년에 비로소 무과를 두었다.

과거에는 문과·무과 및 생원·진사과가 있으며, 또한 잡과라 칭하는 역과(譯科)·의과(醫科)·음양과(陰陽科)·율과(律科)가 있다. 역과 안에 한학·몽학·왜학·여진학, 음양과 안에 천문학·지리학·명과학(운명과 길흉 등에 관한 학문) 등이 있다. 이들과는 3년 1시를 규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오묘유에 해당하는 연도에 이를 실시한다. 식년시(式年試)라 불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국가에 큰 경사가 있는 경우, 혹은 몇 번의 경사를 모아 식년 이외에 특별히 이들 과의 과거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증광(增廣)이라 하고, 경사가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을 대증광이라 부르는데, 이 경우에는 정원을 약간 늘리기도 한다. 증광시가 시작되는 것은 태종 원년 3월이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이 문과와 무과에 한해서 특별히 설정되는 과거시험이 있다.

1. 별시(別試) : 나라에 경사가 있을 경우와 중시(重試)에 관해서는 뒤에서 거론한다)의 대거(對舉)로서 문과와 무과 모두 시행된다. 그 시작은 세조 2년이다.
2. 정시(庭試) : 나라에 경사가 있을 경우 시행된다. 이 경우에는 문무의 인사를 전정(殿庭)에 불러서 이를 시행한다. 또는 별시를 바꾸어 정시로 하는 경우도 있다.
3. 알성시(謁聖試) : 국왕이 문묘에 친히 임하여 작헌(酌獻)의 예를 행하고, 인사를 시험한다(문과와 무과 모두). 그 시작은 태종 14년이다.
4. 춘당대시(春塘臺試) : 국왕이 춘당대(창경궁 부근)에 친히 임하여 각 군문의 무사를 불러 무예를 보고 문무의 과거를 시행한다. 그 시작은 선조 5년이다.
5. 외방별과(外方別科, 또는 도과(道科)라고도 한다) : 평안도·함경도 및 전주·송도·함흥·강화·교동·제주·온양 등지에 특지가 내려 문과와 무과를 함께 시행한다.
6. 중시(重試) : 문과와 무과 모두 10년에 1회 시험을 실시하고(병년(丙年)에 시행), 당하관(堂下官)이 여기에 응시할 수 있다. 태종 7년에 처음으로 문신의 중시를 실시했는데, 나중에 문무 모두 실시하게 되었다.
7. 문신정시(文臣庭試) : 국왕이 관무재(觀武才)에 친히 임했을 때, 특지가 있으면 이를 시행한다. 당상 정3품 이하는 이를 볼 수 있다.

위의 두 시험은 이미 문과 또는 무과에 급제한 자 및 이미 문무직에 있는 자를 위해 특별히 이를 시행한 것이다.

8. 절일제(節日製) : 정월 7일(인일제(人日製)), 3월 3일(삼일제(三日製)), 7월 7일(칠석제(七夕製)), 9월 9일(구일제(九日製)) 등의 절일(節日)에 문과시를 실시하고, 성균관 유생들이 응시하도록 했다. 그리고 성적이 뛰어난 자에게는 집을 내렸다.
9. 황감제(黃柑製) : 매년 제주에서 귤을 보내오는 것을 성균관 유생들에게 나누어주고, 문과시험을 실시한다. 황감시의 시작은 명종 19년이다.
10. 도기과(到記科, 춘추도기라고도 한다) : 성균관 유생들의 근태를 보기 위해 명부를 들고 유생들이 식당에 들어오는 수를 기록한다. 아침과 저녁 식사를 1점으로 하고, 50점에 도달한 자는 춘추특지에 따라 시행하는 문과시에 응시할 수 있다. 그 시작은 중종 28년이다.

이상의 세 과거시험은 모두 성균관 유생에 대해 특별히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반제(泮製)라고도 한다(성균관을 반관(泮官)이라 부르고, 거기서 기숙하며 수학하는 유생을 반유(泮儒)라고 한다).

그 밖에도 발영과(拔英科, 세조 11년에 시작)·등준과(登俊科, 세조 11년에 시작)·현량과(賢良科, 중종 14년)·탁영과(擢英科, 중종 33년)·충량과(忠良科, 영조 40년) 등의 과목이 있어서(그 중에는 일시적으로 실시된 이후 곧 폐지된 것도 있다), 과거시험은 매우 빈번히 실시되었다(중세 이후에 이르러 그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한다).

이상의 문과·무과·잡과 외에 생원(生員)·진사과(進士科)가 있는데(줄여서 생진과라고도 한다), 그 시험에 합격한 자는 생원 또는 진사라 불리며(생원시에 합격한 자는 생원, 진사시에 합격한 자는 진사) 더 나아가 성균관에 들어가 문과시에 응시하고 참사(參事)·도사(都事) 등과 같이 하급 관직에 한해서 관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학·향교의 유생들은 성균관 유생의 문과에서처럼 생진과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특전을 누릴 수 있다.

1. 승보(陞補) : 성균관 대사성은 사학의 유생에 대해서 매년 10회(나중에 12회)의 시험을 실시하고(부 1편, 고시 1편), 여기에 합격한 자는 초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식년 생진과의 복시(覆試)에 응시하도록 한다.
2. 사학합제(四學合製) : 사학 각 학교에서 매년 시험을 유생들에게 실시하고(시·부·강서), 우등생 각 40명(『경국대전』에는 20명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증원되었다)을

뽑아 성균관 대사성이 다시 시험을 실시하고 뛰어난 자는 초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식년 생진과의 복시에 응시하도록 한다.

3. 공도회(公都會) : 감사 및 유수는 각 지방의 향교 유생들에게 시험을 실시하고(시·부·강서), 뛰어난 자에게는 초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식년 생진과의 복시에 응시하도록 한다.

과거시험은 초시·복시·전시로 나누어지고 과거에 따라 전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생진과·잡과에서는 전시를 실시하지 않는다). 때로는 그 중 하나 또는 둘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초시는 보통 식년의 전추(前秋, 즉 인기신해(寅己申亥)의 해), 경성 및 각 도에서 이를 실시하여(문과의 초시는 성균관에서 행하는 것을 관시(館試)라 하고, 한성부에서 행하는 것을 한성시(漢城試), 각 도에서 행하는 것을 향시(鄕試)라 한다. 무과는 훈련원에서 행하는 것을 원시(院試)라 하고, 잡과에서는 역과의 한학만 향시를 실시한다), 복시는 초시에 급제한 자가 응시하고, 전시는 과거의 최종 시험으로, 모두 식년의 춘추에 경성에서 실시한다.

문무과의 급제자는 갑·을·병의 3과로 구별할 수 있고, 갑과의 1위로 급제한 자는 장원(壯元)이라 칭한다. 그리고 문과의 1위로 급제한 자에게는 종6품, 나머지는 정7품, 을과에는 정8품, 병과에는 정9품을 내린다(무과도 동일). 또 잡과에는 1등·2등·3등의 등급이 있고, 역과 1등에는 종7품, 2등에는 종8품, 3등에는 종9품, 음양과·의과·율과 1등에는 모두 종8품, 2등에는 정9품, 3등에는 종9품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의 식년 및 증광의 각 시험에는 급제자의 정원이 있다. 증광은 식년과 동일한 인원, 대증광은 문과 초시에서 134명, 복시·전시에서 각 7명을 추가하고, 생진과에서는 인원을 추가하지 않았고, 잡과에서는 약간 추가한다. 그 밖의 각 시험에서는 임시로 이를 결정한다. 『경국대전』에 의거해 식년의 각 시험의 정원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부기

과거시험 중에는 기사의 제2기 이후에 걸친 것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이 항목에서 특별히 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병기하기로 한다.

(『이조실록』, 『문헌비고』, 『경국대전』, 『대전회통(大典會通)』, 『춘관지(春官志)』, 『춘관통고(春官通考)』, 『율곡전집(栗谷全集)』, 『퇴계집(退溪集)』, 『반계수록(磻溪隨錄)』, 『육전조례(六典條例)』, 『은대조례(銀臺條例)』)

과명(科名)	식년(式年)		
	초시(初試)	복시(覆試)	전시(殿試)
문과(文科)	관시(館試) 50명 한성시(漢城試) 40명 향시(鄉試) 경기 20명 충청 25명 전라 25명 경상 30명 강원 15명 평안 15명 황해 10명 영안 10명 합계 240명	33명	33명 (갑과 · 을과 · 병과)
생진과(生進科)	생원(生員) 향시 한성시 200명 경기 60명 충청 90명 전라 90명 경상 100명 강원 45명 평안 45명 황해 35명 영안 35명 합계 700명 진사(進士) 상동	생원 100명 진사 상동	
무과(武科)	원시(院試) 즉 훈련원시(訓練院試) 70명 향시 경상 30명 충청 25명 전라 25명 강원 10명 황해 10명 평안 10명 영안 10명 합계 190명	28명	28명 (갑과 3명, 을과 5명, 병과 20명)
역과(譯科)	사역원시(司譯院試) 한학 23명 몽학 4명	한학 13명 몽학 2명 왜학 2명	

	왜학 4명 여진학 4명 한학향시(漢學鄉試) 황해 7명 평안 15명 합계 57명	여진학 2명 합계 19명	
의학(醫學)	18명	9명	
음양학(陰陽學)	천문학 10명 지리학 4명 명과학 4명 합계 18명	천문학 5명 지리학 2명 명과학 2명 합계 9명	
율과(律科)	18명	9명	

제3절 유학과 불교 및 도교

1. 유학의 진흥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번창했고, 따라서 유학은 아직 크게 발전되지 않은 상태였다. 조선 태조는 독실한 불교신자였다고 할 수 있지만, 유학을 중시하고 치국의 요체는 유학의 진흥에 달려 있다고 보고, 즉위하자마자 중앙에 태학을 세우고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해 경연(經筵)을 열고 과거시험을 실시했다. 또한 학교의 흥폐(興廢)를 지방 수령들의 고과의 법으로 정하고 인재의 등용에는 반드시 경학·시·부의 시험을 실시하는 등 학문의 부흥에 힘을 쏟음으로써 유학은 갑자기 발흥의 기운을 갖게 되었다.

태종 또한 뜻을 학사에 두고 정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자 곧바로 부학(府學, 개성 부학)에 가서 선성(先聖)들을 알현하고 또 장남으로 하여금 취학의 예를 행하도록 했다. 세종 또한 학문을 즐겨하여, 즉위 초기 곤면(袞冕) 차림을 하고 행학(幸學) 알성(謁聖)하였으며, 세종 3년 세자 나이 8세가 되자 교지를 내려 “8세에 입학하는 것은 오래된 제도이다. 지금 세자 나이 8세가 되었으니 좋은 날을 골라 입학시키도록 하라”며 입학의 예를 행했다. 그 이후 알성, 입학은 거의 역대 국왕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되었으며, 왕들 중에는 재위 중에 수차례 행학, 알성의 예를 행한 경우도 있다.

정종이 태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자 정종 원년에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해 문신으로 하여금 경적을 강론하도록 했는데, 훗날 집현전을 보문각(寶文閣)으로 개편했다. 태종 또한 성균관 유생들을 광연루(廣延樓) 밑에 불러 문신으로 하여금 경사를 강론하도록 했다. 또한 이직(李穰)과 조박(趙璞) 등에게 명하여 성균관에 가서 유생들을 지도하도록 했다. 세종 2년 또다시 집현전을 궁중에 설치해 고금의 경적(經籍)을 모았고, 재덕문학(才德文學) 있는 자를 골라 전고(典故)를 토론하도록 했다. 그리고 세종 8년 독서당

을 설치해 문신들 중에 나이 어리고 재능 있는 자들을 골라 그들에게 긴 휴가를 주고 입직(入直)시켜 오로지 강독에 힘쓰도록 했다. 세조 원년에 집현전 학사 성삼문과 박팽년이 모의하여 상왕(즉 단종)을 복위시키려다가 일이 발각되어 주살되었는데, 이로 인해 집현전도 폐지되었다. 그러나 세조는 무비(武備)에 힘을 쏟는 한편으로 종종 행학(幸學)을 하여 즉위 5년 유생들을 불러 사서오경의 이동(異同)을 논하도록 하는 등 문교를 장려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학의 진흥에는 그 이상의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성종은 가장 학문을 좋아하여 치국의 도(道)는 교화(教化)를 첫 번째로 보고, 교화의 원천은 학교에 있다며, 종종 태학에 가서 알성의 예를 행하는 것은 물론, 태학·사학·향학 모두 보호하면서 이를 진흥시키기 위해 큰 힘을 쏟았다. 그리고 성종 8년에는 사학교관 구임(久任)에 관한 법을 만들었고, 15년에는 태학·향학에 전결을 내렸다. 23년에는 사관(史官)을 파견해 사학을 시찰하도록 했는데, 재학자가 보이지 않자 곧바로 교지를 내려 이를 크게 꾸짖으면서 “국가가 학교를 설치하는 것은 인재를 키우고, 국가를 다스리며,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권학의 법에 있어서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데 그대들이 학문에 힘을 쏟지 않고서야 어린 유생들이 장대한 출발(幼學壯行)을 어찌 쉽게 이룰 수 있겠는가. 각자 학문에 힘을 쏟아 임금을 받들고 백성들을 윤택하게 하는 것(致君澤民)을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라”고 했다. 이에 앞서(6년 가을) 왕은 존경각(尊經閣)을 명륜당(明倫堂) 북쪽에 세워 소장하던 사서오경 10부를 하사하고, 또 전교서(典校署, 경서의 관행을 관장하고, 훗날 교서관(校書館)으로 개편했다) 및 팔도에 명을 내려 서판이 있는 곳은 인쇄를 한 뒤 이를 존경각에 보내도록 했다. 이로써 존경각에는 경사·백가제자·잡서 등 이전부터 성균관에 소장하고 있던 것과 합쳐 무려 수만 권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왕은 향학에 서적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염려해 동왕 20년 명을 내려 사서삼경을 인쇄해 이를 각 도에 나누어주었다.

성종은 세종의 집현전을 본떠 홍문관(弘文館)을 설치하여 학사들을 모아 교대로 숙직하며 경사(經史)를 강의하도록 했으며, 또 문사들에게 긴 휴가를 주어 오로지 독서와 저술에만 힘쓰도록 하는 옛 제도를 되살려, 용산에 있는 폐사(廢寺)를 수리한 뒤 독서당을 만들었다. 조선의 역대 왕들이 이와 같이 유학의 진흥에 힘을 쏟았는데, 당시의 학풍 일만을 대략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즉 고려 말기에 정주(程朱)의 학문이 점차 실시되어 이제현(李齊賢)·이곡(李穀)·정몽주(鄭夢周)·이색(李穡) 등과 같이 학문의 대가를 배출했는데, 이들 학자들은 대개 조정에 들어가 현관과 요직에 있었기에 왕도(王都) 상류층의 자제들은 대부분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 태조가 왕위에 오르자 그 학자들 중에 어떤 이는 모반 등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또 어떤 이는 새로 들

어선 조정에서 일하기를 꺼려하여 은둔하는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시 등용되어 이조시대 각 왕들의 유학 존중과 맞물려 매우 중요한 지위에 올랐다. 따라서 이조 초기의 왕정에는 많은 학자들이 있었고, 학문은 대부분 이들 높은 신분의 사람 또는 그 자제들 손에 있었다. 물론 그들은 경학에 있어서는 주자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학문의 범위는 매우 넓었으며, 사학·법제·지리 등에도 능통했다. 또 그러한 학문에 관한 서적도 적지 않게 편찬되었다. 한편 고려 때의 신하 길재(吉再)는 새로 들어선 조정에서 일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여기고 선산(경상북도)에 숨어 제자를 길렀다. 그 제자로 김숙자(金叔滋)가 있었는데(선산 사람), 그의 아들 김종직(金宗直)이 대두한 이후 그 일파의 유학은 크게 일어났다. 당시의 명류 정여창(鄭汝昌)·김굉필(金宏弼)·김일손(金駟孫)·유호인(俞好仁) 등은 모두 그의 문하생으로, 학풍은 점차 도성으로 침투하기 시작했고 결국 주위와 충돌하면서 이른바 사화라 불리는 것을 야기하게 되었다. 김종직 학파는 기존의 학자와는 다소 달랐다. 즉 주자학을 계승하는 것 외에 소학의 실천과 시문의 연마를 거의 일생의 목적으로 삼았다. 그리고 자신들의 일파와 맞지 않는 것은 극력 이를 배척하고 세속적인 무리들과 어울리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주위에서 그들을 싫어하고 종종 그들의 압박을 받아 이른바 사림들 중에 해를 입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무오사화를 비롯해 갑자사화, 기묘사화 등의 사화는 모두 그 예이다(제3장 제1절 참고). 그렇지만 이 일파의 유학은 박해를 입으면 입을수록 더욱 번창해 사림의 이름은 당시 일반 선비들이 신망하고 점차 전체 학문계를 점령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동 학파끼리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것이 정권의 쟁탈과 맞물려 이조 500년의 절반에 이르는 시기동안 풀지 못한 당쟁(黨爭)을 야기하게 되었다. 당시 종주국인 명나라와의 교류는 매우 빈번히 이루어져 조선에서 파견하는 사절단은 끊임없이 그곳에 왕래했지만, 명나라의 학문·학설의 전래는 오히려 더디게 진행되었고 그 영향 또한 크지 않았다.

이 시기의 학자들 중에서 중요한 사람을 들자면,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에 걸쳐 유명한 이는 이색·정몽주·이승인·권근·길재이다. 그들의 사적을 약기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색 : 자는 영숙(穎叔), 호는 목은(牧隱)으로 한산(충청북도) 사람이다. 부친 이곡의 호는 가정(稼亭)으로 경사에 밝았다는 것으로 유명하다. 원나라를 받들어 중서사전부(中瑞司典簿)가 되었다. 이색은 고려 충숙왕 15년 5월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나이 14세에 성균시에 통과해 공민왕 16년에 판개성(判開城) 겸 성균 대사성이 되었다. 왕은 학교를 진흥시키려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성균관을 창설해 당시 경술(經術)이 있는 자를 골라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했다. 이색은 매일 정몽주와 이승인을 비롯한 여러 학관

들과 수업을 마친 뒤 토론을 하는 등 성리학은 이로써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 공양왕 2년에 윤이(尹彝)·이초(李初)의 난에 연루되어 청주의 옥에 구금되었는데(제1장 제3절 참고), 그 이후 금주(衿州, 경기도)에 이어 여주(驪州)에 유배되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 태조가 즉위하면서 그의 아들 종학(種學)이 비명에 쓰러지고(종학은 이에 앞서 정몽주 일파로 경상도에 유배되었는데, 여기에 이르러 장살(杖殺)당했다), 이색은 여주의 시골에 거주했다. 태조 4년 11월에 부름을 받아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가 되어 한산백(韓山伯)에 봉해졌지만, 이듬해 5월에 병으로 죽었다. 당시 69세였다.

정몽주(鄭夢周) : 자는 달가(達可), 호는 포은(圃隱)으로, 영일(迎日, 경상북도) 사람이다. 성리학으로 유명하고 이색은 그를 추칭(推稱)하여 동방 이학(東方理學)의 시조라고 했다. 고려 공양왕 4년에 이성계의 발호에 분노하면서 그를 제거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죽임을 당했다.

이승인(李崇仁) : 자는 자안(子安), 호는 도은(陶隱)으로, 경산(京山, 경상북도) 사람이다. 이색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했으며, 공양왕 때에 정몽주 일파에 속하여 영남에 유배되었지만 조선 태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정도전이 은밀히 사람을 보내 그를 장살했다(『도은집(陶隱集)』, 『고려사열전(高麗史列傳)』).

권근(權近) : 자는 가원(可遠), 호는 양촌(陽村)으로, 안동(安東, 경상북도) 사람이다. 고려 공민왕 원년에 태어나 18세에 등제되었다. 공양왕 2년에 윤이·이초의 난에 연루되어 권근, 이색 등 50여 명과 청주 옥에 구금되었다가 익주(益州)에 유배된 이후 『입학도설(入學圖說)』을 저술했다. 공양왕 3년에 풀려나 충주 양촌에 돌아간 뒤 예경(禮經)을 고정(考定)하고 또 오경(五經)에 대한 주석서를 저술했는데, 이를 『천견록(淺見錄)』이라 한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 태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부름을 받아 예문관학사에 봉해졌다. 태조 5년에 명나라 태조가 조선의 하정표전(賀正表箋)을 보고 굴욕적인 표현이 있다며 표전 작성자 정도전을 보내라고 했지만, 정도전은 병을 핑계로 가지 않았고 그를 대신해 권근이 갔다. 황제가 시제를 주며 시를 짓도록 하여 권근이 18편을 지어서 이를 바치자 황제가 크게 기뻐하고 상을 주었다고 한다. 태종 9년에 병으로 사망했다. 나이 59세이다. 성현(成俔, 호는 용재(慵齋))은 권근을 가리켜 “고려의 문사들은 모두 시소(詩騷)를 업으로 삼았으나 포은(圃隱)이 성리학을 처음으로 제창하였고, 아조(我朝)에 이르러서는 양촌(陽村)과 매헌(梅軒, 권근의 동생 권우(權遇)) 형제가 경학에도 밝고 글도 능하였다. 양촌은 사서오경의 구결을 정하였고, 『천견록』, 『입학도설』 등을 저술했으니, 우익(羽翼)의 공이 적지 않다”라고 했다(『양촌집(陽村集)』, 『해동명신록』).

길재(吉再) : 자는 재부(再父), 호는 야은(冶隱)으로, 공민왕 2년에 선산(善山, 경상북도)에서 태어났다. 사성(司成) 박분(朴賁)에게서 처음으로 성리학을 들었고, 나중에 이

색·정몽주·권근 등의 문하에 들어가면서 크게 발전했다. 권근이 사람들에게 말하길, “내 문하에 들어와 학문을 익히는 이들 중에 길재부가 독보적이다”라고 했다. 고려가 망하고 이씨조선이 되면서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선산 금오산(金烏山) 아래에 자리를 잡고 제자를 양성했다. 성현은 “공(길재를 가리킨다)은 군의 여러 생도들을 모아 양재(兩齋)로 나누고, 경사를 가르침으로써 근태를 부과했다. 가르침을 받으려는 이가 하루 백 명에 이르렀다”고 했다. 세종 원년에 사망했다. 문하생으로 김숙자(金叔滋)가 있고, 그의 아들 김종직이 나타나면서 그 계통의 학파가 크게 일어났다(『야은집(冶隱集)』).

태종·세종에서 세조·성종에 이르는 동안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배출되었다. 그 중에서 저명한 이들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

하륜(河崙) : 자는 대림(大臨), 호는 호정(浩亭)으로, 진주 사람이다. 경사에 밝았고 음양·의술·성경(星經)·지리 등에도 능했다. 태종 8년에 영의정에 올랐고, 16년에 사망했다.

변계량(卞季良) : 자는 거경(巨卿), 호는 춘정(春亭)이다. 고려 공민왕 18년에 태어나 이색·정몽주·권근 등의 문하생으로 성리학을 익혔다. 태종 때에 대제학으로 봉해져 세종 12년에 사망했다.

윤상(尹祥) : 자는 실부(實夫), 호는 별동(別洞)이다. 고려 공민왕 22년에 태어나 경학에 밝은 것으로 유명하다. 예문제학(藝文提學)에 올랐고, 단종 3년에 사망했다.

허조(許稠) : 자는 중통(仲通), 호는 경암(敬庵)으로, 권근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늘 학문으로 몸을 다스렸다. 고려 공양왕 2년에 등과, 조선 태조 이후 4조(朝)에서 일하고 좌의정에 올랐다. 세종 19년에 사망했다.

정인지(鄭麟趾) : 자는 백저(伯睢), 호는 학역재(學易齋)로, 조선 태조 5년에 태어났다. 권근의 동생 권우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고, 태종 14년에 19세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세종 때에 왕명을 받아 『치평요람』, 『역대병요』, 『훈민정음』 등의 편찬에 참여했다. 또 『고려사』를 편찬했다. 대제학과 영의정에 올랐고 성종 9년에 사망했다.

김숙자(金叔滋) : 자는 자배(子倍)로 선산 사람이다. 길재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고, 윤상에게서 역을 배웠다. 세종 때에 선산 교수, 개령 현감이 된 이후 성균 사예가 되었다. 세조 원년에 관직을 버리고 밀양(경상남도)에 돌아가 사망했다. 나이 68세였다.

어효첨(魚孝瞻) : 자는 만종(萬從), 태종 5년에 태어났다. 세종 때에 집현전 학사가 되었고 판중추에 올랐다. 예기에 밝았고, 일찍이 『예기일초(禮記日抄)』를 저술했다. 성종 5년에 사망했다.

신숙주(申叔舟) : 자는 범옹(泛翁), 호는 보한재(保閑齋)로, 태종 9년에 태어났다. 대제학·영의정에 올랐다. 일찍이 세종의 명을 받아 『예기대문언독(禮記大文諺讀)』을 편찬